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On Institutional Formation of Appellation and Profession of the Korean Architect

이강민 Lee, Kang-Min

성은영 Seong, Eun-Young

(a u r i

AURI-기본-2015-11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On Institutional Formation of Appellation and Profession of the Korean Architect

지은이: 이강민, 성은영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5년 12월 26일, 발행: 2015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7,000원, ISBN: 979-11-5659-076-7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이강민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성은영 부연구위원
Ⅰ 외부연구진	김하나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수연구원 문기덕 브란덴부르크 코트부스공과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이민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종우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Ⅰ 연구보조원	안수연(연구인턴), 오신혜, 조성문, 황문호

Ⅰ 내부연구심의위원	유광흠 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건축도시정책연구본부장
Ⅰ 외부연구심의위원	김정동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용수 국토교통부 사무관
Ⅰ 연구자문위원 (건축사 간담회 참석자 포함)	권정우 예공감 소장 김수영 숨비건축 소장 김현준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오기수 스페이스 오 대표 이양재 엘리펀츠건축 소장 이은경 이엠에이 소장 석정호 HOGA Architecture 대표 신창훈 윤생동 소장 정현아 디아건축 소장 조성욱 조성욱건축 소장 최원준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

연구요약

이 연구는 건축사 제도의 형성과정을 언어학적·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현재 건축가 개념의 모호함과 호칭 갈등의 기원, 그리고 업무 범위의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기획되었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서양 문명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건축가 호칭의 확립 과정을 분석하였고, 전지구적 근대화·산업화의 역정 속에서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을 겪어 온 건축사 업무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세기 말, 일본에서 ‘아키텍처(Architecture)’는 대상을 명시한 ‘조가(造家: 집을 짓다)’와 행위를 강조한 ‘건축(建築: 세우고 쌓다)’ 두 계열로 번역되고 있었는데, 두 한자어는 모두 아키텍처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새로 만든 용어였다. 아키텍처 개념의 모호함과 익숙한 한자어의 결합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고, 이로 인한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토 추타(伊東忠太) 등에 의해 주장된 ‘건축가’ 호칭에는 ‘아키텍트(Architect)’를 단순히 집을 짓는 자로부터 분리해서 ‘화가’, ‘조각가’와 동등한 ‘미술가’의 지위에 자리매김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들 호칭에는 공통적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가’라는 접미사가 붙었다. 건축가 호칭의 확립은 건축행위의 여러 담당자들 중 설계자의 우위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시공자·공학자 등 다른 전문가들이 건축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서구의 아키텍트 개념에 상당히 부합하는 인식과 용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건축계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지점이 되었다.

2. 건축물을 짓는 일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직업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전문직으로서 건축사의 등장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건축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처럼,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분화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의 독점과 새로운 계층의 성립을 달성했다. 이들은 학교와 협회의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강조했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인 체계적 이론, 권위, 윤리강령, 자격제도 등을 구현하면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야를 독점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을 갖추어 나가는 전문직화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드러난다. 학교와 협회, 국가와 민간 등 주도하는 집단이 다르고, 예술가와 사업가 또는 예술가와 공학자 등 교육의 목표가 논란이 되었으며,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건축가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으나, 재래 직종이 분화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직업으로 번역·수입되었으며, 초기 건축가들이 강력한 국가 주도의 교육에 의해 기술관료로 양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들은 신분으로서 ‘건축가’, 관료적 직급으로서 ‘건축기사’를 구성했다. 잠시 후 민간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문직의 속성을 강조한 ‘건축사’ 호칭이 비로소 생겨났지만, 그것이 제도화되기까지는 다양한 국가적, 행정적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3.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로 대표되는 건축사 업무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보장을 위한 최종 장치는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제도였다. 모든 나라에서 건축사 자격제도는 적어도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달성되었다. 전문직의 자격제도는 그들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심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로서 설득력을 획득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건축물을 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가 미흡했던 동아시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고 동시에 우월한 업무로서 건축사의 역할과 지위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오랜 관료제의 전통 속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청의 행정적인 필요가 부가되어, 관청을 상대로 한 인허가 대행이라든지 시공현장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점이 특이하다. 1965년 이후 한국에서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격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대체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4. 건축사는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무자격자에 대한 건축사 업무 종사 및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제에서 건축사 제도는 의사·약사와 같은 면허제도가 아니고 변호사·변리사와 같은 자격등록제도이다. 이는 건축사의 독점적 지위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건축사법은 예를 들어 설계행위 자체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초래하는 법적인 효력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지어질 때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설계도서만이 유효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건축사 자격제도의 한계이다.

5. 건축 교육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건축사 전문직의 확립이 늦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시공자, 공학자 등이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사 업무의 독점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동시에 건축사들이 이들에게 고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 일본에서 최초로 ‘건축사법’ 제정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소위 ‘검업금지’ 조항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시공 및 재료업계의 반발로 업무의 문제는 호칭의 문제로 격하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는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업금지 조항이 활성화되었으며, 원래 의도와는 달리, 역으로 건축사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요컨대, 건축사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은 전세계 건축사 전문직의 공통 문제인 경우가 많다. 건축물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국가마다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그 해결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축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례없는 직업이 번역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축가 호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 오랜 관료제 전통과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가 집단의 특수성 등이 독특한 건축사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더해, 식민시기의 수동적·인위적인 단체와 시장의 형성, 국가재건기의 강력한 행정적 필요가 더해져 한국 건축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건축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편 문제와 특수 문제를 구분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제어 : 건축사, 호칭, 업무, 건축사 제도, 전문직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건축가 호칭의 탄생	11
1. 번역어 건축의 성립	11
1) 아키텍처의 번역	11
2) 조가와 건축	14
2. 건축가의 정의 확정	20
1) 번역어 호칭의 접근방식	20
2) 건축가를 규정하는 건축의 정의	21
3) 건축가 호칭의 의도	25
3. 건축가 호칭의 경쟁	27
1) 번역의 순서에 따른 의미의 차이	27
2) 건축기사와 건축기술사	28
3) 건축사 호칭의 갈등	30
제3장 건축 설계 업무의 전문직화 과정	33
1. 건축가 전문직의 속성	33
1) 전문직의 요건과 전문직화 과정의 의미	33

2) 건축가의 전문직화 과정	39
2. 건축업의 분화와 전문교육의 태동	54
1) 근대 건축가 교육의 전개 양상	54
2) 근대 한국의 건축가 교육	66
3. 건축가 단체의 성립과 구성원의 결속	73
1) 서양 건축가 관련단체의 형성	73
2) 동아시아 건축단체의 성립	82
3) 한국 건축 삼단체의 성립	89
4. 초기 한국인 건축가 집단의 성격	102
1) 학부 건축학과와 성립과 졸업생의 진로	103
2) 원로 건축가들의 교육과 사회진출 조사	112
제4장 건축사 자격제도의 성립	123
1. 건축사 자격제도의 성격	124
1) 미국의 건축사 제도	124
2) 영국의 건축사 제도	126
3) 프랑스의 건축사 제도	129
4) 독일의 건축사 제도	131
2. 일본과 한국의 건축사법 제정운동	133
1) 일본 건축사법	133
2) 한국 건축사법	138
3. 건축사의 정의와 자격의 문제	150
1) 예술가와 사업가	150
2) 설계자와 대리자	155
4.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의 문제	164
1) 건축사법의 업무범위	165
2) 대한민국 건축사법의 법제적 해석	170

제5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1
SUMMARY	201

표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5
[표 1-2] 건축가와 건축사의 구분	7
[표 2-1] 공부성 영선국 소장 건축양서목록	17
[표 3-1] 전문직의 다섯 가지 속성 (Greenwood, 1957)	35
[표 3-2] 미국 직종별 전문직화 과정의 정도	39
[표 3-3] 미국에서 건축 전문직의 속성 획득과정	47
[표 3-4] 미국 주별 건축 실무에 대한 규제 채택 시기	48
[표 3-5] 토목기술자 출신의 중국의 대표 건축가	52
[표 3-6] 미국대학에서의 초기 건축학과 설립현황	59
[표 3-7] 근대 독일의 건축 제도교육기관의 변천	60
[표 3-8] 일본 건축교육 수료생의 진로	64
[표 3-9] 식민지 조선의 전문학교 학생구성 (1935년 5월)	67
[표 3-10] 경성고공 건축과 학생 구성 (일부발체)	68
[표 3-11] 경성고등공업학교 개편당시 교과과정	69
[표 3-12] 경성공업학교의 학과 및 학생 구성	70
[표 3-13] 일제말의 관공사립 전문학교 상황 (한국인/일본인)	70
[표 3-14] 기타 공업학교 건축과 학생 구성 (서울지역)	71
[표 3-15] 경성공업학교 졸업생 동정 (1932년 12월)	72
[표 3-16] RIBA의 연혁	74

[표 3-17] 미국 건축가협회 AIA의 연혁	76
[표 3-18] 미국의 건축사 제도 관련 단체 및 조직	77
[표 3-19] 독일 건축가 관련 단체 일람	80
[표 3-20] 조선건축회에 가입한 한국인 건축가의 수와 직업	90
[표 3-21] 조선건축기술협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설립 목적 및 회원 자격	96
[표 3-22] 대한건축사협회 지부별 창립 회원수	98
[표 3-23] 건축단체의 출신학교별 분포	103
[표 3-2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1945-1950) 현황	104
[표 3-25] 서울대와 한양대의 연도별 졸업생 및 정원	104
[표 3-26] 해방 후 1950년대 대학별 건축 관련 학부 및 대학원 인가년도	108
[표 3-27] 1965년 이전 학교별 건축학과 졸업생 수	112
[표 3-28] 학교별 1965년 이전 졸업자의 진로	115
[표 3-29] 출신지역별 원로 건축가 분포	118
[표 3-30] 출신학교별 원로 건축가 분포	119
[표 3-31] 일제강점기 조선인 교육수준 (1944년)	119
[표 3-32] 원로 건축가들이 취득한 주요 기술 자격	122
[표 4-1] NCARB 연혁	124
[표 4-2] NCARB 건축사 등록 절차	125
[표 4-3] 영국의 건축사 제도 변천 연표	127
[표 4-4] RIBA 인증에 따른 영국 교육 시스템	128
[표 4-5] RIBA 건축가 자격의 종류	129
[표 4-6] 건축사법 초안(1962)의 쟁점과 입장, 최종 입안 결과(1963)	141
[표 4-7] 건축사법 시행 이후 자격시험 등 운용에 관한 건축단체의 대응	142
[표 4-8] 건축동인회 건축사법령개정추진위원회 출신학교별 대표명단 분석	146
[표 4-9] 건축사 시험 합격자(1회~6회)	147
[표 4-10] 전형 특례를 제외한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148
[표 4-11] 일본 건축대리사협회의 주요 연혁	156
[표 4-12] 각급 건축사의 업무독점 범위 (1963년 대한민국 건축사법)	164

[표 4-13] 건축가의 업무 (RIBA)	165
[표 4-14] 중국 등록건축사의 업무범위 (중화인민공화국 주택건축사 조례)	166
[표 4-15] 건축사의 가능 업무와 불가능 업무 (일본건축사법 1925년안)	166
[표 4-16] 각국 건축사 제도의 특징 비교	168
[표 4-17] 건축사·변호사·의사 자격제도 비교 1 - 성립과정	180
[표 4-18] 건축사·변호사·의사 자격제도 비교 2 - 자격요건	181

그림차례

[그림 1-1] 건축가와 건축사의 개념상의 불일치	2
[그림 1-2] 연구의 대상 및 접근 방법	9
[그림 2-1] 번역 순서에 따른 건축과 건축가의 의미 차이	28
[그림 3-1] 미국에서 건축의 전문직화 과정	46
[그림 3-2] 일본 건축직능단체의 변천	86
[그림 3-3] 대한건축학회 발기인 명단 (1950년 경)	95
[그림 3-4] 전국 건축관련 학과 설치 대학 수 (1965~1975,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참조) ·	106
[그림 3-5] 초기 건축 고등교육기관 연혁	109
[그림 3-6] 초기 주요대학(서울대, 한양대, 청구(영남)대)의 교수진 이력 분포	110
[그림 3-7] 대학교 건축학과 입학 및 졸업자수 추이	111
[그림 3-8] 전국 건축관련 학과 학생 및 졸업생 수	111
[그림 3-9] 1960년대 이전 개설된 학부 건축학과 졸업생수(1947~1964)	114
[그림 3-10] 1965년 이전 건축학과 졸업자의 사회진출 분야	116
[그림 3-11] 원로 건축가들의 출생년도별 분포	117
[그림 3-12] 지역 비중	118
[그림 3-13] 학력 비중	119
[그림 3-14] 기타 학교 출신자 분포	120
[그림 3-15] 유학 대상지별 비중	120
[그림 3-16] 건축사 자격 취득자 비율	120

[그림 3-17] 취득년도별 건축사 취득 연령 분포	121
[그림 4-1] 초기 건축사 시험 합격자 수 추이(1회~6회)	147
[그림 4-2] 1960년대 건축사 합격률의 변화 추이	149
[그림 4-3] 대서업취체규칙(관보, 제20호, 1910.9.20.)	158
[그림 4-4] 관보 1940년 05월 09일 [昭和 - 3987호] (2면)	160
[그림 4-5] 건축대리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 상황_速水清孝(2006)	16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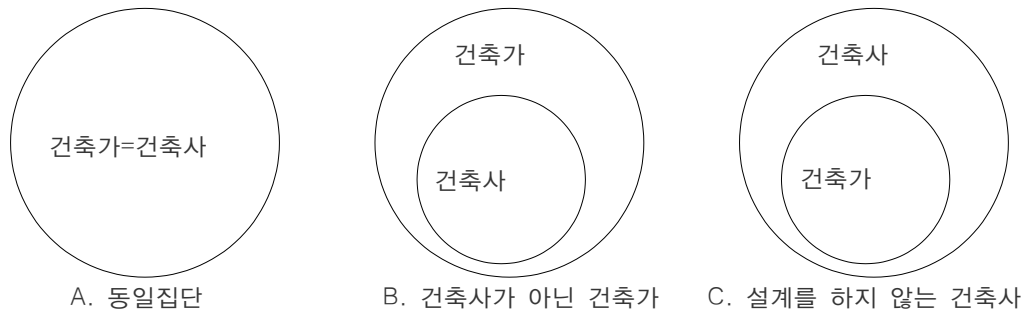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정의 문제

- 100년 이상 되풀이되는 건축가의 직능 문제

우리나라에서 ‘건축사’의 직능이 법에 명시된 것은 1963년 「건축사법」에 의해서이며, 이에 따르면 ‘건축사’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설계,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1940년대 ‘건축대서사’ 제도의 유습과 결합하면서 건축물의 인허가 대행이 주요 업무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건축사의 독점적인 업무영역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1914년에 설립된 ‘일본건축사회’에서는 ‘건축업무보수규칙’을 정해 설계비 및 감독비의 비율을 정하고자 노력했고, 곧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된 바 있으므로, 적어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직능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건축계 내부에서도 명쾌한 경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아닌 건축가’를 비롯해 ‘설계를 주요업무로 삼지 않는 건축사’, ‘단순 설계자(건축 디자이너)’ 등 직능의 왜곡된 형태들이 현재 건축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 건축가와 건축사의 개념상의 불일치

건축사의 직능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상황은 교육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으며, 건축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혼동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WTO가입과 시장개방 등 국제여건을 고려한 건축학과 ‘5년제’ 전환과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건축전문대학원’, 공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건축대학’ 등 건축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학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축을 ‘건설’의 한 분야로 볼 것인가, 또는 ‘문화’의 한 분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관 협회, 건축물 시상제도 등이 분할되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 법제도 용어를 둘러싼 혼동과 갈등

우리나라에서 ‘건축’이 법에 정의된 것은 1962년 「건축법」에 의해서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대상으로서의 건축물, 행위로서의 건축공사라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만, 건축가의 작업으로서 건축의 정의는 부재한다. 그러나 2008년 시행된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서 건축가의 직능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된다. 건축물 이외의 공간환경이 추가되고 신축·개축 등을 시공으로 요약했으며, 기획, 설계, 유지관리를 새로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4년에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또한 건축가의 역할이 조금 더 구체화된 법령인데, 이 법에서 ‘건축서비스’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포괄하여, 건축가는 건축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의 총괄자로서 강력한 권한을 주장해 온 건축가들이 분업

화된 업무영역의 하위담당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건축가의 호칭과 업무를 둘러싼 논쟁에서, 행위와 행위자 사이의 언어적 결합이 느슨한 상태에서 ‘건축’, ‘토목’, ‘건설’, ‘도시’, ‘조경’ 등 연관분야의 경계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건축가’, ‘설계자’, ‘계획가’, ‘디자이너’ 등의 용어가 일반명사로서 다양한 분야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rchitecture’와 ‘Architect’는 IT 분야에, ‘설계’는 전자 분야, 보험 및 금융 분야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 제도사를 연구하는 관점

- 건축 제도의 지역성과 역사성 인식 필요

전근대 시대 한자 문화권에서 인간을 위한 구조물을 만드는 일은 ‘토목영선지역(土木營繕之役)’이라 했는데, ‘토목’은 흙을 쌓고 나무를 엮는[築土構木] 모든 공사를 가리키고, ‘영선’은 구조물을 짓고 수리하는[營造修繕] 모든 업무를 가리켰다. ‘토목영선’의 전통은 근대 이후 ‘토목건축’의 업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치환된 것이다. 토목으로 번역된 ‘civil engineering’과 건축으로 번역된 ‘architecture’는 동아시아 문화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글자의 익숙함과 의미의 낯섦은 용어를 둘러싼 업역 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현대 건축의 발단은 민간의 자발적인 업역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된 정부 업무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한 건축 인력을 관립학교에서 충당하였고, 따라서 건축을 가르치는 대학교육은 서양식의 교양교육이라기 보다는 기술직 공무원 교육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건축’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배태된 한국의 건축계 상황은 반드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사람과 언어에 주목하는 인문학적 방법론의 적용 모색

주로 ‘법령’에 주목하는 기존 제도사 연구의 틀을 확장해서, 제도가 만드는 사람과 집단의 특징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제도의 범위를 적어도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하는 ‘관제(官制)’, 행위자의 정체성과 기능을 형성하는 ‘학제(學制)’, 최종

적인 사회적 계약으로서 ‘법제(法制)’로 확장하고, 이들 제도 속에서 순응하고 갈등하는 인간 집단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문제의 기원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이들이 사용하는 혹은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가장 정확하게 사물의 특징을 규정하는 도구로서 행위자들이 업역을 선점하는 방식이자 지표의 하나로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일본 사전에서는 ‘construction’을 ‘건축술’로 번역했던 사례가 발견된다. 이에 비해 ‘architecture’는 ‘조가학(造家學)’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엘리트 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 그 번역어를 ‘건축’으로 대체하고자 했는데, ‘조가’라는 말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가의 직능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전통 장인들과는 구분되는 ‘아키텍트’의 작업만을 건축이라는 말로써 구별해 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덧붙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접두사를 붙여 ‘미술건축’이라는 말이 한동안 통용되기도 했으며, 모두 작가로서의 ‘건축가’, 작품으로서의 ‘건축’을 염두에 둔 어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 건축단체 역사서술의 특징

현재 건축계의 주요 단체들은 대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자체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모두 해방 이후 단체가 성립한 시점을 기점으로 역사서술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관련 단체들이 해방 정국에서 구성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업역의 정의와 범위가 이미 일제강점기에 정해졌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사(前史)의 서술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大韓建築學會 50年史 : 1945~1995’(大韓建築學會, 1996), ‘한국건축가협회 50년 : 1957~2007’(한국건축가협회, 2008), ‘大韓建築士協會20年史 : 1965~1985’(대한건축사협회, 1985), ‘서울대학교 50년사 : 1946~1996’(서울대학교, 1996)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근대건축사 연구 문헌의 서술 경향

근대건축사는 수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의 개인, 작품으로서의 건축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제도와 사회집단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와 제도를 다룬 일부 연구들이 대체로 하나의 사건을 대상으로 그 의의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현재적

관심과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정책연구의 성과들

건축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 집단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대체로 현상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선진국 법제도 비교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그 기원으로부터 검토해나가는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주요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1940년 전후 건축대서사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연구(1991) -연구자: 김정동 -연구목적: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건축대서사의 발생 경위 고찰	-‘조선과건축’, ‘도시와건축’ 등 일제 강점기 전문잡지의 기사를 통해 제도의 성립과 추진과정을 정리	-1938년 조선대서사취체규칙 고찰 -1936년 건축대서사 시험 첫 시행에 대한 당시 여론 정리 -1943년 건축대서사 조합의 결성의 의의 고찰
2	-과제명: 근대 건축교육 학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1992) -연구자: 류전희 -연구목적: 한국 근대 건축교육의 발생과정을 규명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근대 건축교육 학제를 분석 -일제시기 사료 및 대학교 출간 자료 등을 활용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서양의 근대 건축교육 학제를 분석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중심으로 커리큘럼 등 분석 -해방 후 서울대학교 등 대학교의 건축교육 분석
3	-과제명: 문화의 번역 - 이토오 츠타의 실패(文化の翻訳 - 伊東忠太の失敗, 1992) -연구자: 神谷武夫 -연구목적: ‘건축’ 용어 번역의 문제점 지적	-언어학, 문법학의 방법론을 적용 -전문서적 및 일상생활에서의 용어사용에 관한 사례 분석 -최초 번역 당시의 경위 분석	-서구어 ‘아키텍처’가 ‘건축’으로 번역되면서 언어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됨 -‘아키텍처’는 그 원래 뜻을 살려 ‘원술(原術)’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함
4	-과제명: 시빌 엔지니어링의 글자와 개념의 번역 - 시민의 기술이란 무엇인가(シヴィル・エンジニアリングの語と概念の翻訳 - 「市民の技術」とは何か, 2013) -연구자: 武上真理子 -연구목적: 시빌 엔지니어링이 토목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고찰	-선행연구를 참조한 역사의 재구성 -각종 사전류에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와 양상을 표로 정리 -용어의 의미를 문화사적으로 재해석	-서양문화사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개념의 역사 개관 -일본에서 ‘토목’으로 번역되는 맥락과 과정을 고찰 -일본과 중국의 근대공학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

	주요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5	-과제명: 전전의 고등공업학교의 제도와 건축과의 교육에 관한 연구(戦前の高等工業学校の制度と建築科の教育に関する研究, 2003) -연구자: 新谷肇一 -연구목적: 전전의 고등공업학교의 제도와 그 변천을 정리	-일본 고등공업학교에서 매년 발간했던 ‘學校一覽’을 통해 커리큘럼을 파악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공업교육제도의 특성 정리 -고등공업학교의 변천과정과 사회적 위치 및 역할을 정리 -메이지 시기 건축학 고등교육의 양상을 정리
6	-과제명: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연구(2007) -연구자: 이금도 -연구목적: 근대적 건축사업을 주도한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조직과 인원, 한국인 기수들의 건축활동을 고찰	-조선총독부 직원록, 국가기록원 건축회계, 조선총독부 청사건축 기록 등을 분석	-조선총독부 직속 건축기구와 조직 고찰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일본인 건축관료(행정관료, 기술관료)에 관한 정리 -직원록과 국가기록원 문건 등을 통해 한국인 기수들을 확인

3) 연구의 목적

□ 사회적 직능으로서 ‘건축가’ 정체성의 기원 검토

공공성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건축가의 모습은 ‘작가’와 ‘업자’라는 전통적인 차별 이외에도, 그 기원에 있어서 사명과 역할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한국에서 건축가 직능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건축 관련 용어의 사회적·역사적 맥락 검토

현재 통용되는 건축 관련 용어는 대부분 19세기 말 일본에서 번역된 단어들로서 한자문화권의 역사적 맥락이 투영되어 있으며, 번역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통을 받아들이는 일이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채 업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건축 관련 용어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용어의 정의

이 보고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용어는 건축가와 건축사이다. 건축가는 영어 architect의 번역어로서 그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다룬다. 건축가는 건축 업무의 전문가로서 특히, 설계와 감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동아시아 근대건축사에서 특이한 점은 건축사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축가와 건축사는 의미상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건축사는 건축가의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립한 호칭으로서, 최종적으로 건축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영어로는 registered architect, certified architect, licensed architect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architect의 범위 안에서 작가로서의 지위와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이 함께 논의되어 온 것과는 달리, 일본과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용어로서 별도의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특징이 있다. 건축가와 건축사의 관계는 도식적으로 볼 때 기술자와 기술사의 관계와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개념상의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 건축가와 건축사의 구분

구분	건축가(建築家)	건축사(建築士)
정의	건축 업무의 전문가로서, 특히 설계와 감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	건축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
대응어	Architect	registered architect certified architect licensed architect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건축 용어의 번역과 제도의 구성을 주도한 일본과 식민지 체제하에서 이를 이식한 조선, 해방 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되, 초기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 사례를 함께 검토하고, 전통적 건축가 개념을 공유하지 않았던 중국의 사례를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

한국 건축사 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 일본의 근대건축사를 반영하기 위해 1871년 일본 공부성(工部省) 공학료(工学寮) 설치로부터 한국에서 「건축사법」이 시행되는 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의 사례, 또한 중국 사례의 경우는 주제에 따라 시간적 범위가 달라진다. 한편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사 제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논평하였다.

3) 연구의 방향 및 방법

이 연구는 건축가 전문직을 대상으로 그것을 둘러싼 언어, 사회, 제도를 고찰한다. 따라서 언어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비교사적 접근, 법규 해석이라는 4가지 관점이 적용된다.

언어학적 접근은 한국에서 건축가의 업무와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호칭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건축가’가 서양의 ‘아키텍트’ 개념과 일치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사회학적 접근은 근대 전문직의 발전과정 속에서 건축가의 집단화에 주목한다. 미국 사회학회(ASA) 회장이었던 구드(W. J. Goode)의 말처럼, “산업화중인 사회는 곧 전문직화중인 사회”¹⁾라고 한다면, 건축가 전문직의 형성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접근에 있어서, 전문직의 사회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기초한다. 첫째는 전문직이 사회 내에서 노동 분화의 독특한 산물로서 간주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전문직이 산업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²⁾ 특히 건축시장의 확대와 건축가 집단의 성장 이외의 국가적·행정적 필요에 의한 건축사 제도의 성립이라는 관점은 동아시아 건축사 제도의 특징을 이룬다.

비교사적 접근은 우리의 건축사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

1) “An industrializing society is a professionalizing society.” W.J. Goode(1960). Encroachment, Charlatanry, and the Emerging Profession : Psychology, Sociology and 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v, pp.902-913

2) T.J. Johnson(1972). Professions and Power,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Macmillan Press, p.10-11

단이다. 건축가 전문직에 관한 앞선 논의과정을 거친 서구 열강의 사례들, 그리고 직접적인 선례를 남긴 일본의 사례들과 우리 건축사법 제정운동을 비교함으로써 건축사 자격제도의 여러 문제를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와 지역적이고 특수한 문제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규 해석은 ‘건축사’의 업무가 법률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건축사 업무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업무 수행의 형태를 둘러싼 논의, 건축사 업무의 경계에 대한 법률 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1-2] 연구의 대상 및 접근 방법

□ 연구 추진 방법

먼저, 문헌 사료 중심의 독해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종 관보, 연혁, 협회지, 언론보도 등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건축가 단체의 형성과정과 논쟁을 정리하였다. 또한, 원로 인터뷰 및 회고록 등을 통한 상황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학회지와 협회지에 게재된 회고록을 인용하였고, 건축계 원로 인터뷰를 통해 사건 이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했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 원고의뢰를 통한 협동연구를 추진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법규 검토에 있어 전문가를 섭외하여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현실적인 경험과 태도를 비교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건축가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오후3시~6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5-1호
- 참석자(가나다순)
 1. 권정우 소장 / 예공감
 2. 김수영 소장 / 숨비건축
 3. 김현준 교수 / 강원대, 유토포
 4. 신창훈 소장 / 윤생동
 5. 이양재 소장 / 엘리펀츠건축
 6. 이은경 소장 / 이엠에이
 7. 정현아 소장 / 디아건축
 8. 조성욱 소장 / 조성욱건축
 - (연구진) 9. 이강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연구진) 10. 성은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주요내용
 1. 건축가의 번역 Translation of Architect
 - 건축가는 아키텍트인가?
 2. 전문직화 과정 Professionalization Process
 - 한국 건축가는 전문직인가?
 3. 건축사의 직능 Function of Architect
 - 건축사의 배타적 직능은 무엇인가?

제2장 건축가 호칭의 탄생

1. 번역어 건축의 성립
2. 건축가의 정의 확정
3. 건축가 호칭의 경쟁

1. 번역어 건축의 성립

1) 아키텍처의 번역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건축’이 사용되는 지역은 전근대시기 한문문명권의 범위와 일치한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은 발음은 다르지만 모두 한자 번역어 건축(建築)이 법제·학제·업역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은 한문문명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니다. 영조(營造), 영선(營繕) 등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자들이 건축물이나 시설을 세우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지만, 건축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전문성을 지닌 지식인에 의한 지적 작업으로서, 나아가 어떤 건축문화의 공통적 작업방식과 외형적 특성을 지시하는 architecture라는 개념은 일찍이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근대기에 완전히 새롭게 수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축은 익숙한 한자로 구성된 단어이지만 새로 조합된 신조어이며,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외부세계의 난해한 개념이었다.

건축이 동아시아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되는 시점은 1897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해 일본의 조가학회가 건축학회로 명칭을 바꾼 것을 architecture에 대한 번역어로서 건축이 확정되는 사건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건축학회에서는 1997년 8월호 『건축잡지』에 ‘건축개명 100년’ 특집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크게 기렸다. 이 특집에서는

1897년을 전후로 한 일본사회 및 경제의 특징, 조가에서 건축으로 학회명을 바꾼 경위, 건축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전근대 건축조직의 전환, 당시 미술과 공업과 건축의 관계 등 메이지시기 건축계 전반의 상황을 재조명하면서 한자 번역어 건축의 확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집> 건축개명 100년 (建築改名/100年) - 『건축잡지』 1997년 8월호 목차

▷ 일본경제의 획기로서의 1897년

·高村直助, 日本經濟の画期としての1897年, pp.8-11

▷ ‘조가’에서 ‘건축’으로: 학회명명·개명의 전말로부터

·金行信輔·倉方俊輔·清水重敦·山崎幹泰·中谷礼仁, 「造家」から「建築」へ: 学会命名・改名の顛末から, pp.13-21

▷ ‘보존해야하는 것’으로서의 건축’의 등장

·西村幸夫, 「保存すべきものとしての建築」の登場, pp.22-23

▷ 건축네트워크의 융성: 건축의 근대를 지탱한 기술자와 직인

·初田亨, 建築ネットワークの隆盛: 建築の近代を支えた技術者,職人, pp.24-25

▷ ‘조가’가 소멸하는 때

·堀勇良.<造家>の消える時, pp.26-27

▷ 막부말기 작사 상황이 현대에 시사하는 점

·谷直樹. 幕末期における作事周辺が現代に投げかけるもの, pp.28-29

▷ 미술·공업·건축: ‘건축학회’ 명명의 언어사적 배경

·北澤憲昭, 美術・工業・建築: 「建築学会」命名の語史的背景, pp.30-31

▷ 일본건축의 단어를 다시 읽다

·源愛日児, 日本建築字彙を読み直す, 32-33

▷ 눈의 비늘이 떨어졌다 (특집을 읽고서)

·藤森照信, 目のウロコが落ちた(特集を読んで), p.66

▷ 미술과 건축의 학과 술 (특집을 읽고서)

·佐藤道信, 美術と建築の<学>と<術>(特集を読んで), p.66

이처럼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건축’을 확립시킨 것은 근대 일본의 학계이다. 일본은 막부시대부터의 서양어 번역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architecture의 번역도 몇 가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대 일본에서 architecture의 번역 용례를 분석한 정영숙(2013)의 연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³⁾

3) 鄭英淑(2013). 「Architecture の訳語をめぐって」, 『日本近代學研究』 n.42, pp.7-26

- (1) 막부 말에 서양건축이 도입되면서 architectur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2) ‘제반 예술을 통괄하는 원리,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 architecture는 1595년 『이태리-포르투갈-일본어 대역사전』(羅葡日対訳辞書)에 ‘집을 짓는 학문(すみかねのがくもん)’으로 번역되었고, 에도 중기 경에 ‘집을 세우는 기술(家ヲ建テル術)’, ‘집을 만드는 기술(家ヲ造ル術)’ 등으로 이어졌으며, 한편에서 ‘건축(築建)’이라는 조어도 출현했다.
- (3) 에도 말기에는 『영화대역수진사서(英和対訳袖珍辞書)』(1862)에 ‘건축학(建築学)’이, 『불어명요(仏語明要)』(1864)에 ‘조가술(造家術)’이 새로 등장했고, 근세로부터 사용되어 오던 도편수라는 의미의 ‘토료(棟梁)’도 그대로 사용했다.
- (4)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현상은 지속됐으며, 메이지 20년대 이후에는 ‘건축’과 ‘조가’ 두 단어로 압축되었다. ‘영조(학)(營造(学))’ 등 기존의 건설행위를 표시하는 단어도 있었지만 용례가 적고, ‘조가술’은 거의 공학관계에만 한정되었다.
- (5) 메이지 30년대에 도쿄대학의 ‘조가학과’가 ‘건축학과’로 개칭되면서, architecture의 번역어는 ‘건축’으로 일원화되었다.

정영숙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난학(蘭學) 시대에서 영학(英學)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건축이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논문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조가의 기원은 에도시대의 번역전통에 따르는 것이고, 건축은 영문 서적의 번역과정에서 새로 채택된 단어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두 가지의 번역 계통은 모두 architecture의 서구적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즉, 건축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의 분리, 계획과 공사총괄을 전담하는 새로운 직업군의 개념 등을 구분해내지 못한 채 집을 짓는 기술로 모든 관련분야를 포괄했다.

정영숙은 여타의 경쟁어, 예를 들어 조영술(造營術), 건조법(建造法) 등이 도태되고 번역어가 조가와 건축, 두 단어로 압축되는 시기를 메이지 20년대(1880년대 후반)로 보았다. 이는 일본의 행정기구와 학제에서 두 단어가 공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의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문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2) 조가와 건축

일본의 건축사학자 이케가미 시게야스(池上重康)는 메이지 시기에 수입된 건축 양서(洋書)의 목록을 조사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가 수집한 각 기관의 양서목록 중에 일부는 일본어로 번역한 제목이 붙어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으로 출간된 서적을 편리하게 찾아보기 위해 붙인 것이다. 당시 기록을 통해 초기 ‘Architecture’류의 번역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① 조가와 건축의 사용례

□ 공학교 수업계획(1874)

먼저 공학교육 관련문서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Architecture’의 번역어는 ‘조가(造家)’이고, 1874년(明治 7)의 공학료 공학교(工学寮 工学校)의 일종의 수업 운영계획에 등장한다. 당시 모든 교재와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어 번역은 경우에 따라 일부가 확인되는데, 이 문서는 최초의 건축교수 조사이어 콘도르(Josiah Conder)가 부임하기 3년 전의 문서로서 매우 초기에 속하는 자료이다.

XXVIII ARCHITECTURE

This course will comprise : —

A description and review of the different styles of architecture — materials used in construction — manufacture of bricks, tiles, drainpipes &c. — composition of mortars, cements and concrete — different methods of putting in foundations — cost of excavations in different soils — construction of walls of brick, rubble &c. — construction of timber and iron roofs, floors &c. — arches of brick, timber, stone — calculation of the strength of girders — practical examples in modern architecture — details of specifications and contracts.

* Imperial College of Engineering, Tokei. Calendar. Session 1873-74, ‘Syllabus of Subjects’

위 항목의 일본어 번역은 『공학료학과병제규칙:메이지7년2월개정(工学寮学科並諸規則明治七年二月改正)』의 「학과조목략(学科条目略)」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⁴⁾

— 造家, 造家諸式, 造家二用ウル物品, 瓦磚, 下水管ノ製造, 垂土和土, 人造石製造, 基礎ヲ布置スル

4) 大内兵衛・土屋喬雄 編(1964). 『明治前期財政經濟史料集成』, 第17卷ノ1, p.360

ノ諸式、鉄或ハ材木ヲ以堂屋ヲ築クノ式、磚瓦木材石ノ弧門

위의 두 글을 비교해보면, ‘조가’는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번역은 다소 애매하고 요약되어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었다. ‘Architecture’의 다양한 양식에 관한 기술과 평가’는 간단히 ‘조가제식’으로 요약되었으며, ‘Construction’에서 사용되는 재료 들’은 ‘조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번역되었다. 즉, ‘조가’라는 단어를 ‘Architecture’와 ‘Construction’ 모두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는 당시 공학교육 시스템에서 건축과 건설 등의 미묘한 차이가 구별되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공부미술학교 장서목록(1876)

1876년 6월에 개교한 같은 공부 소속 미술학교의 장서 중 건축과 관련된 서적은 모두 41책인데, 프랑스어가 23권, 이탈리아어가 15권, 영어가 3권으로 서적의 선택은 당시 부임한 이탈리아인 화가 안토니오 폰타네지(Antonio Fontanesi, 1818-1882)의 취향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이 목록에는 저자와 제목이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은 책이 많으며, 원어발음을 카타카나로 표기한 사례도 많다. 여기에 ‘조가’는 총4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3번이 프랑스어 ‘Charpenterie’(목공)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탈리아어 ‘Architettura’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은 단 1회이다.

□ 홋카이도 대학 북방자료실 외교문서(1878)

홋카이도 대학 부속도서관 북방자료실에는 1878년(明治11) 개척사 소서기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출장을 가서 당시 블라디보스토크항 영선국장에게 받아 온 8점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데, 러시아어 원제 곁에 일본어 번역이 붙어 있다⁶⁾. 이중 ‘Smeta na postroiku vnov’ zdaniya dlya kukhnii kladovai pri kazarme rabochargo kadra Vladivostokago porta’라는 제목 문서의 번역은 ‘浦潮港兵營ノ房厨及ヒ藏庫建築ノ仕方并二經費書’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건축’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원제의 단어는 ‘zdaniya’이다. 러시아어 ‘здáние’[즈다니예]는 ‘집’, ‘건물’을 뜻하는 단어로서, ‘Architecture’와도 다르고 ‘Construction’이라는 행위도 아니며, 단위 건물을 지칭하는 ‘building’의 의미에 가깝다.

5) 池上重康(2008). 「工部美術学校旧蔵の現存建築関連洋書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2008-09, pp.197-198

6) 池上重康·角幸博·皆川雄一(2004). 「開拓使函館支庁旧蔵ならびに函館図書館所蔵建築史料について : 開拓使旧蔵建築関連洋書研究 その1」,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 2004-08, pp.417-418

이처럼 조가와 건축은 architecture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계단어들을 모두 통합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두 단어 사이의 미묘한 차이도 발견하기 어렵다. 명사와 동사로 동시에 사용되고, 다의성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한자어의 특징상 일상생활에서 학술영역까지 두루 통하는 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② 건축으로의 용어 통합

이케가미의 서지목록들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조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아래의 사례들은 외국어의 번역에서 ‘조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건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가학’을 공식용어로 정한 학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 공부성 영선국 도서목록(1878)

이케가미(池上)가 정리한 1878년 11월의 공부성 영선국 소장 도서목록 11권의 번역 제목에는 ‘조가’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⁷⁾. ‘Building’, ‘Construction’, ‘Architecture’ 등이 포함되는 영문제목을 번역할 때, 별다른 의미 구별 없이 ‘건축’, ‘조영’, ‘건조’, ‘건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점은 ‘건축’으로 번역한 것이 6건으로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태정관 도서목록(1884)

메이지 시기의 건축서적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는 태정관(太政官) 소장자료이다. 현재 일본 국립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양서는 약 45,000권으로 대부분이 메이지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1884년 각성청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일체를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태정관문고에서 기원한다⁸⁾. 메이지 정부의 양서관리계획은 1872년부터 시작되지만 태정관이 중앙관청의 제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양서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의 일이다. 1884년에 작성된 태정관 목록에서 이케가미(池上)가 추출한 건축관련도서는 79권에 달하는데, 이중 어디서도 ‘조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건축’은 17회가 등장해서 건축분야를 아우르는 대표 단어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다.

7) 池上重康(2007). 「工部大学校創設期の所蔵建築洋書について : 明治初期日本政府購入建築関連洋書に関する研究 その2」, 『日本建築学会論文集』 n.618, 2007-08, pp.135-141

8) 池上重康(2007). 「太政官文庫蒐集建築関連洋書について : 明治初期日本政府購入建築関連洋書に関する研究 その1」, 『日本建築学会論文集』 n.615, 2007-05, pp.207-214

[표 2-1] 공부성 영선국 소장 건축양서목록

翻訳著者名/Author	翻訳書名/Title	Publisher	Place	ed.	Year
イ, 에이킨	別荘及其他田舎ノ建築造営書				千八百三十五年倫敦版
Aikin, Edmund	Designs for villas and other rural buildings.	John Weale	London		1835
ジー, 에치, 안트리쥬	各種農業用ノ家屋建築書				千八百五十二年倫敦版
Andrews, George Henry	Rudimentally treatise on agricultural engineering. Vol. I Buildings.	John Weale	London		1852
イ, 엘, 브레키모어	英國及外國様田舎田園家屋建築書				千八百七十五年倫敦版
Blackburne, Edward Lushington	Suburban and rural architecture, English and foreign.	James Hagger	London		1867
イ, 다브리쥬, 호기쥬	小舎及別荘本國ノ建築法				千八百七十年倫敦版
Bogue, James W	Domestic Architecture, being a series of designs for cottages and villas, with descriptions of the plans, estimates of costs, and general remarks.	Fullarton	Edinburgh		1870
イ, 히, 덴톤	英國農家屋地ノ書				千八百六十五年倫敦版
Denton, John Bailey	The farm homesteads of England.	Chapman & Hall	London	2	1865
イ, 에르트	農業用建物整頓及造営書				千八百五十一年 版
Ewart, John	A treatise on the arrangement and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buildings.	Longman, Brown, Green, and Longman	London & Edinburgh		1851
다브리쥬, 이그레이	各種農家納屋學校等建築法				千八百五十三年엔진볼크刊行
N/A			Edinburgh		1853
イ, 시어, 로우덴	舍屋別荘ノ諸術學書				千八百三十九年倫敦版
Loudon, John Claudius.	An encyclopaedia of cottage, farm and villa architecture and furniture.	Longman, Rees, Orme, Brown, Green, and Longman	London		1839
데이, 이, 나이트레이	厩建造書				千八百六十二年倫敦版
Knightley, Thomas Edward	Stable architecture.	Bailey Bros.	London		1862
イ, 스탈, 포알스	農家製作所、職工舍農業場建築書				千八百五十三年倫敦版
Starforth, John	The Architecture of the Farm. A series of designs for farm-houses and farmsteadings, factors' houses and labourers' cottages.	William Blackwood	Edinburgh & London		1853
에치, 스테펜스及알, 에스, 폴런	農家建設及整頓法				千八百七十一年엔진볼크刊行
Stephens, Henry & Burn, Robert Scott	The book of farm-buildings, their arrangement and construction.		Edinburgh & London		1871

* 1878년 11월, 출처 : 池上(2007)

□ 조가학회 규칙(1886)

공부(工部)의 산하에 설치된 대학에서는 ‘Architecture’라는 낯선 학문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를 ‘조가학(造家學)’로 번역했지만, ‘건축’ 등의 용어도 병행하고 있었다. 이토 추타가 검색한 조가학회 규칙에는 제1조의 ‘조가학회’, 제2조의 ‘조가학에 관한 사업’, 제5조의 ‘정원은 건축학을’, 제10조의 ‘건축전문의 학교에 있어서’, 제28조의 ‘건축 잡지라 이름하고’ 등 ‘조가학’과 ‘건축학’, ‘건축’이 모두 ‘Architecture’로 번역되고 있었다.⁹⁾ 흥미로운 점은 제1조와 제2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용 문구에서 ‘건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가학회의 회지 이름은 처음부터 ‘건축잡지’로 시작했다.

9) 伊東忠太(1894). 「「アーキテクチュラル」の本義を論じて其譯字を撰定し我が造家學會の改名を望む」, 『建築雜誌』 n.8 (90), pp.196-197

메이지 시기 architecture의 번역상황을 살펴보면, 에도시대에 먼저 집을 짓는 기술과 같이 쉽고 직관적인 의역이 생겨났고 조, 가, 건, 축 등의 한자어가 서로 조합되기 시작했으며, 메이지시대에 조가와 건축이 대표 번역어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건축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예상되는데, 앞서 사전류를 주로 다룬 정영숙의 연구에서 조가와 건축 두 단어의 대표성이 확정되는 시기를 1880년대 후반으로 본 것에 비해, 이케가미의 서지목록을 검토한 결과 그보다 앞서 이미 조가보다 건축이 우세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축은 여타 경쟁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대응하던 다수의 외국어들을 뭉뚱그려 한데 모았다. 당시 공문서, 혹은 관제에서 건축은 전통적인 용어인 영선(營繕)과 경쟁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선은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비중이 높아졌고, 신축행위를 가리키는 말은 건축으로 모아져갔다.

③ 건축 번역의 시대적 특징

□ 근대 서양어 번역의 특징

번역어 건축의 성립은 당시 일본에서의 번역 취향과 부합한다. 먼저 두 글자로 이루어진 신조어는 서구 번역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회(社會), 문화(文化), 개인(個人) 등 새로운 신조어는 서양문화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의미가 부풀려지는 소위 ‘카세트 효과’를 동반하는 단어였다¹⁰⁾. 카세트 효과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좋고 귀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카세트, 즉 작은 보석상자의 효과를 빗댄 개념이다. 카세트 효과를 주는 단어들은 익숙한 한자어로 구성되지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낯선 형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건축관련 번역어들이 두 글자의 형태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의미가 연상되는 조가보다 상대적으로 막연한 건축이 선호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카세트 효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 한자 조어법의 적용

다음으로 조가보다 건축이 선호된 이유는 또 다른 한문문명권의 조어법의 특징과 맞닿아있다. 대비대거나 유사한 두 글자를 합쳐 전체를 표현하는 한문의 일반적인 조어법이

10) 야나부 아키라 저, 김옥희 역(2001). 『번역어의 성립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 마음산책, p.49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은 건물을 짓는 대표적인 행위 들, 즉 건과 축을 나란히 배열해서 전체를 포괄하는데 적절해 보인다. 참고로 앞서 인용한 사전류에서는 벽을 바르는 기술의 의미로 번역어 축건(築建)이 먼저 등장하기도 했다¹¹⁾. 건축은 축건과 같은 한자어로 이루어졌지만 순서를 바꿈으로써 다른 의미를 구성해낼 수 있었다.

□ 건축과 토목의 결합

유사한 방식으로 civil engineering이 토목(土木)으로 번역되는 특이하고 흥미로운 과정이 최근에 밝혀진바 있다¹²⁾. civil engineering은 글자 그대로 ‘시민의 기술’ 또는 ‘민간의 기술’로 번역할 수 있지만 전통적이고 익숙한 조어법이 작용하고 이에 카세트 효과를 더할 수 있는 토목이라는 단어로 확정되었다.

서양의 본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자들로 구성된 것도 건축과 유사하다. 부연하자면, 토목과 건축이 번역어로 확정되면서 대단히 난해한 서양의 개념어 두 개가 매우 익숙한 동아시아 전통으로 한데 묶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는 재료로, 다른 하나는 행위로 대표되면서, 종래의 축토구목(築土構木)이라는 숙어를 각각 나누어 가진 것이다. 현재에도 두드러지는 동아시아에서의 토목과 건축의 개념적 친밀성은 이 시점부터 숙명적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11) 鄭英淑(2013). 「Architecture の訳語をめぐって」, 『日本近代學研究』 n.42, pp.7-26

12) 武上真理子(2013). 「シヴィル・エンジニアリングの語と概念の翻訳 — 「市民の技術」とは何か」, 『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翻訳概念の展開』,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附属現代中国研究センター, pp.217-251

2. 건축가의 정의 확정

1) 건축가 호칭의 접근방식

이 글에서 우리는 ‘건축가’를 작가인 동시에 전문직(profession)의 하나로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즉, “전문직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고, 직업을 장악하는 수단이다.”¹³⁾ 이 문장에서 ‘프로페션(profession)’을 ‘전문직’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폐가 느껴질 수 있지만, 프로페션은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축가 전문직은 인류가 집을 짓기 시작한 이래 항상 존재해왔던 집짓기를 대리하거나 그것을 계획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건축가’가 지칭하는 ‘Architect’ 또한 고대 그리스어에 기반을 둔 오래된 용어이지만 현대와 같이 엘리트적이고 전문적 정체성을 배경에 둔 의미는 르네상스 시대의 발명품으로 볼 수 있다. 르네상스의 건축가는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학문과 이론을 가짐으로써 특징지어지는 학자-예술가로서 다시 태어났다.¹⁴⁾ 건축가가 그린 도면은 16세기에 급증하였고, 다음 세기에는 특성화된 건축 사무소가 등장했다. 주로 19세기 동안 강화된 건축가 전문직의 요소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인 17세기에 ‘건축가의 소명(architect’s calling)’이라는 정의로 이미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다.¹⁵⁾ 다시 말해, 건축가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점차 정체성을 찾아가던 한 직군이 19세기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강력한 권위와 실체를 형성한 전문직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가리키는 호칭은 ‘아키텍트’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architecte’라는 단어는 1549년 『로베르 에티엔느의 프랑스어-라틴어 사전(Dictionnaire français-latin de Robert Estienne)』에 등장했다¹⁶⁾.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들이 활약했던 것이 아니고,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édicis)와 같은

13) “A profession is not an occupation, but a means of controlling an occupation.” T.J. Johnson (1972). *Professions and Power*, London: Mcmillan Press, 1972, p.45

14) C. Wilkinson(1977). *The New Professionalism in the Renaissance*, in S. Kostof ed., *The Architect: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124-160

15) M.S. Larson(1980).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aper to the Davis Center Seminar, Feb. 1980, p.6

16) F. Champy, C. Heitz, R. Martin, R. Moulin, and D. Rabreau(2013). *ARCHITECTURE Thèmes généraux - L'architecte*, in *Encyclopædia Universalis France*, version électroniqu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architecture-themes-generaux-l-architecte/> last accessed:2015-06-25

몇몇 군주들이 건축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피에르 레스코(Pierre Lescot)와 같이 혈통 있는 귀족이 빼어난 건축가로 활동을 했던 때이다. 그리고 당시 발생한 ‘측량장(maître-niveleur)’, ‘수학자 겸 기하학자’, ‘공학장(maître-ingénieur)’ 등의 용어들은 건축가가 건설 작업의 기술적, 재정적, 경제적, 재료적 제약들을 ‘제어(maîtriser)’해야 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단어였다. 이와 같은 제어자, 대장으로서의 건축가는 ‘Maître d’ouvrage’, ‘maître d’oeuvre’ 등으로 불렸다. 당시에 필리베르 들로르므(Philibert de l’Orme)는 건축가를 자칭하는 석공과 목수들을 경계했는데, 그의 1567년 『건축 1권(Premier Tome de l’architecture)』은 프랑스에서 건축가를 정의하는데 초석이 되었다¹⁷⁾.

위와 같이 건축가를 정의하는 일과 건축가의 호칭을 정하는 일은 모두 건축가 직능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건축가 호칭의 성립과정은 다른 의미에서 건축가의 정의와 업무를 규정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 건축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건축가뿐만 아니라 건축의 개념 또한 생소한 것으로서 건축과 건축가가 동시에 번역되고 의미화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건축가를 규정하는 건축의 정의

① 이토 츠타(伊東忠太)의 건축 정의

한자 번역어 ‘건축(建築)’의 성립경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대체로 이토 츠타의 대표 저술 중 하나인 「아키텍처의 원래 뜻을 논해 우리 조가학회의 개명을 바란다」¹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기사는 서양에서 통용되는 architecture의 개념을 설명하고, 당시 일본 학계에서 사용되던 ‘조가(造家)’라는 학과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올바른 번역어인 건축(建築)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컨대 조가와 건축이라는 두 경쟁관계의 번역어 중 더욱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논리적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조가와 건축의 경쟁관계는 후대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해석을 집중했던 지점이다.

17) 다음의 웹페이지의 영문번역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delormearchitecture/> last accessed:2015-10-06

18) 伊東忠太(1894). 「「アーキテクチュラル」の本義を論して其譯字を撰定し我が造家學會の改名を望む」, 『建築雜誌』 n.8 (90), pp.196-197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조가와 건축이라는 한자어 자체의 의미문제는 종종 잊히는 경향이 보인다. 이토 츠타가 의도했던 바, 조가를 폐지하고 건축을 선택한 것이 건축의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어 간의 경쟁관계는 부지불식간에 예술과 공학의 경쟁 관계로 치환되어 버리곤 한다.

이에 따른 전통적인 해석은 대체로 이토 츠타의 논지를 긍정하는데, 그렇다면 조가는 공학적인 단어이고 건축은 예술적인 단어로 간주된다. 그러나 두 한자어의 차이는 집(家)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의 유무밖에 없다. 건축은 결국 조가의 조, 즉 만든다(造)는 동사를 세우고 쌓는다(建築)로 풀어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상을 지우는 추상화의 과정을 예술성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본 것이다.

나카타니 노리히토(中谷礼仁)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조가’와 ‘건축’의 각각의 의미에 있어서 전자가 공학적이고 후자가 보다 예술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전후의 건축가 지위향상운동 중에 만들어진 편견이며, 실제 당시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였다는 것이다¹⁹⁾. ‘조가’가 오히려 창조적인 의미가 다분하며, ‘건축’은 철도의 부설 등에도 이용되는 구축 일반에 해당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나카타니는 여기서 이토 츠타의 제3의 의도를 추정해낸다. 이토가 공학일반에 예술개념을 전파하고자 ‘건축’의 해석을 달리했다는 주장이다.

□ 미술로서의 건축 (1893)

기술로 도입된 건축이 학문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예술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다. 일본 사학자들은 이를 초기 영국인 고용건축가 ‘조사이어 콘도’의 업적으로 치하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술로서의 건축을 공식화한 사람은 다음 세대의 이토 츠타이다. 이토 츠타는 ‘건축술과 미술의 관계’와 같은 논문을 통해 미술(Fine Art)과 공예(Industrial Art)을 대비시켰고, 건축이 회화, 조각과 동등하게 미술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저는 건축술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용적 건축, 둘째는 장식적 건축입니다. 실용적 건축이라는 것은 실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밖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 예를 들면 창고나 오두막(小屋)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장식적 건축은 장식을 주로 삼고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예를 들면 모뉴먼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19) 中谷礼仁(2006). 『近世建築論集』 acetate, p.335

으로 이 두 종류를 분류할 것인가 하면, 분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분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극단과 극단을 보자면 그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둘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용을 생각하면 장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찬가지로 장식을 생각한다면 실용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이카텍처는 오히려 이 장식적 건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아키텍처의 본의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키텍처는 장식적 예술이라고 보았고, 실용적 예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²⁰⁾

위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 기존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조가학’을 버리고 ‘건축술’을 택한 것이었다. 먼저 ‘Architecture’는 단순히 집을 짓는 일이 아니고 미를 추구하는 것이며, 가옥이 아닌 것도 포함하는 작업이라는 이유에서 ‘조가’는 폐기되었다. 다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인지 아니면 현실의 운용을 중시하는 술인지의 문제에서 당시 통용되던 ‘조가학’ 대신 ‘건축술’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것은 당시 자신이 속했던 제국대학의 전통에 반해 동경미술학교 등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었다. 건축을 미술의 하나로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 건축개명론 (1894)

이토 츠타가 사용한 미술, 공예, 장식, 실용 등은 현대어의 용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한 건축의 위치는 분명하다. 아키텍처는 실용이 아니라 장식이며, 이는 곧 미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토츠타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²¹⁾, 먼저 architecture는 단순히 집을 짓는 일이 아니고 미를 추구하는 것이며, 가옥이 아닌 것도 포함하는 작업이라는 이유에서 번역어 조가는 폐기되었다. 이토 츠타의 관점에서 가옥은 장식이 아니라 실용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인지 아니면 현실의 운용을 중시하는 술인지의 문제에서 조가학 대신 건축술에 손을 들어 주었다. 건축을 미술과 동등하게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논리에서 조가학회를 건축협회로 개명할 것을 제안했다. 즉, 공학 체계로서의 ‘조가(造家)-조가학(造家學)-조가학회(造家學會)’를 미술 체계로서의 ‘건축(建築)-건축술(建築術)-건축협회(建築協會)’로 전환하기를 주장한 것이다.

20) 伊東忠太·市東謙吉(1893). 「建築術と美術との關係(明治廿六年三月八日通常會演說)」, 『建築雜誌』 n.7 (75), pp.80-87

21) 伊東忠太(1894). 「「アーキテクチュラル」の本義を論じて其譯字を撰定し我が造家學會の改名を望む」, 『建築雜誌』 n.8 (90), pp.196-197

② 근대 일본에서 번역어 건축 확정 의의

□ 건축의 순수한 의미를 제안

이와 같은 이토 츠타의 주장은 그전까지의 번역어 모색과정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토 츠타가 얻어내려고 한 것은 조가의 폐기와 건축의 선정이라는 단순한 번역어 확정이 아니다. 그가 실제로 공격한 것은 이미 힘을 잃은 조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널리 쓰이고 있던 건축이라는 말의 다의성이었다. 논고의 의의는 건축이라는 단어에 혼재되어 대응했던 construction이나 building등의 의미를 제거하고 오직 architecture만을 남긴 것에 있다. 논고의 제목이 ‘아키텍처의 원래 뜻을 논해’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토 츠타의 주장에 따라 architecture의 번역어는 건축으로 확정되었다. 실제로는 이미 사어에 가까웠던 ‘조가’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반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건축’을 확인해 준 것이었지만, 당시로서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로 번역어 건축을 확립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축은 곧바로 일본의 국경을 넘어 한국과 중국 등 한문 사용 국가로 확산되었다.

□ 한국에서의 건축 용어 수입

한국에서 ‘건축’ 용어 사용이 확인되는 것은 이토 츠타의 주장과 거의 동시대이다. 당시 일본 관료제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개화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우리 건축체제는 1894년 6월 갑오경장 때 설치된 최초의 근대적 조직인 군국기무처(軍國幾務處) 공무아문(工務衙門) 소속 건축국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관부의 명칭에 건축이 사용되었다²²⁾. 또 통감부는 탁지부(度支部) 소관으로 1906년 9월 건축소를 설립하고 주로 대한제국에 속한 각 관아 청사 및 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했다. 건축소는 1910년 8월 한일합방 때까지 존치되다가 조선총독부 기관으로 넘어갔다. 합병 후에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탁지부 건축소가 담당하던 건축관련 업무는 총독부 내무부로 이관되어 회계국 영선과와 철도국 건설과 체신국 공무과가 나누어 맡았다.

22) 김정동(2014).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사 시대 개관」,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학회, p.607.

3) 건축가 호칭의 의도

이토 추타의 ‘건축 개명론’에는 architecture뿐만 아니라 Architect가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다. ‘조가’가 포함하지 못하는 주요 사례로서 분묘, 기념비, 개선문을 든 후, 그것들이 공통점을 가지는 이유로서 모두 ‘Architect’의 작업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이토 추타의 글에서는 아직 ‘건축가’라는 번역어가 등장하지 않고 ‘아키텍트’를 소리나는대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 글의 숨은 목적이 ‘Architecture’의 번역어를 찾는 일보다 ‘Architect’의 번역어를 모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조가가’, ‘조가학가’ 등 이상한 호칭으로 불릴 위기에서 탈출시키고자 한 시도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술-건축가는 미술-미술가와 대응하는 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아키텍츄르」의 원래 의미는 결코 가옥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이 실체를 Building에 빌어 그 형식을 선이나 외관으로 드러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가학’, 즉 집을 짓는 학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분묘, 기념비, 개선문과 같은 것은 결코 가옥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키텍토」가 아니고서야 누구이겠는가. 그 담당자람은 「아키텍토」가 전력을 다해 창작하는 것이다. 가옥과 동일시할 것이 아니다. ‘家’라는 말은 결코 각종 구조물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아키텍츄아」가 구조 이외의 것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조가’라는 번역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²³⁾

일본에서 전통 건축직은 막부작사방(幕府作事方), 소보청방(小普請方), 정방동량(町方棟梁), 청부업(請負業)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데, 서양에서 온 외국인건축가 및 기술자가 당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설계를 맡았고, 서양식 건축교육이 보급되면서 일본인 건축가가 활약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시대 메이지 10년대 말과 20년대 초를 서양식 건축가의 탄생기로 볼 수 있으며, 메이지 시기 기존 건축분야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분류된다²⁴⁾. 1) 대장성(大蔵省), 공부성(工部省) 등 정부기관의 영선관료기구에서의 일하는 사람 2) 청부업자 또는 동네 목수로 막부와 관련된 건축공사를 하던 이들이 메이지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건설업자로 영업하기 시작한 사람(오늘날의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이

23) 伊東忠太(1894). 「「アーキテクチュラル」の本義を論じて其譯字を撰定し我が造家學會の改名を望む」, 『建築雑誌』 n.8 (90), pp.196-197

24)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学発達史』, 丸善, p.2073

시기에 설립) 3) 지방의 대목들 중 눈으로 보고 배운 서양건축을 본인의 기술과 결합시켜 지방 주요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양풍 건축의 보급자) 4) 전통목수로서 계속해서 전통 목조건축을 지은 사람(당시 건축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서민주택이 여기에 해당, 동네 목수와 같은 존재)

이토 추타의 건축가 호칭 주장은 실제로 위와 같은 전통 건설조직의 일원으로부터 구별되는 새로운 전문직의 탄생을 선언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영국식 교육을 통해 보급되었던 Architecture / Building 의 구분은 이토 추타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건물의 구분을 이론화했던 영국의 건축이론가 존 러스킨은 1871년 새뮤엘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자조론(Self Help)』이 번역되면서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참깨와 백합(Sesame and Lilies)』,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 『건축의 일곱 등불(Seven Lamps of Architecture)』, 『근대화가론(Modern Painters)』 등이 일본 지식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그러나 architecture의 의미는 일본 건축가들에게는 미적이고 양식적인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건축물의 용도, 즉, 그것이 분묘, 기념비, 개선문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주택인지에 따른 문제로 여겨졌다. 즉, 건축은 기념비이고 장식적 속성을 가진 것, 건물은 가옥이고 실용적 건축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짓는다는 의미의 ‘조가’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용어였고, 스스로를 ‘조가사’로 호칭하는 것도 극도로 꺼렸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25) Tada Minoru(2003). Morris and Ruskin in Japan, Bulletin of Obihiro Otani Junior College 40, 2003-03-31, p.70

3. 건축가 호칭의 경쟁

1) 번역의 순서에 따른 의미의 차이

이토 츠타 이전에 architect는 조영사(造營師)로 번역된 사례가 있다. 1876년의 『공학자휘(工學字彙)』(野村龍太郎·下山秀久 編)에는 architect를 조영사로 표기하고 있으며²⁶⁾, 이는 10년 후인 메이지19년판, 1888년의 메이지21년판, 1894년의 메이지27년판에서도 동일하다.²⁷⁾ 그런데 메이지19년판에서 build와 관련된 용어들의 해석이 흥미롭다. Builder는 건축자(建築者)·조영자(造營者)로, Building은 가옥(家屋)으로, Building material은 건축재료(建築材料)로 Construction은 구조(構造)·축조(築造)로 번역했다.²⁸⁾ 건축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to build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건축은 건축가들의 의도처럼 고상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 못했다.

1894년(明治27)판의 『공학자휘』에서는 당시 공부대학의 학제를 반영해서 architect의 번역어로 조영사에 더해 조가사(造家師)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architecture의 번역어 또한 기존 번역어인 조영학(造營學), 조영술(造營術)에 조가학(造家學)이 새로 추가되었다. 여전히 전통 용어인 조영-조영사와 신 용어인 조가-조가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대로 한문을 영어로 풀이하는 사전을 보면, 『한영대조입문사전(漢英對照いろは辞典)』(明治21, 1888)에 ‘건축’은 building, construction, to build, to construct로 풀이되었으며, ‘건축가’는 a builder, an architect로 표기되었다. 즉 건축은 건설행위를 가리키는 다양한 영어 단어의 총칭으로 활용되면서, 건축가에 아키텍트가 추가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아키텍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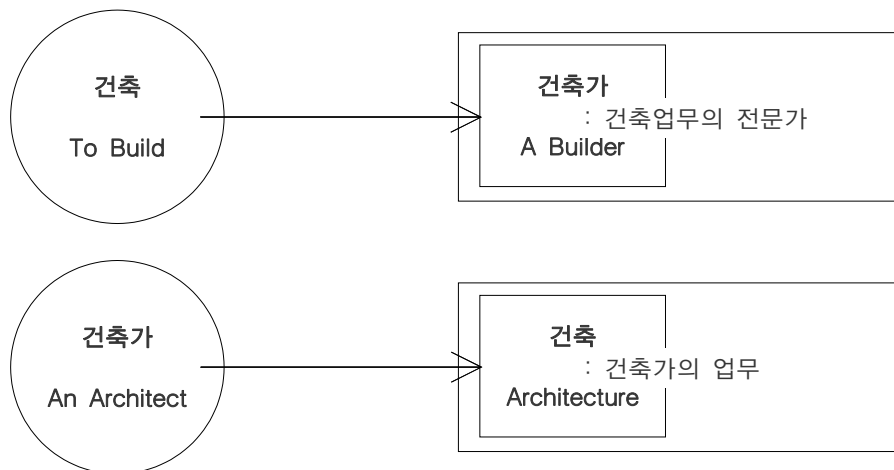
이처럼 메이지 후기의 상황을 보면, ‘조영-조영사’ 계통의 architecture의 번역 전통이 유지되고 있고, ‘건축-건축가’ 계통의 개념 집합에는 building이 대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architecture의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의미가 조영이라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면, to build의 실제적인 행위는 세우고 쌓는다는 의미의 건축이라는 한자어에 결부되기 쉬웠다. 이를 보면, 이토 츠타의 논고는 단어의 의미를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26) 鄭英淑(2013). 「Architectureの訳語をめぐって」, 日本近代學研究 (42), p.14에서 재인용

27) 鄭英淑(2013). ibid., p.15; p.21에서 확인

28) 鄭英淑(2013). ibid., p.15에서 재인용

짓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건축’의 번역에 기반을 둔 ‘건축가’는 이 행위의 당사자 혹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토 추타와 같이 특정 전문직을 ‘건축가’로 먼저 정의한다면 이에 따른 ‘건축’은 건축가의 업무로 한정된다. 건축의 전문가로서 건축가는 구조, 시공, 재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지만, 설계 전문직만을 건축가로 정의한 상태에서 건축은 설계 업무를 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 건축계 내의 갈등을 유발했다. 집을 짓는 여러 행위 중에서 설계 행위만을 건축의 적자로 인식하게 하는 우열의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그림 2-1] 번역 순서에 따른 건축과 건축가의 의미 차이

2) 건축기사와 건축기술사

건축가는 호칭을 결정함으로써 목수, 석수와 같은 전통 기능공에서 자신을 차별화하여 화가, 조각가와 동등한 반열에 오르고자 했다. 그러나 건축가 업무는 예술적인 것만큼이나 공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었고 따라서 ‘공학가’ 또한 건축가의 자격을 일부 공유하고 있었다. 나카무라(中村達太郎)는 1915년 9월 「건축가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평론을 『건축잡지』에 발표했다. 그는 존 러스킨의 건축론을 비판하는데, 즉 대건축가가 대회화가나 대조각가와 다르다면 단순한 건축수(建築手, builder)에 불과하다는 말을 반박한다.

건축수는 건축가의 위치보다 낮은 일에 종사하면서, 공사를 하며 지휘명령에 따르는 자이지만, 건축공학가(Architectural Engineer)는 즉 토목공학과 마찬가지로 건축가와 완전히

대등한 위치이다...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학교제도의 사정을 들어보면, 편의상 건축공학가도 건축가로 부르게 된다. 즉 러스킨의 조각가, 회화가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 이러한 건축가의 직무는 실제로 넓어서 공학가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이외에 미술가의 담당도 하고 있다. 즉 건축의 학사는 미술학사 겸 공학사이다. 요컨대 건축학사에서 미술학사를 뺀 것은 오히려 공학사가 남게 된다. ‘건축학사-미술학사=공학사’²⁹⁾

나카무라의 도식 ‘건축학사-미술학사=공학사’가 주장하는 바는 ‘건축학사=미술학사+공학사’라는 것이고 이것은 건축학의 미술 편에 전통에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술에 경도되어 있었던 주류 건축계의 분위기에서 건축가로서의 공학가의 위상은 그리 크지 않았다.

□ 중국의 건축사와 공정사

중국에서는 ‘건축사’와 ‘공정사’의 구분이 주목된다.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1903년 청말 교육 개혁 참조열방(参照列邦) 시 반포한 『주정학당장정(奏定学堂章程)』에서 토목 공학과 건축학이 분리되어 개설되었고, 1927년 상하이 특별시 공무국에서 제정한 「건축사, 공정사 등기규정(建筑师、工程师登记章程)」에는 건축사와 공정사를 구별하였다³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계통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1930년 국민정부에서 토목을 전공한 양시마오(杨锡繆)의 등기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모름지기 배운 바는 토목과였으나 건축에 또한 경험이 있어서 건축과 공업 기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³¹⁾는 내용이었다. 1945년 국민 정부가 반포한 「건축법」 중에는 건축사의 개념정의에 중국 토목공정사도 건축 설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제1장 4조에 규정하기를,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를 ‘건축사(建築師)’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등기하고 개업한 건축과 혹은 토목공업 기사 혹은 부기사(技副)를 그 제한으로 한다.”고 했다.

20세기 전반기 동안 중국에는 토목 출신의 건축가들이 많이 있었다. 1930년에서 35년 사이에 상하이시 공무국에 등기 개업한 건축사와 공정사는 모두 299명이 있었는데, 173명의 기사(技师) 중에서 113명이 토목 출신으로 65.3%를 차지했다. 그리고 건축과는 60명

29) 中村達太郎(1915). 「建築家の定義如何」, 『建築雑誌』 n.29 (345), 1915-09-25, p.653

30) 王浩娛·许焊权(2004). 「从工匠到建筑师中国建筑创作主体的现代化转变」, 张复合 主编, 『中国近代建筑研究与保护』, 清华大学出版社, pp.595-596

31) 『南京: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国民政府档案』, n.422, p.1218.

에 불과하며 34.7%를 차지하였다³²⁾. 즉, 중국에서 건축사와 공정사의 구분은 훨씬 더 모호하였고, 이는 건축가의 정의와 효용이 명확하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건축사와 공정사의 구분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해서였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경쟁관계가 지속되었다.

3) 건축사 호칭의 갈등

1925년 건축사법안의 상정을 두고 벌어진 호칭 논란은 일본 건축사의 역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요컨대, 일본건축학회가 ‘건축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931년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감독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정한 사건이다.

그 후 건축사회에서는 관계방면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사’라는 명칭은 일반기술자의 자격능력을 정하는 듯한 전반적 칭호로 오해를 부르기 쉬우므로 현재 건축기술자가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표현하는 ‘건축설계감독사’라는 명칭으로 납득한 듯하므로 우리들 업자의 업무 수행상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청부업자는 건축설계를 못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으므로 이 정도라면 굳이 이론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결정되었다.³³⁾

당시 건축학회 회장이었던 사노 리큐(佐野利器)는 “건축사라는 것은 (뜻이) 애매하고, 업무는 설계와 감독이므로 ‘건축설계감독사법안’이라면 좋다”고 하여 건축사의 명칭을 근본으로부터 해체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건축사회 측에서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명칭은 무엇이랄도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술 더 떠 설계보다 감독이 전문직만이 하는 업무로서 정하기 쉽다고 생각한 어떤 이는 오히려 이 명칭에서 설계를 제외하고 감독만을 남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즉, ‘건축감독사’로 가자는 것이었다. 건축사회의 어른이었던 추쵸 세이이치로(中条精一郎)는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가 있어야 비로소 감독이 있는 것이며, 설계가 없다면 무엇을 감독한다는 말인가”라는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³⁴⁾. 그러나 ‘건축설계감독사’이든 ‘건축감독사’이든 건축사들의 위신이 크게 망가진 것은 틀림이 없다. 건축의 분업화된 행위를 똑같이 상대화하여 설계의 우월한 위치를 끌어내리는 명칭이 분

32) 德罩在(2007). 「学科的外来移植 中国近代建筑人才的出现和建筑教育的左展」, 『中国近代建筑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p.123

33) 日本建築業協會(1930). 「第三十回定時總會議事録」, 『建築業協會會報』 n.13, 1930-05, pp.53-58

34) 速水清孝(2001). 『建築家と建築士 一法と住宅をめぐる百年』, 東京大学出版会, p.39

명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건축사 개념의 모호함은 영문 번역에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건축사법을 살펴보면, 건축사를 단순히 architect로 번역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일본의 건축사법의 영문표기는 ‘Act on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s’이다³⁵⁾. 이것을 직역하면 건축가와 건축공학자에 관한 법률이 된다. 즉, 건축사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1년에 영문명이 수정되었는데, 건축사법의 영문표기는 ‘Certified Architects Act’이다³⁶⁾. 즉, 건축사는 공인된 건축가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주책건축사(注册建筑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등록건축사(Registered architect)를 번역한 것이다³⁷⁾.

건축사의 영문 번역

[한국] 건축사법 : Certified Architects Act (2011 영문수정)

[일본] 건축사법(建築士法) : Act on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s (1950)

[중국] 주책건축사(注册建筑师) : Registered architect (1995)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도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이 명칭의 문제로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건축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는데, 1920년에 시행된 「시가지건축물법」은 원래 「건축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안에서는 건축법이라고 말하지만, 시가지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그 내용도 건축물의 존재 방식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제국 측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는데³⁸⁾, 이는 건축계 내부에서 호칭을 둘러싼 논란을 제3자가 판단한 것이었다.

건축과 관련된 법들은 대체로 건축물의 각종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물법’이 올바른 표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후 법령들은 다시 모호한 의미의 ‘건축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 일본의 「건축기준법」의 영문 표기는 ‘Building Standard Act’이다³⁹⁾.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62년에 제정된 「건축법」의 영문표기는 ‘Building

35) ‘Japanese Law Translation’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last accessed:2015-10-06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law.go.kr/> last accessed:2015-10-06

37) <http://baike.baidu.com/view/324185.htm> last accessed:2015-10-06

38) 笠原敏郎(1949). 「市街地建築物法制定について」, 『新都市』v.3, n.4, 1949-04, pp.8-10

39) ‘Japanese Law Translation’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last accessed:2015-10-06

Act',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의 영문표기는 'Framework Act on Building'이다⁴⁰⁾. 이때 건축이 가리키는 것은 모두 building으로서 분명 물리적 실체로서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건축행위를 가리키는 어법이 혼란스럽게 겹쳐져 있으며, 실제로 법률의 내용도 위 두 사항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제도 상에서 건축은 철저하게 architecture와 관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로서만 정의되고 있다.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건축은 건축계 밖의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자 번역어 건축은 원래의 대상 architecture와는 다른 의미화 현상을 겪어왔다. 낯선 개념과 익숙한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근대 신조어는 항상 왜곡이나 오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건설체계의 이해 아래서 서양의 예술과 전문직의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서, 특수한 형태로 통용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www.law.go.kr/> last accessed:2015-10-06

제3장 건축 설계 업무의 전문직화 과정

1. 건축가 전문직의 속성
2. 건축업의 분화와 전문교육의 태동
3. 건축가 단체의 성립과 구성원의 결속
4. 초기 한국인 건축가 집단의 성격

1. 건축가 전문직의 속성

1) 전문직의 요건과 전문직화 과정의 의미

① 전문직의 요건

□ 전문직의 사회적·계층적 성격

전문직(profession)의 등장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범세계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한 분야의 직업은 전문가(professionals), 지식인(intellectuals), 숙련자(experts)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전문가는 종종 ‘중산층’의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전문직화 과정은 186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중산층이 능력을 획득하여 사회적 명망과 개인의 열망에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했다⁴¹⁾.

이처럼 전문직은 단순한 직업의 종류가 아니다. 전문직은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수단이기도 해서 계급(class)과 직업(occupation)을 둘러싼 복잡한 해석을 야기했다. 그러나 직업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계급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목수나 건축가가 얼마든지 다른 계급적 지위에 자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급은 생산물의 사회적 관계로 정의되는 한편, 직업은 생산물의 기술적 관계에 위치한다⁴²⁾. 이러한 의

41) B. Bledstein(1976). The Culture of Professionalism, New York: Norton, p.5

42) E.O. Wright(1980). Class and Occupation, Theory and Society, v.9, n.1, pp.177-214

미에서 전문직은 해당업무의 내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표시하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의 계층을 나타내는 호칭

· 신흥 뽀띠 브루주아(the new petty bourgeoisie) – Poulantzas
· 신 노동계급(the new working class) – Mallet
· 전문직 관리계급(the professional-managerial class) – Ehrenreichs
· 신흥 계급(the new class) – Gouldner

그러므로 전문직은 ‘중간’이면서 ‘새로운’ 계급을 가리킨다. 학자에 따라 신흥 뽀띠 브루주아, 신 노동계급, 전문직 관리계급, 신흥계급 등으로 표현했지만, 공통적으로 최상위 혹은 하층이 아닌 중간이면서, 또한 새롭게 나타난 계급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중간 계급에 자리한 전문직이 다른 계급과 차별되는 점은 이들이 가진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에 있다. 문화자본이란 길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식, 기술, 언어는 전문직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차후의 수익 흐름을 Gouldner는 ‘문화의 자본화(capitalization of culture)’로 명명했고, Larson은 ‘인지 자원의 시장성(marketability of cognitive resource)’으로 표현한바 있다⁴³⁾.

□ 전문직의 특징적인 요소

근대 사회에서 전문직이 대두된 것은 위와 같은 문화자본을 가지고 특정한 서비스를 독점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제도화된 교육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체계를 무기로, 개인의 이윤 추구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헌신한다는 명목을 더해 서비스의 독점을 꾀했다. 그러므로 지식체계, 서비스의 공공성, 독점성은 전문직의 특징적인 요소가 된다. 나아가 스스로 그 분야에서 유일한 적법한 권위자로서 군림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로 통할 수밖에 없다.

- 지식체계 : 제도화된 교육, 실무와 조사연구에 따른 이론과 원리
- 서비스의 공공성 : 이윤추구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헌신
- 서비스의 독점성 : 전문가의 배타적 특권, 사회적, 법률적 보장

43) A. Gouldner(1978). The New Class Project I, Theory and Society, n.6, p.172

그린우드(E. Greenwood)의 저작, 「전문직의 속성」은 전문직 사회학의 이정표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다⁴⁴⁾.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전문직의 다섯 가지 속성은 각각 체계적 이론, 권위, 협회 규정, 윤리 강령, 문화이다. 체계적 이론(Systematic Theory)이란 근대 노동의 분화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노동의 우위와 관련되는 속성이다. 즉, 전문직은 도제방식의 노하우 전수나 경험의 숙달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며, 반드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갖추어야 한다. 권위(Authority)란 체계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의 인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규교육과정의 수료증이나 학위가 필요하다. 협회 인가(Community Sanction)는 배타적인 자격제도를 가리킨다. 윤리 강령(Ethical Codes)은 해당 전문직이 개인의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성의 증진을 위해 봉사한다는 선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Culture)는 집단의 독특한 행동거지이다. 즐겨쓰는 은어, 즐겨입는 패션, 괴상한 의식까지 타 집단과 구별되는 모든 것이 이에 포함된다.

[표 3-1] 전문직의 다섯 가지 속성 (Greenwood, 1957)

no.	속성	내용
1	체계적 이론 Systematic Theory	지적노동의 분리
2	권위 Authority	제도교육, 전문성
3	협회 인가 Community Sanction	공인 자격
4	윤리 강령 Ethical Codes	사심없음, 공공성
5	문화 Culture	자부심, 패션, 배타성

□ 전문직 발생의 초기 사례

전문직의 발생은 근대 이후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사회문제가 심각해진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시장 근본주의의 폐해 아래 직업적 윤리와 사회 봉사의 이상이 대두되었고, E. Durkheim이 주장한 소위 ‘규범적 규제(normative regulation)’를 자처하고 나온 것이 전문직이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의료인과 법조인은 항상 이상형으로 언급된다⁴⁵⁾. 그들은 그 후 건축을 포함하여 모든 전문직의

44) E. Greenwood(1957). The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n.2, pp.44-55

45) T.J. Johnson (1972). Professions and Power, London: McMillan Press, p.16

열망의 모델이 되면서 그 제도적 정체성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한편, 전문직의 두 번째 그룹인 엔지니어들은 과학과 기술의 합리성을 내세우며 명분을 찾았다⁴⁶⁾. 과학의 발전, 합리주의적 인식, 진보의 희망, 분업의 효율성 등은 대표적인 과학해방의 가능성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가들의 이기적인 욕심 대신 엔지니어의 비전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⁴⁷⁾, 이처럼 효율적인 전문직에 의해 운영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상정되면서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의 씨앗이 뿌려졌다⁴⁸⁾.

□ 자유전문직의 개념

‘자유전문직(Liberal Profession)’은 적절한 능력 인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그리고 직업적이고 독립적으로, 또한 고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적이고 개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해지는 모든 직업을 지칭한다⁴⁹⁾. 즉, 자유전문직은 개인의 규모에서 직업 활동을 하며, 이때 서비스의 내용은 의사와 같이 육체적 차원일 수도 있고, 변호사와 같이 윤리적 차원일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은 자유전문직과 동의어로 쓰인다. 그러나 특별히 자유전문직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율성’의 확보에 있다. 자유전문직의 수행은 건축주나 환자 등 서비스 요청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는 발주자의 요구, 의견, 이익을 넘어서는 전문가적 판단과 이에 따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린다.

의사 전문직은 이와 같은 자율성을 가장 먼저 획득한 직종 중 하나이다. 의료분야는 소비자의 주권이 광범위하게 부인되는 보기 드문 영역이다. 실제로 환자는 자신의 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간다. 따라서 소비자(환자)는 자신이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얻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필수적 신뢰 관계(une relation de confiance nécessaire)’가 강요된다⁵⁰⁾.

46) M.S. Larson (1979). The Rise of Profess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xiii

47) T. Veblen (1921). Engineers and the Price System, New York: The Viking Press, p.69

48) S.B. Dostoglu(1982). Towards Professional Legitimacy And Power: An Inquiry into the Struggle, Achievements and Dilemmas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cago 1871-190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14

49) <http://www.cnpl.org/definition/> last accessed: 2015-11-20

50) Stéphane Rapelli et Cyrille Piatecki(2011), Perspective sur l'histoire des professions indépendantes, 2011-1-31. http://rapelli.free.fr/documents/article_02.pdf last accessed: 2015-11-20

이에 따라 직업적 담론에 있어 ‘고객(customer)’이라는 단어는 ‘의뢰인(client)’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전문직의 서비스는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고유한 일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일이 풍부하며, 또한 그 일이 반드시 전문가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⁵¹⁾.

한편 자유전문직은 자율성의 보증을 위해 누구에게 고용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신들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 동료들 간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연대를 이루면서 스스로의 직능을 관리하는 단체를 결성한다.

② 전문직화 과정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는 특정 직업이 전문직의 속성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직화는 세 가지 용례가 있다⁵²⁾. 첫 번째는 ‘직업구조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기기술자가 확대된다거나 컴퓨터기술자가 새로 생겨난다거나 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직업 단체의 증가’를 직접 가리키기도 한다. 단체들은 회원 자격과 실무 규정을 만들어내며 확장해 나간다. 세 번째는 ‘전문직의 핵심속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중 전자의 직업구조나 직업단체의 생성은 전문직의 핵심속성으로 간주해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일반적인 전문직화는 세 번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화 과정은 특징적인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⁵³⁾. 첫 번째는 고객 보호와 대중적 인식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시장 구축의 노력이다. 두 번째는 경쟁적인 직업이나 그룹을 겨냥한 배타적 태도와 사회적 폐쇄의 과정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과 효율에 대한 어필, 즉 근대화와 합리화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어떤 직업은 전문직이 되고, 또 다른 직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도태된

51) C. Jameson(1980). Modern Architecture as an Ideology, Architectural Journal of the GSFA, v.IV, University of Pennsylvania, p.19

52) T.J. Johnson(1972). Professions and Power,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Macmillan Press, pp.22-23

53) S.B. Dostoglu(1982). Towards Professional Legitimacy And Power: An Inquiry into the Struggle, Achievements and Dilemmas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cago 1871-190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6

[표 3-2] 미국 직종별 전문직화 과정의 정도

	풀타임 직업이 된 것 (Became Full-Time)	첫 훈련 학교 (First Training School)	첫 대학 교육 (First University School)	첫 지역 전문 협회 (First Local Professional Association)	첫 국가적 단위의 전문 협회 (First National Professional Association)	첫 주 자격법 (First State License law)	윤리의 공식적 코드 (Formal Code of Ethics)
설립된 것들 (Established)							
회계 (CPA)	19세기	1881 ↑	1881 ↓	1882	1887	1896	1917
건축 (Architecture)	18세기	1865	1868	1815	1857	1897	1909
토목 (Civil Engineering)	18세기	1819	1847	1848	1852	1908	약1910
치의학 (Dentistry)	18세기	1840 ♢	1867	1844	1840	1868	1866
법학 (Law)	17세기	1784	1817	1802	1878	1732	1908
의학 (Medicine)	약 1700	1765	1779	1735	1847	1780 이전	1912
진행중, 경계에 있음 (Others in Process, come marginal)							
도서관학 (Librarianship)	1732	1887	1897	1885	1876	1917 이전	1938
간호학 (Nursing)	17세기	1861	1909	1885	1896	1903	1950
검안학 (Optometry)	-	1892	1910	1896	1897	1901	약1935
약학 (Pharmacy)	1646	1821 ♢	1868	1821 ♢	1852	1874	약1850
교직 (School teaching)	17세기	1823	1879	1794	1857	1781	1929
사회복지 (Social work)	1898(?)	1898	1904	1918	1874	1940	1948
수의학 (Veterinary Medicine)	1803	1852	0879	1854	1863	1886	1966
새로운 것들 (New)							
도시 관리 (City management)	1912	1921	1984	1914 이후	1914	없음	1924
도시 계획 (City Planning)	19세기	1909 ↑	1909 ↓	1947	1917	1963	1948
병원 행정 (Hospital administration)	19세기	1926 ↑	1926 ↓		1933	1957	1939
불확실한 것들 (doubtful)							
광고 (Advertising)	1841	1900(?) ♢	1909(?) ♢	1894	1917	없음	1924
장의사 (Funeral direction)	19세기	약. 1870	1914	1864	1882	1894	1884

* H.L.Wilensky(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 LXX, n.2, 1964-09, p.145

다. 즉, 어떤 직업의 전문직 여부는 직업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전문직화 과정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전문직화 과정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H. Wilensky(1964)가 도시한 미국의 전문직화 연표는 다양한 직업들이 주로 19세기 이후 전문직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⁴⁾. 전문직화의 첫 단계는 업무가 풀타임 직업이 되는 것이다. 법학이나 교직 등 전통적인 직업이 17세기에 처음 풀타임 직업이 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직업의 전업화가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는 훈련 학교와 대학 교육이 발생하게 된다. 체계적 이론이라는 전문직의 특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때도 법학이나 의학 등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서고 있지만 대체로 19세기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다. 동종의 업무 종사들간의 전문협회가 구성되는 것은 교육기관의 발생시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전문협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도 주목해볼만하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직의 실체인 졸업증, 자격시험, 면허증과 같은 것들에 대한 통제와 제한된 허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직업 윤리에 관한 자치 규약이 확립됨으로써 전문직의 업무, 책임, 보상 등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사회적 정체성이 완성된다.

2) 건축가의 전문직화 과정

건축가 전문직의 이해 방식은 앞서 기술했던 전문직 일반의 속성과 동일하다. 건축가 전문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자신이 필요한 종류의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건축가의 판단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주는 유일한 것이 된다⁵⁵⁾.

한편, 대중은 건축가의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데, 전문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궁극적으로 받는 대상이 바로 대중이기 때문이다. 전문직 이데올로기 형성의 필수 요소는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업적 이득, 또는 특정한 계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봉사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데 있는데, 건축가 전문직

54) H.L. Wilensky(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 LX X, n.2, p.145

55) B. Kaye(1960).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in Britain, London: Allen and Unwin, p.16

은 이런 점에서 매우 전형적인 전문직을 형성한다. 즉, 건축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건축가 전문직의 형성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전문직화 과정에서 건축가들의 첫 번째 임무는 의뢰인을 찾고 이들에게 건축가 서비스의 긴요성과 우월성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동시에 건축가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계하여 그 실무를 합법화하고 그들의 건축 작업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했다. 다음 단계는 시장에 대한 건축가 권한의 확대이다. 의뢰인이 보장된 이후에, 즉 전문직 시장이 정의된 이후에는 이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한다⁵⁶⁾. 전문직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적절한 자격의 독점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다른 이들의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

① 건축가 전문직의 형성 배경

건축가 전문직에 의한 규제 제의 성립은 서구 세계에서도 획일적인 과정은 아니며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직 활동을 개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 정부와 관료제도를 가진 사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국과 미국처럼 관료주의에 반대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전문직들이 형성된 경우도 있다. 양 국가에서 건축은 앞서 Wilensky가 '전문직화'로 정의한 사건들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⁵⁷⁾. 예를 들어, 건축 협회는 학교나 다른 기관 이전에 첫 단계로 설립되었다. RIBA가 183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AIA는 뉴욕에서 1857년 설립되었고, 이후 지역 지부 시스템을 통해 확산되었다.

건축의 전문직화를 위한 과정은 길고 느렸다. 건축가 협회의 노력과 활동은 수십 년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국에서는 RIBA의 이른 출현에도 불구하고 20세기가 될 때까지도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등장하지 않았다. 길드 시스템의 절충 방식으로서, 건축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문하생(Pupilage) 제도가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전문직화 자체에 대한 생각도 19세기 산업화의 영향으로 건축이 회화, 조각 등 예술과 분리되는 것을 크게 안타까워했던, 그래서 건축을 '직업'이

56) S.B. Dostoglu(1982). Towards Professional Legitimacy And Power: An Inquiry into the Struggle, Achievements and Dilemmas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cago 1871-190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23

57) H.L. Wilensky(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 LX X, n.2, p.145

아니라 ‘예술’로 보는, 소위 ‘메모리얼리스트(Memorialists)’에 의해 완강하게 거부되어 왔다.⁵⁸⁾

이처럼 전문직의 요건인 체계적 이론, 권위, 협회 규정, 윤리 강령, 독특한 문화를 갖추기 위해 건축가 집단은 적어도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다. 대체적으로 19세기에 시작된 건축의 전문직화 현상은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전문직화 과정은 국가 형성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였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왕실 및 행정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었던 것이 그 이유이다⁵⁹⁾.

② 서양 건축가의 전문직화 과정

□ 프랑스의 건축가 전문직

프랑스에서 건축가 전문직의 성립은 프랑스 왕실과 관계가 깊다. 이태리 궁정을 본받은 프랑스 군주들은 건축가들에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부여했다⁶⁰⁾. 이들은 사업 기획에서 공사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앙리 4세 때의 티보 메트조(Thibaut Métezeau)에서 루이 15세 때의 수플로(Soufflot)에 이르기까지 기획자-건축가의 사례는 많다. 건축가의 사회적 신분상승은 부르주아의 성장과 함께 하였고, 절대왕정의 중앙 집중화된 국가는 건축가 전문직의 법적, 행정적 규범을 정의하려고 했다.

16세기 중반까지 건축가는 건설 실무자와 행정가 사이에 위치하였다. 일례로 이태리에서 초빙된 건축가 세를리오(Serlio)는 1541년 ‘퐁텐블로의 화가 겸 정규 건축가(architecte ordinaire)’의 지위를 가졌으나, 단지 자격이었을 뿐 실제 직무의 수행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루이 11세와 프랑수아 1세는 건설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감, 재무 및 회계 감찰관 등의 직위를 만들어 ‘왕실건축조직(Bâtiments du royaume)’의 기초를 제공했다. 앙리 2세에 이르러 건축가는 행정감독관과 감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일종의 기술 자문이었으며 감독관들이 여기에 합류하였다. 필리베르 들로르므(Philibert de l'Orme), 프리마티

58) N. Shaw ed.(1982).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 London: J. Murray, pp.36-53

59) T.J. Johnson(1982). The state and the profession : peculiarities of the British,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90

60) F. Champy, C. Heitz, R. Martin, R. Moulin, and D. Rabreau(2013). ARCHITECTURE Thèmes généraux - L'architecte, in Encyclopædia Universalis France, version électroniqu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architecture-themes-generaux-l-architecte/> last accessed:2015-06-25 이하 프랑스 건축가 전문직화 주요사건의 인물과 연도는 이 문헌에서 인용함.

스(Primatie), 밥티스트 앙드루에 뒤 세르소(Baptiste Androuet Du Cerceau), 루이 메트조(Louis Métezeau) 등이 유명했던 건축가 겸 총감인데, 국왕 앙리 4세는 다시 이 두 직무를 분리시켰다.

이런 가운데 건축가는 직무가 정밀화됨과 동시에 다양화되면서 더 큰 활동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명실상부한 특권과 선망 받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행정부에서 정액제 또는 상여금 방식으로 연봉을 받으며, 건축가는 종종 상당한 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대를 이어 물려졌는데, 이를 ‘건축가 왕조(dynasties d’architectes)’의 탄생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축성 기술자들 또한 대도시나 교단의 건축가 역할을 수행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건축가 직업의 정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필수적인 건축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다.

17세기에 총감은 프랑스 왕립 건축, 예술, 타피스리, 수공업의 주관자이기도 했으며, 왕국 전체의 수준에서 부서가 조직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관’의 직위에 해당했다. 1664년부터 장-밥티스트 콜베르(J.B. Colbert)에 의해, 건축관련 여러 부서들은 국왕의 수석 건축가와 그의 전속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예술가 및 기와공에서 정원사에 이르는 시공자들을 포함하는 본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전적으로 국가권력에 봉사하는 건축가 전문직의 위엄은 1671년 ‘왕립 건축 학술원(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의 설립으로 인해 공인되었다. 국왕 직속 건축가들로 구성된 임원들은 총감들과 그 산하 공무원들 곁에서 일종의 영구적인 자문위원회를 이루어, 무엇보다도 독트린을 고안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것을 임무로 삼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이고, 개인적이며, 무엇보다도 실무적이었던 건축가의 전문직 교육은 루이 14세의 세기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문화를 생성시키는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방대한 관료건축가 시스템은 19세기의 ‘국가공공건축물 관리국(service des Bâtiments civils)’으로 이어졌다.

건축가 전문직 위상의 공인을 얻어내기 위해 건축가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직업윤리를 정비하고 성문화하기에 이르렀는데, 당대의 대표적인 건축가였던 비올레 르둡(E. E. Viollet-le-Duc)과 쥘리앙 가데(Julien Guadet) 등은 건축가의 독립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전문직의 형태로서 직능이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틀리에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축가’를 건축가의 기본 모습으로 설정한 것인데,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가데 규범(Code Guadet)’은 이러한 입장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가데 규범⁶¹⁾

- 건축가는 프랑스 학술원의 사전(1878년도 판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건물을 구성하고, 그것의 비례, 배치, 장식을 결정하며, 자신의 지휘 하에 건물을 건설케 하고 그 지출을 관리하는 예술가” 결과적으로, 건축가는 예술가임과 동시에 실무자이다. 건축가의 역할은 건축물의 구성을 창안 및 연구하고, 그것의 건설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이와 관련된 지출의 계산을 검증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 건축가는 상업이 아닌 자유 전문직(profession libérale)을 수행한다. 이 직업은 개발업자, 사업가, 건설 재료 공급자와 호환되지 않는다(incompatible). 건축가는 오로지 고객으로부터의 수임료(honoraires)에 의해서만 보상받으며, 공사나 임무의 수행에서 생기는 다른 어떤 이윤도 배제된다.
- 건축가는 상인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기 때문에 할인이나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축가는 개인적 목적에서 신문, 전단, 간판, 팸플릿, 또는 상업직에서 사용하는 모든 다른 수단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 동료들에 대해서, 건축가는 표절을 하지 않으며 이름에 걸맞은 예술가들에게 부과되는 규칙들을 위반하지 않는다.
- 건축가는 건축주에게, 맡겨진 프로젝트의 고안에 있어서, 건설 감리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의견과 조언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건축주가 위탁한 이익(intérêts)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만 제3자의 권리에 침해가 될 성질의 작업은 행하지 않는다.

가데 규범(Code Guadet)이 설파하는 건축가의 직업윤리는 ‘자유 전문직의 수행’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직업군으로서 독점권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정의에 한정된다면, 19세기 프랑스에서 확립된 ‘자유 전문직’의 정의에서는 이러한 의미 외에도 사적이익 추구의 지양과 공적이익 추구의 강조가 중요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부터 건축계에서 추진된 자유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의 노력은, 건축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와의 교섭 끝에 1940년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977년에 제정된 프랑스 건축법은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창조, 건설의 품질, 주변 환경 속으로의 조화로운 삽입, 자연 및 도시 경관과 문화재의 존중은 공익에 속한다.”라는 첫 문구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⁶²⁾ 상업주의와 특정 개인의 이익추구에 반한다는 함의를 갖는 이 문구는 19세기에 성립된 ‘자유전문직(profession libérale)’으로서의

61) Eve Jouannais(1992). De la S.A.D.G. à la S.F.A., histoire d'une société d'architectes. Deuxième partie: 1940-1992, éd. Société française des architectes, p.9

62) “L'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 La création architecturale,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leur insertion harmonieuse dans le milieu environnant, le respect des paysages naturels ou urbains ainsi que du patrimoine sont d'intérêt public.”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건축가 정의를 계승한 것이다.

□ 영국의 건축가 전문직

영국의 경우,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분리가 아니라, 국가형성과 전문직화라는 상호 관련된 과정들이 포괄되는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례라는데 있다⁶³⁾. 다수의 영국 전문직들이 상당 정도의 자율성, 특히 자격증 부여와 진입규제영역에서 자율성을 누렸던 것은 이들이 대영제국과 연관되어 있었고 제국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⁶⁴⁾.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과 노동의 분업화는 대규모 청부업자(*general contractors*)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청부업자들은 모든 장인들과 때때로 건축사무소까지도 임금 노동자로 고용했다. 새로운 작업장은 마치 ‘건설공장’과 같았다⁶⁵⁾. 이와 같은 노동의 분업은 건설 체계 내에서 건축가의 중재자적 역할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건축가들은 드로잉, 디자인, 감리(*supervision*)와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강조하면서, 요소를 고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수학과 기하학의 수준 높은 분석능력을 내세웠다. 또한 작품의 법률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게 되었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및 그에 따른 꼼꼼한 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별한 영역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RIBA(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1834)의 설립은 건축가의 역할을 경쟁과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꾀한 것이었다. 건축가가 되려는 자들은 RIBA에 의해 규제를 받았고, 공인된 교육을 통한 자격의 형식화, 문하생 전통과 대학교육의 결합이 진행되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와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AA(*Architectural Association*), 전일교육을 달성한 리버풀 대학(*Liverpool University*), 디자인 학교(*Government Schools of Design*), 로열 아카데미(*Royal Academy*) 등이 설립되고 개혁을 이끌어나갔다.

63) T.J. Johnson(1982). *The state and the profession : peculiarities of the British,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88

64) T.J. Johnson(1982). *ibid.*, p.206

65) M. Crinson, J. Lubbock(1994). *Architecture, Art or Profession?: Three Hundred Years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43

□ 독일의 건축가 전문직

독일사회에서 건축가의 개념은 공과 대학에서의 건축 커리큘럼의 구성과 깊이 연관된다. 1920년대 이후 건축교육에서 구조 역학적,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교육과정에서 설계는 여전히 최우선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건축교육은 건설공무원, 자영업 건축가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건축가의 중세적 직업상인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건설마이스터(Baumeister)’는 건축에 관련된 모든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었다⁶⁶⁾. 업무 범위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와 비용계산, 계획과 시공 업무에 대한 수당의 제안, 시공과정에서의 조직까지 포함했다. 1931년부터 시행되어 1979년에 폐지되었던 ‘건설마이스터’ 제도에서는 건설마이스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공과대학의 졸업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건설 수공업자 모두를 허용하고 있었다.

독일에서 예술가로서의 건축가 상은 절대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19세기 건축예술가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국립 건축 아카데미에서 건축 관료로 교육받고 19세기 초반 고위공직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다. 칼 프리드리히 쉥켈(Karl Friedrich Schinkel)은 이러한 공직 건축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공공 영역에서의 건축가의 임무가 축소됨에 따라 독일 건축사 제도로써 대학 건축교육은 건설감리 공무원을 임용하는 국가고시와 분리되었다⁶⁷⁾.

자영업 건축가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독립적으로 건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19세기 말 공학대학과 국립 아카데미의 졸업생들이 대거 양성됨에 따라 공직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숫자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들은 기술학교를 나온 건설수공업자인 건설마이스터들과 경쟁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자유전문직 건축가에 대한 전

66) Burkhard Dietz(1996). Technik und Kultur –zwischen Kaiserreich und Nationalsozialismus: Über das sozio-kulturelle Profil der “Zeitschrift des Verbandes Deutscher Diplom-Ingenieure” (1910–1941), in: Burkhard Dietz, Michael Fessner, Helmut Maier (eds.), Technische Intelligenz und “Kulturfaktor Technik”: Kulturvorstellungen von Technikern und Ingenieuren zwischen Kaiserreich und früh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ster, Waxmann Publishing Co., New York, p.133

67) 건축사 자격시험이 폐지된 것과는 별개로 1770년 프리드리히 대제에 의해 시작된 공무원고시제도는 고급 공무원(das technische Referendariat)이 되기 위하여 연방교통인프라부에서 시행하는 기술고시로 건축, 토목, 교통 등 13과목으로 세분화되어 매년 약 200명의 합격자가 발표된다. Peter Neu(2013). Oberprüfungsamt für das technische Referendariat –Referat Z 35 beim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p.4:12. URL: <http://www.bvdtr.de/files/files/Oberpruefungsamt%20-%20Einfuehrung%20-%20Peter%20Neu.pdf>, last accessed: 2015-10-30

문직으로서의 자격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전문직 건축가들은 스스로 경제적 소득 보장과 건축가 직능을 보호를 위하여 1903년 자영업건축사연합(BDA)을 결성하게 된다.

□ 미국의 건축가 전문직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건축가가 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건축 학교에서의 일정 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파리에서의 교육이 이상적이었으며, 사무실 경험을 완수하고, 건축적 유산의 현장을 공부하기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보통이었다⁶⁸⁾. 모든

요소	연 도												
	1800		1850					1900				1950	
교육 Education				1860 MIT						1912 미국건축학 교육협회 (ACSA)			
				1867 일리노이 대학교				1898 9건축학교		1911 20건축학교		1930 52건축학교	
					1868 코넬대								
협회 Association	1803 비트루비우스 뉴욕 워크숍 (Workshop of Vitruvius New York)		1857 AIA			1884 MAA							
		1836 AIA (지속되지 않음)		1867 지역 지부 체계 (System of Local Chapters)		1889 MAA와 AIA 병합							
면허 Licencing							1897 일리노이 건축사 면허법			1920 미국건축사등록원 (NCARB)		1939 미국건축 교육 인증원 (NAAB)	
												1951 모든 주에서 자격증법 완료	
윤리강령 Code of Ethics								1909 AIA 직능 윤리법 (AIA Professional Code of Ethics)					

[그림 3-1] 미국에서 건축의 전문직화 과정

기간 동안, 미국건축가협회(AIA)는 건축 교육에 있어 특수한 위원회였다. 교육적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학교들을 인정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표 3-3] 미국에서 건축 전문직의 속성 획득과정

시기	건축계					실무 계약
	주요 인물	직업화	등록	법적 맥락	규제	
1790 ~ 1840	Latrobe, Bullfinch, Mills, Jefferson, Thornton, Halle	American Institution of Architecture 창립 (1836)		Witten contracts first mandated by Statute of Frauds (1677)		
1850 ~ 1880	Hunt (1853년 예 콜 드 보자 르 졸업), Upjohn	AIA 창립 (1857)			Chicago Code 출간 (1875)	최초의 “통합” 표준 계약 (First standard "Uniform" Contract) (1888)
1890 ~ 1919	Burnham, Richardson, McKim Mead & White	10,600명 건축가 (1900년)	첫 건축사 등록 (일리노이주 1897)		ASHRAE, UL설립 (1894), NFPA 설립 (1896), ASTM 설립 (1898), NIST 설립 (1901), National Building Code 출간 (1905)	AIA Documents Committee 설립 (1908)
1910 ~ 1929	McKim Mead & White, Frank Lloyd Wright, Julia Morgan	First Architects'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 (1920)	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e Registration Boards] 설립 (1919)		BOCA 설립 (1915), ICBO 설립 (1922), Life Safety Code 출간 (1927), UBC 출간 (1927)	최초의 “일반약관” (General Conditions) A201 (1911), A101, 311, 401 (1915), B141 (1917), A107, A111 (1920)

* <http://archprac.cua.edu/aprp/olce/educ/history.htm> last accessed:2015-10-20

68) AIA(1945). Architecture: A Profession and a Career, Washington, D.C.: AIA Publications

미국에서 자격의 인증과 등록은 제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것들은 오직 미미한 건축적 능력의 측정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⁶⁹⁾. 미국에서 주별로 건축 실무에 대한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1897년 일리노이 주를 시작으로 1960년대 괄과 버진아일랜드까지 거의 모든 주에 건축실무 관련 규제가 성립했다. 또 면허를 가진 건축가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등장한지 거의 한 세기 이후에, 디자인이 시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이 불거졌고, NCARB의 자격 시험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⁷⁰⁾.

[표 3-4] 미국 주별 건축 실무에 대한 규제 채택 시기

년도	주	년도	주	년도	주
1897	Illinois	1921	Arizona	1937	Nebraska
1901	California	1921	Minnesota	1938	Texas
1902	New Jersey	1921	Tennessee	1939	Alaska
1909	Colorado	1921	West Virginia	1939	Arkansas
1910	Louisiana	1923	Hawaii	1941	Massachusetts
1911	Utah	1924	District of Columbia	1941	Missouri
1913	North Carolina	1925	Oklahoma	1945	Maine
1915	Florida	1925	South Dakota	1948	New Hampshire
1915	Michigan	1927	Iowa	1949	Kansas
1915	New York	1927	Puerto Rico	1949	Nevada
1917	Idaho	1928	Mississippi	1951	Vermont
1917	Montana	1929	Indiana	1951	Wyoming
1917	North Dakota	1930	Kentucky	1956	Canal Zone
1917	South Carolina	1931	Alabama	1960	Guam
1917	Wisconsin	1931	Ohio	1968	Virgin Islands

* <http://www.ncarb.org/~media/Files/PDF/Special-Paper/history.pdf>, last accessed:2015-11-25

69) N. Richter(1980). Registration: Riding into the Sunset Laws, AIA Journal, v.69, n.5, pp.46-48

70) S.B. Dostoglu(1982). Towards Professional Legitimacy And Power: An Inquiry into the Struggle, Achievements and Dilemmas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cago 1871-190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31

③ 건축가 전문직화 과정의 중국 사례

중국에서 ‘architect’는 ‘건축사(建筑师)’로, ‘profession’은 ‘전업(专业)’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건축가 전문직은 ‘전업건축사’로 표기된다. 중국에서 전업건축사의 출현은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⁷¹⁾. 첫 번째, 전업건축사의 출현으로 하나의 전문 지식 분야가 구별될 수 있었다. 둘째, 건축 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표준과 규범의 보급은 건축사 집단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셋째, 전문직 단체인 ‘중국토목공정사학회’, ‘중국건축사학회’, ‘중국영조학사’ 등이 형성됨으로써 건축사 권익의 보장, 공통 표준과 규범, 그리고 비평 기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출현을 통한 전문직의 업역 확대를 들 수 있다.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서는 건축가와 건축가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 주택의 설계와 건축 작업은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술은 대부분 도제 방식을 통해 전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건축학의 도입은 건축 생산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이었다. 중산 손문(孫文)의 말처럼, ‘우선 도면을 그려 설계하고 그 후에 건축하는 일’은 ‘지적 사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저 인류가 집을 짓고 편히 살았는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비로소 건축학이 있게 되었다. 중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학문이 없었으며 고로 중국의 집은 대부분 건축학에 근본을 두고 조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행하였으나 부지(不知)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지금 집들은 건축학에 근본을 두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선 도면을 그려 설계하고, 그 후에 건축하였다. 이는 지적 사고 후에 이룬 것이다.⁷²⁾

그러나 중국의 전통 장인들은 곧바로 전문직이 될 수 없었다. 체계적 지식이라는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기 건축시장은 장기간 서양 건축가의 수중에 있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자국인 건축가의 활약은 1920년대 건축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이 시기는 크게 세 집단, 즉 전통장인, 공학자, 건축가들이 건축 실무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때로서, 전통장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한국의 건축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문직화가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71)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299

72) 孫文(1956). 「孫文学說·四」, 『孫中山選集』, 人民出版社. 원문은 인터넷 참조. URL: http://blog.sina.com.cn/s/blog_d088c8570102vnnh.html last accessed:2015-09-15

□ 전통 장인들의 전문직화 시도

중국에서 서양건축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전통 장인들이었다. 1840년 아편전쟁이 발생하고 1842년 8월 남경조약이 맺어지면서 여러 도시에 조계(租界)가 설치되었다. 조계의 신속한 개발은 점점 더 많은 외국 건축가, 기술자,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중에서도 상하이(上海)는 가장 모범적인 건축구성과 제도로 중국의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⁷³⁾.

1910년대 상하이 건축은 거의 조계와 외국인들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 건축 장인들을 자극하였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곤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심어주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공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공법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15년 콘크리트 혼합기의 사용과 1916년 인조 대리석의 제작은 여러 상하이 장인들이 시공현장에서 습득하여 주변에 확산시킨 것이라고 한다.⁷⁴⁾ 설계 분야의 진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건축가가 개업한 건축사무소에서 제도법과 구조설계 등을 배운 장인들 중 재능이 특출한 자들이 건축가가 되었다.

독학과 자습을 통한 것 외에도 극소수의 교육기회가 있었다⁷⁵⁾. 1849년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 온 영국인 건축가 Strachan은 기술학교를 세우고 주로 Ningbo(宁波) 사람들로 구성된 장인들을 가르쳤다. 또 1904년 상하이 조계당국에서 개설한 ‘기술교육야간반’이 있었다. 1930년대 초에는 ‘상하이시 건설협회’가 ‘정지(正基) 야간학교’를 건립하여 경험 있는 장인들을 교육했다. 7년 동안의 졸업생 50여명은 대부분 시공회사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건설회사의 설계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첫 회 졸업생 리우자성(刘家声)은 건설회사 난화잉자오창(南华营造厂)으로 돌아가 Kunming(昆明)의 썩원(兴文)은행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⁶⁾.

전문직의 핵심 역량이 전문지식에 기반하고, 전문지식이 체계적 교육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전통 장인들은 이 부분에 약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가장 야심찬 시도가 바로 1931년 상해에서 두옌경(杜彦耿) 등 젊은이들이 발기하여 세운 ‘상해시건축협회(上海市

73) 赖德林(2007). 『中国近代建筑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p.26

74) 何重建(1991). 「上海近代营造业的形成与特征」, 张复合 主编, 『第三次中国近代建筑史研究讨论会论文专辑』, 清华大学出版社, p.118

75) 朱英·魏文亨 主编(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306

76) 张复合 主编(2002). 『中国近代建筑研究与保护(四)』, 清华大学出版社, p.593

建築協會)’였다⁷⁷⁾. 협회의 강령은 “직공의 교육을 제창하고 장인의 심령을 혁신 개진하는 것을 본 회의 유일한 급무(急務)로 한다.”였다.⁷⁸⁾ 두옌펑의 주도 아래 1932년 11월부터 협회지 『건축월간(建築月刊)』이 출판되기 시작했고, 정기야간학교가 세워졌다. 수업에서는 건축기술과 영어를 가르쳤고 중국건축업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두옌펑은 『건축월간』에 토건, 시멘트와 석회, 벽돌벽, 석조, 목조, 강창, 금속, 칠, 관 공정과 건축 견적평가 등등을 포함하는 ‘영조학’ 12장, 이집트, 서아시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초기 기독교, 비잔틴, 회교, 프랑스, 독일 등의 ‘건축사’ 24편을 연재했다. 또 1935년에 『영중·중영 합해 건축사전(英華、華英合解建築辭典)』을 출판하는 등 독보적인 이론화 작업을 수행했다.

원래 전통 장인들의 조직인 ‘루판디엔(魯班殿)’은 중국인의 집을 짓는 자들을 일컬어 본방(本幫)이라 하고, 서양인의 집을 짓는 이들을 홍방(紅幫)이라 하는 등 지역과 업무의 철저한 구별이 있었다⁷⁹⁾. 상하이 장인들의 노력은 이와 같은 편견을 버리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제 간의 전수 방식을 기술학교의 교육으로 대체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건축계에서 자신들의 불평등한 지위를 극복하고자 강렬하게 지위 상승을 갈망했다는 점이다. ‘상해시건축협회’의 설립, 『건축월간』의 발간, 야간학교의 개설은 일종의 전문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서구 유학에서 돌아온 건축가들에게 경쟁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장인들의 건축가되기 운동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 건축공학자의 설계분야 진출

정규 건축교육을 받아 ‘전업건축사’로 불릴 수 있는 중국인은 두 부류가 있는데, 국외 또는 국내에서 ‘기술공정류(공학)’의 전공을 했거나 ‘건축류(건축학)’의 전공을 한 학생들이었다. 이때 기술공정류는 곧 ‘토목공정류’를 가리키며, 한국어로는 ‘토목공학’에 해당한다. 『중국교육연감』(1934, 1948)의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중반까지 토목공정과를 개설한 학교 수는 37개소이다⁸⁰⁾. 또, 1854년에서 1953년까지 100년 간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유

77) 두옌펑은 1896년 상하이생 건축가이다. 何重建(1991). 「上海近代营造业的形成与特征」, 张复合 主编, 『第四次中国近代建筑史研究讨论会论文专辑』, 清华大学出版社, p.118

78) 末詳(1934). 「上梅市建筑协告成立大会宣言」, 『建筑月刊』 v.2, n.4, 附录;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306에서 재인용

79)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p.308-309

80) 德霖(2007). 「学科的外来替植:中国近代建筑人才的出现和建筑教育的史展」, 『中国近代建筑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p.121

학생들의 학과 통계를 보면, 총 3,143명 중 토목 전공이 777명으로 전체의 24.72%를 차지하며 비율로는 1위이다. 이들 중에는 건축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건축가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양룬위(杨润玉), 황위엔지(黄元吉), 꾸어양뮈(过养默), 양시마오(杨锡缪), 손즈샤(孙支厦) 등이 대표적이다.

[표 3-5] 토목기술자 출신의 중국의 대표 건축가

이름	출신학교	대표업적
양룬위 杨润玉	상하이 쉬자후이투산완 (上海徐家汇土山湾) 공예학교	1915년 화신건축공사(华信建筑公司) 창립
황위엔지 黄元吉	상해 공부국 육재공학 (育才公学) 난양루광학교(南洋路矿 学校) 토목과	1921년 동난건축공사(东南建筑公司) 창립 상하이 상강루 상하이 은행 공회 빌딩(上海香港路上海银行公会)
꾸어양뮈 过养默	교통부 당산(唐山) 공 업 전문 학교 토목과 미국 코넬 대학 토목학 석사	1935년 Empire mansion(恩派亚大厦, 上海霞飞路)
양시마오 杨锡缪	난양(南洋)대학 토목공정학과	1934년 상하이 바이러먼 댄스홀(百乐门舞厅)
손즈샤 孙支厦	통조우(通州) 사범학교 측량학과, 토목공정과	1911년 난통박물관(南通博物苑), 1920년 화이하이 (淮海) 은행

* 출신학교와 대표작품은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p.310-317을 참조하여 작성

그중에서도 통저우(通州)의 주요건물의 다수를 설계했던 손즈샤(孙支厦)는 중국 근대 건축사의 선구자중 하나로 평가된다⁸¹⁾. 그는 중국 근대건축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주류의 과도적인 성격의 인물이고 그로 대표되는 토목 출신의 건축가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중국 건축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중국에서는 손즈샤와 같은 공학자 출신의 건축가들이 먼저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해외 유학을 마친 건축가들이 설계분야를 장악한 것은 조금 더 후대의 일이다. 1930-1935년 상하이에 등록된 299명의 건축사 중 113명이 토목공정사였고 전체의 37.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⁸²⁾.

81) 孙支厦(1882-1975), 약력에 대해서는 Baidu백과를 참조. <http://baike.baidu.com/view/4897114.htm> last accessed:2015-09-15

82) Lai Deli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China.11. A. Newsletter Vol.5, No.1.;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p.316-317에서 재인용

공학자 출신 건축가 작업의 특징은 설계와 시공의 작업 분리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손즈샤는 자기가 맡았던 건축 사업들에서 일관되게 건축 설계와 시공 관리의 두 가지 역할을 반드시 겸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작업 방식이 전통 ‘도료장(都料匠)’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다⁸³⁾. 이것은 건축학 교육이수자 출신의 건축가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으로서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차별되는 경쟁력의 요소이기도 했다.

□ 건축가 전문직의 주도권 형성

1910년 장준(庄俊)을 시작으로 하는 청화대 ‘경관(庚款)’ 유학 건축학생들이 중국건축계의 주류를 형성했다. 경관은 의화단 운동의 배상으로 프랑스와 미국이 받아낸 경자배관(庚子賠款)을 가리키는데, 청의 반감을 완화하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배당금 중 일부를 유학비로 지원한 것이다. 1938년 이전에 건축전공으로 미국에 유학한 중국인은 37명으로 약 절반 정도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공부하였다⁸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판원자오(范文照), 주빈(朱彬), 자오션(赵深), 양팅바오(杨廷宝), 천즈(陈植), 량스청(梁思成), 통상(童商), 루수선(卢树森), 리양안(李扬安), 궈위엔자오(过元熙) 등은 중국의 건축교육, 건축설계와 건축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중국의 건축교육, 대표적으로 쑤저우 공전(苏州工业专门学校), 중앙대학 건축계(中央大学 建筑係) 등 명문학교는 모두 이들 유학생들이 귀국 후 정식으로 개설한 것이었다. 한편, 중국 내에 대학이 개설되면서, 장진(张锦, 1934년 국립 중앙대학 졸업), 장카이지(张开济, 1935년 국립 중앙대학 졸업), 파이니엔츠(戴念慈, 1942년 국립 중앙대학 졸업), 쉬샹즈(徐尚志, 1939년 충칭대학 졸업) 등 국내파 건축가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1950-70년대에 집중적으로 활약하였다⁸⁵⁾.

83) 李海清(2004). 『中国建筑现代转型』, 东南大学出版社, p.133

84) 1938년 이전의 건축 유학생은 영국 3명, 프랑스 3명, 독일 2명, 일본 4명, 이태리 1명이지만 미국은 37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가장 많아서 8개 학교의 학생 수의 반을 차지하였다.

赵国文(1991). 「中国近代建筑史论」, 『建筑师(28)』, 中国建筑工业出版社, p.72

85) 曾坚(1995). 「中国建筑师的年代问题及其他」, 『建筑师』(67), 中国建筑工业出版社, p.85

2. 건축업의 분화와 전문교육의 태동

1) 근대 건축가 교육의 전개 양상

대학은 모든 전문직의 존재 기반으로 작용했다. 학자들의 길드는 12세기와 13세기 장인 길드들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현대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⁸⁶⁾. 건축가들은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아카데미즘에 자리를 잡고 전문성의 증거로서 추상적이고 난해하지만 체계적인 이론을 내세웠다.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되고 전통 직종의 분업이 확산되면서, 건축가들은 집의 짓는 일의 최상위 단계에서 여타의 다른 업무를 몰아내려고 했다. 즉, 건축의 정신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장인들의 손을 쓰는 일을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건축교육은 이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신노동으로서의 건축설계에 있어서 발상의 근거, 생각의 전개를 설명하는 훈련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건축가 전문직에게 도면을 그리는 작업만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작업으로 남았다. 도면은 분화된 업무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면서 또한 동시에 건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명령의 수단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도면은 모든 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전문성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스케치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부터 정밀한 도면을 작도하는 방법까지 숙련을 거치는 과정도 건축학교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할 교육과정이었다.

한편 중세 길드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한 문하생 제도가 근대 건축교육의 부족함을 메꾸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대체로 건축학교가 처음에 전일제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기존 건축사사무소에 노동을 제공하면서 각종 실무를 익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문하생 제도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건축학교의 교육과는 달리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무훈련을 담당했다.

86) E.A. Krause(1995). Death of the Guilds: Professions, States, and the Advance of Capitalism, 1930 to the Present, Yale University Press, p.9

① 근대 서양의 건축가 교육

□ 근대 프랑스의 건축교육

프랑스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건축가의 위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문직 교육을 모색하게 된 것은 17세기부터이고⁸⁷⁾, 18세기에 들어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1739년부터 시작된 유명한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자크 프랑수아 블롱델(J. F. Blondes)의 사설 강의와 출판은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1740년 루앙 시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수학, 기하학, 해부학 등의 기초를 가르치는 땃생 학교가 문을 열었으며 이후 10여개의 지방 도시로 확대되었다. 파리에서는 1767년 바슐리에가 기초 교육 수준에서 최초의 공식 기관인 왕립 무상 땃생 학교를 창립했다. 1747년에는 왕립 토목 및 교량 학교(Ecole royale des ponts et chaussées)가, 이듬해에는 메지에르 토목공학자 학교(école du génie de Mézières)가 설립되어 건축 과목을 가르쳤다. 1795년 에콜 폴리테크(Ecole polytechnique, 공학교)의 설립은 공공건설공사 관련 전문분야의 분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건축 교육의 탄생이 전통적 건축교육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1793년에 왕립 건축 학술원은 사라졌으나 자율적 학제로서의 건축 교육은 유지되었으며 1819년 건축 특화 교육을 포함하는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 미술학교)의 설립은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다⁸⁸⁾. 미술을 중심으로 뭉친 건축가들은 양식의 선택이라든지 미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학자들에 의한 건축에 반기를 들고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랑스 건축 교육의 역사 (1671-1969)

- 1671년: 왕립 건축 학술원 설립
- 1702년: 첫 번째 로마상(Grand prix de Rome) 공모전
- 1720년: 토목 및 교량 단체의 결성
- 1730년: 학술원에서 주단위 건축 강좌의 시작
- 1746년: 학술원에서 정식 학생의 지위가 만들어짐
- 1747년: 왕립 토목 및 교량 학교의 설립
- 1748년: 왕립 메지에르 공학 학교(Ecole royale du génie à Mézières)의 설립

87) 이하 프랑스 건축가 건축교육의 인물과 연도는 주로 아래 문헌을 참고함. F. Champy, C. Heitz, R. Martin, R. Moulin, and D. Rabreau(2013). ARCHITECTURE Thèmes généraux - L'architecte, in Encyclopædia Universalis France, version électroniqu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a/architecture-themes-generaux-l-architecte/> last accessed:2015-06-25

88) F. Champy(2001). Sociologie de l'architecture, éd. la découverte, pp.31-32

1794년: 국립 공공사업(travaux publics) 학교의 설립
 1806년: 제국 건축 학교의 설립
 1819년: 국립고등 보자르학교(ENSBA)가 제국건축학교를 대체함.
 1863년: 건축가 비올레-르뒝(Viollet-le-Duc)의 영향으로 국립고등보자르학교의 개혁이 시도됨. 새로운 경향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수 선출 제도(cooptation: 현직 교수에 의한 신임 교수의 총원 방식)를 개혁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
 1865년: 중앙 건축 학교 (Ecole centrale d'architecture, 현 Ecole spéciale d'architecture의 전신)가 비올레-르뒝의 기획을 기반으로 설립됨
 1867년: 국립고등보자르학교가 건축학위(diplôme d'architecture)를 만듦
 1874년: 법령에 의해 건축학위가 공신력을 얻음
 1903년: 지방 건축 교육의 조직
 1922년: 국립고등장식예술학교(ENSAD)의 건축가 학위가 만들어짐
 1924년: 건축가 자격 보호를 위한 법이 가결되었으나 그 내용 정의에 대해 건축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용되지 못함
 1931년: 국립고등장식예술학교의 학위가 공교육부에 의해 발부되었고 국립고등 보자르학교와의 경쟁이 심화됨
 1933-38년: 건축가 자격 보호를 위한 일련의 법제정 기획들이 있었으나 건축계의 합의를 얻지 못해 계속 실패
 1940년 12월 31일: 건축가 자격의 소지를 법제화하고 건축업에의 진입을 감시하는 건축가 등록원을 설립하는 오토코르 법(loi Hauteceur) 제정. 건축 실무 수행 자체는 법제화되지 못함.
 1950년: 스트라스부르그 국립 고등 예술 및 산업 학교의 건축과가 공인됨.
 1962년: 문화부 건축 국장 막스 케리앙(Max Querrien)의 복수의 국립 건축학교 설립 프로젝트가 좌초됨.
 1969년: 로마상의 완전히 폐지됨. 보자르 학교의 건축과(section architecture)가 18개의 건축 교육 단위 (unités pédagogiques d'architecture)로 대체되었고 교육 내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음⁸⁹⁾

• 에콜 데 보자르 (Ecole des beaux-arts, 미술학교)

1819년에 시작된 보자르 교육의 특징은 카리스마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교육은 선생에서 제자에게로, 선배에서 후배에게로 이론적, 실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들이 암암리에 전수되는 방식에 기반을 두었다. ‘아뜰리에’는 이 교육 체계의 핵심구조였으며 이어져 내려오던 관습에 따라 유지되었다. 따라서 보자르 교육에서 이론 수업은 매우 드물었으며 수강도 저조했다. 또 기술관련 수업은 근대적인 건설산업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했다. 더구나 건축은 도시계획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을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와

89) F. Champy(2001). Sociologie de l'architecture, éd. la découverte, p.33

학 등과도 단절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성 부족은 보자르 교육의 최대 약점이었다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까지 보자르 학교의 교육체계는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떨쳤다⁹¹⁾. 쥘리앙 가데(Julien Guadet)의 강의이자 저서인 『건축의 요소와 이론(Eléments et théorie de l'architecture)』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블로 통했다.

에콜 데 보자르에서 학생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자격증을 겸한 졸업장이다. 보자르 학교는 개혁의 일환으로 1867년에 ‘건축가 자격증(diplôme d'architecte)’을 만들었고 1968년까지 발부했다. 다른 하나는 ‘로마상(prix de Rome)’인데, 보자르 교육의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다. 로마상은 학생들에게 4년 혹은 5년 동안의 이탈리아 유학 기회를 주었고, 유학 이후에는 정부 건축가로 고용했다. 19세기 보자르 교육이 본연의 학위에 대한 책임 대신 로마상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간다는 비판이 일어날 정도로 로마상은 중요한 유인책이었고 이로 인한 경쟁교육의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자르 교육은 자발적인 혁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1968년 혁명 기간 동안 국립고등보자르학교는 극렬한 시위 장소이자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1968년 이후 파리에 여덟 개의 건축학교(unités pédaogiques)가, 지방에는 13개의 건축학교가 설립됐고, 운영과 교육의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그 이후 학생 수가 크게 늘었고, 담론이 그리기를 대체했으며,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모색되었다.

□ 근대 영국의 건축교육

영국의 근대적 건축교육 형성과정의 특징은 건축교육의 형태와 방향을 둘러싼 거대한 논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보자르 교육이 강력한 국가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영국의 건축교육은 관습과 시스템, 예술과 사업 등 건축가 전문직 형성의 중요한 이슈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영국에서 건축은 유적답사, 드로잉과 측량, 복원설계 등에 의해 습득되어 왔다. 18세기에 성립한 문하생제도(Pupillage)는 유일하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한 교육의 방식으로 인식되었다⁹²⁾. 보통 15세나 16세에 수습을 시작하는 견습생들은 5-6년 내의

90) F. Champy(2001). *ibid.*, p.33

91) 프랑스 보자르 교육이 영국과 미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M. Crinson, J. Lubbock(1994). *Architecture, Art or Profession?: Three Hundred Years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77-84 참조

의 기간 동안 건축가의 작업과 예술에 대해 배웠다. 그것은 도면작성, 측량, 대지조사로부터 사무실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것들이었으나 질적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제도의 전통은 건축이 학교를 통해 가르쳐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성향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1840년대부터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UCL)에 건축 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여기서는 완벽한 직업훈련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견습생들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841년에 부임한 T. L. Donaldson은 파트타임 건축과정을 개설하여 건축교육의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교과과정이 ‘예술로서의 건축’과 ‘과학으로서의 건축’으로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⁹³⁾. 그러나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디자인을 교육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건축가 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AA 건축학교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정부 주도의 성격이 강했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의 근대적 건축교육은 견습생들에 의한 자발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1847년 건축제도사들의 모임에서 디자인 학교를 연 것을 AA의 시초로 본다⁹⁴⁾. 디자인 교육의 강조는 로열 아카데미(Royal Academy)나 문하생제도가 방관했던 영역에 대한 자구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견습생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수업의 주제를 준비했고 다른 학생과 돌아가며 서로 크리틱을 했다. 여기에 교수는 필요치 않았다. 이후 모델링, 수채화, 조각 등에 이어 1869년에는 기초디자인 과정이 추가되었다. AA는 문하생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으며,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험제도와 졸업장 제정운동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887년 RIBA의 결정에 의해 3단계의 자격시험이 등장했다⁹⁵⁾. AA를 비롯한 많은 건축학교들은 1890년대 초기에 이 시험에 대비하여 교과과정을 정비했다. 리버풀 대학(Liverpool University)은 1895년에 처음으로 풀타임 코스를 개설했다⁹⁶⁾. 1900년대 초에 RIBA는 조건에 맞는 학교의 학생들이 일정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 인증제를 창

92) M. Crinson, J. Lubbock(1994). Architecture, Art or Profession?: Three Hundred Years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44-48

93) M. Crinson, J. Lubbock(1994). *ibid.*, p.49

94) aa school의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고. <http://www.aaschool.ac.uk/AASCHOOL/LIBRARY/aahistory.php> last accessed:2015-07-21

95) RIBA의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고. <https://www.architecture.com/RIBA/Aboutus/Whoweare/Ourhistory.aspx> last accessed:2015-07-21

96) M. Crinson, J. Lubbock(1994). *ibid.*, p.60

안했다. 1902년에 AA와 리버풀 대학은 3단계 중 두 번째 시험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1930년대에 비로소 건축사 등록법이 통과되었다. 교육으로부터 자격에 이르는 긴 제도화의 과정을 일단락 한 것이다.

□ 근대 미국의 건축교육

미국의 건축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프랑스의 보자르 교육이다. 1846년부터 1968년까지 5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파리의 아틀리에에 근무하면서 에콜 데 보자르에서 교육을 받았다⁹⁷⁾.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미국 교육에서 보자르 시스템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1893년에 프랑스 기준이 미국 학교에 보급되었고, 1903년에 보자르 협회(Beaux Arts Society)는 프랑스의 로마상을 본떠 파리상(Paris Prize)를 제정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Paul Cret처럼 파리에서 보자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현장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의 건축이론이 직접적으로 유입되기도 했다⁹⁸⁾. 미국 대학의 건축학과는 1860년에 MIT, 1867년에 일리노이대학, 1868년 코넬대학 등 1860년대에 처음 설립되었다.

[표 3-6] 미국대학에서의 초기 건축학과 설립현황

시기	대학	교육목표	교육내용
1860년	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인, 전문인, 건축가 교육 포괄적 지식인으로서의 건축가 	독일의 기술 대학을 모델 건축 교육 프로그램 개설 구조와 재료, 역사와 이론수업이 필수 교양교육을 중시하고 인문학, 미학교육을 강조
1867년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일정한 수준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교육 	1~2학년: 건물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 즉 수학, 과학, 위생설비, 구조계산, 대량과 시공 방법 4학년: 디자인 스튜디오, 시공도면
1868년	코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자나 마스터 빌더로서의 건축가 양성을 목표 	1학년: 교양 위주 교육 2학년: 재료 냉난방, 시공기술 3학년: 디자인 스튜디오 교육 시작

* 최태숙(2006). p.112 참조

97) M. Crinson, J. Lubbock(1994). ibid., p.78

98) S.B. Dostoglu(1982). Towards Professional Legitimacy And Power: An Inquiry into the Struggle, Achievements and Dilemmas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cago 1871-190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17

□ 근대 독일의 건축교육

독일에서 건축가 제도교육의 기원은 건설 수공업자를 위한 실무교육기관인 기술학교와 1799년에 설립된 건설공무원을 배출하는 베를린 건축아카데미였다. 1899년부터 베를린 건축아카데미(Bauakademie)에서는 졸업생에게 졸업장(diplom)을 수여하고, 대신에 그 당시까지 건축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자격이었던 국가인증시험을 폐지하였다⁹⁹⁾. 이로써 자유전문직 건축가 교육이 건설관료 양성과정과 공식적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건축아카데미의 건설감리사 과정이나 기술학원의 졸업생들은 별도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건설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또 1880년대부터는 점차 전통적 수련과정을 마친 단순수공업자가 제도권 교육을 받은 고등 엔지니어 또는 기술자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1890년부터 제1차 대전 이전까지 기존 마이스터와 대서사 교육이 3년 반의 기술중학교(Mittelschule)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이들에게는 공학대학에서 제공하는 연수교육을 통해서 전문 엔지니어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¹⁰⁰⁾

1900년대 독일에서 공학대학 건축과 졸업생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인정과 직업활동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려웠다. 한편 고용직 건축가들은 산업 시설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에 관한 설계가 주를 이루는 등 교육과 현장의 괴리도 컸다¹⁰¹⁾.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킨 바우하우스의 설립은 실제로 건축가 전문직의 확립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¹⁰²⁾.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바이마르에서 설립한 바우하우스는 중세의 워크숍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길드 정신을 추구했다. 그로피우스는 모든 시각 예술의 궁극적 목표로서 건축물의 완성을 표방했지만 정작 정규 건축과정이 개설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20년에 이텐(Itten)에 의해 적용된 ‘예비과정(Vorkurs)’은 학생들의 왜곡된 지식이나 선입견을 지우는 작업으로서 호평을 얻기도 했지만 이론이나 역사와 같은 체계적 지식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바우하우스에

99) Stefan Amt(2001). Von Vitruv bis zur Moderne – die Entwicklung des Architektenberufes, p.24, http://www.bhb-hannover.de/schriften/in_Druck_Entwicklung_Architektenberuf.pdf last accessed:2015-10-29

100) Tobias Sander(2009). Die doppelte Defensive: Soziale Lage, Mentalitäten und Politik der Ingenieure in Deutschland 1890-1933,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40-41

101) Burkhard Dietz(1996). “Technik und Kultur” zwischen Kaiserreich und Nationalsozialismus: Über das sozio-kulturelle Profil der “Zeitschrift des Verbandes Deutscher Diplom-Ingenieure” (1910-1941), in: Burkhard Dietz, Michael Fessner, Helmut Maier (eds.), Technische Intelligenz und “Kulturfaktor Technik”: Kulturvorstellungen von Technikern und Ingenieuren zwischen Kaiserreich und früh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ster, Waxmann Publishing Co., p.131

102) M. Crinson, J. Lubbock(1994). *ibid.*, pp.91-95

[표 3-7] 근대 독일의 건축 제도교육기관의 변천

기관명	특 징 ¹⁰³⁾	설립년도 ¹⁰⁴⁾ (지역) *인원
건축기술학원 (Baugewerkschule, Baugewerbeschule, Bauschule)	·건설기능공으로서의 직업훈련을 마친 자를 대상 ·현장책임자나 건설 자영업자 또는 중급기술공무원 양성 목적 ·건축가, 건설기능공 마이스터가 설립한 사립교육기 관이었으나 후에 대다수가 공립으로 전환 ·2학기에서 5학기제로 연장, 소규모 주택 또는 상업 건물의 설계와 시공 교육 ·이후 종합기술학교(polytechnische Schule) 전환 ·1940년대 국립건축학교(Staatsbauschule) 전환 ·1970년대 실습학기를 포함한 8학기제 전문대학 (Fachhochschule)로 전환	1812-1840 (14개교) 1913 (67개교) 1929 (58개교) *기관별 연간 70명 배출 (제2차대전 이전까지 졸업 후 지역의 주택, 상업건 축물의 건축가로서 활 동)
종합기술학교 (Polytechnische Schule)	·기존의 건축기술학원(Bauschule)와 토목기술학원 (Ingenieurschule)을 통합한 국립교육기관 ·졸업자격시험으로 기술공무원 자격부여 ·산업기술 교육에 중점 ·1877-85년 사이 공학대학(Technische Hochschule)로 으로 전환	1825 (Karlsruhe) 1837 (Hannover) 1851 (Dresden) 1870 (Aachen) 등
미술 아카데미 (Kunstakademie)	·건축제도사 교육에서 출발 ·소수에 제한됨 ·미술대학(Kunsthochschule), 공대 등으로 전환	1662 (Nürnberg) 1761 (Stuttgart) 1767 (Hamburg) 1808 (München) *현재 4개교에서 건축과정
베를린 왕립 건축아카데미 (Königliche Bauakademie zu Berlin)	·1899년까지 건설관청에 소속되어 공공의 또는 민간 건설을 감독하는 공무원 양성기관 ·1975년부터 4년제 교육 ·1899년 학위제를 도입, 감리사와 건설마이스터 자격 시험 폐지 ·관청으로부터 분리되어 베를린 공학대학에 통합	1799
공학대학 (Technische Universität, Technische Hochschule)	·건설수공업자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Technische Schule)에서 출발 ·공무원 양성 목적, 이론 중심 교육 ·4년제 교육 ·1899년부터 석사(Diplom) 및 박사학위 수여 기관으 로 인정	1862 (Braunschweig) 1890 (Dresden) 1897 (Hannover) 1891 (Berlin) 1899 (Aachen) (Darmstadt) *1887년 당시 총 9개교, 그 중 5개교 건축과 총 학생 수 191명 (토목과 208명) *1945년 이후 7개교 건축 과 신설

103) Wolfdietrich Kalusche(2005). Zur Geschichte der Ausbildung von Architekten, p.13

104)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URL: <http://www.adbk.mhn.de>, <http://www.adbk.nuernberg.de/>, <http://w>

건축 부문이 생겨난 것은 1927년 한스 마이어(Hannes Meyer)가 부임하면서부터이고, 그는 건축의 문제를 집합주거, 표준화와 계획, 빛·열·음향의 고려 등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사회·경제·심리 등 사회적 문제와 결부시켰으나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양성될 수 없었다. 1933년에 나치에 의해 바우하우스의 실험은 문을 닫게 되었다.

바우하우스, 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등의 실패 이후, 이론에 치우친 교육에 반발하여 한편에서는 토목, 자재, 시공 절차와 같은 실무지식을 포함하는 건축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뮌헨공대에서는 1930년대에 들어서 건축양식에 대한 교육을 대신하여 구조역학과 건설경제학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¹⁰⁵⁾.

ww.abk-stuttgart.de, <http://www.hfbk-hamburg.de>, last accessed: 2015-11-17

105) Burkhard Dietz(1996). *ibid.*, p.131

② 근대 동아시아의 건축가 교육

□ 일본 건축교육의 발생

일본에서 근대식 건축교육은 정부기구인 공학성(工部省)의 설치로 시작되었다¹⁰⁶⁾. 1870년 외국인 고문인 모렐(E. Morel)의 건의로 야마오 요조(山尾庸三)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설립한 공학성에는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1871년 8월 14일에 일등료(一等寮)로서 공학, 권공(勸工), 광산(鑛山), 철도(鐵道)의 4료를 설치했고, 그 중 공학료가 필수였다. 이와 함께 야마오는 학교설립사업을 시작했다. 1873년 6월 미국인 헨리 다이어(Dyer Henry)를 초빙하여 같은 해 7월 30일 다이어를 도검(都檢: 일종의 교장)으로 하는 공학료 소속 공학교를 개설했다. 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예과학(予科学), 전문학(專門学), 실지학(實地学)의 순으로 2년씩 이수하도록 했다. 1877년 1월에 료를 국(局)으로 개편하면서 공학료는 이등료에 속했던 제작료(製作寮)와 합쳐져 공작국이 되었다. 이때 공학료 공학교는 공부대학교가 되었다.

일본에서 영선업무는 1874년을 기점으로 대장성(大藏省)에서 공부성(工部省)으로 이관되었으며 공부대학교 조가학과에 외국인 교수 조사이어 콘도르(Josiah Conder)가 부임한 것은 같은 해 2월이다. 1882년 8월 19일에 공부대학교는 오토리를 초대 교장으로 하여 공부성 본성의 직할이 되었다. 이후 1885년 12월 22일 공부성의 폐지에 따라 문부성(文部省)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조가학회가 건축학회로 개명되는 1890년대 쯤부터 일본 건축교육은 프랑스의 보자르 색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모든 기술은 부국강병과 식민지 산업부흥이라는 국가차원의 방침에 봉사해야 했고, 보자르 색채를 띤 건축은 그러한 의장요소가 국가의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축설계와 역사이론 분야가 전체 건축계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보자르 교육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건축교육은 점차 공학화에 치중하게 되었다. 공학 아카데미즘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은 사노 리큐(佐野利器)로 메이지 말에서 다이쇼 시대에 활약하였다. 일본 건축교육의 공학화의 결정적 계기는 관동대지진이었다. 이후 전문직건축가와 아카데미즘에 의한 건축기술자와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1914년 건축가들이 독립된 직능

106) 일본 건축교육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学発達史』, 丸善書店

단체인 ‘전국건축사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그 대립은 점점 깊어졌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대학에서 건축교육을 수료한 졸업생들의 다수는 관공서 영선직에 진출했다. 도쿄대나 교토대의 건축과 졸업생의 30% 이상이 관공서에 자리를 잡았고, 뒤를 이어 청부기업의 구성원이 되거나 교육기관에서 취업하는 비중이 높았다¹⁰⁷⁾.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이 되거나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0% 내외로 파악된다. 국가주도의 군국주의 사회체제에서 건축의 민간영역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8] 제국주의 시대 일본 건축교육 수료생의 진로 (%)

	관공서 영선직	청부기업 구성원	교육기관 구성원	건축감독 관청	거대기업 영선과	건축사무 소 직원	건축사무 소 운영	공무소 등 자영
도쿄대 東京大	32.4	15.6	11.7	5.8	6.7	3.8	8.4	1.3
교토대 京都大	35.0	16.7	8.5	7.9	10.7	7.3	1.7	0.6
코베고공 神戸高工	29.6	23.9	3.7	5.6	7.9	10.4	0	3.7

* 西山卯三(1937), pp.520-527 참조

□ 근대 중국의 건축교육

중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건축교육은 20세기에 들어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¹⁰⁸⁾. 1902년 「흙정학당장정(欽定學堂章程)」과 1903년 「주정학당장정(奏定學堂章程)」에는 토목공학과 건축과목이 포함되었으며 일본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이었다. 1912년 국민정부교육부가 반포한 「대학장정(大學章程)」에도 토목공학과 건축학이 포함되었다. 1922년에 반포된 새로운 학제인 ‘임술(壬戌)학제’에서는 일률적으로 예과를 취소하고, 전문학교의 연한은 3년 이상, 대학의 연한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하였다¹⁰⁹⁾. 쑤저우 공전(蘇州工專)은 신학제가 공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과를 설치하고 학제는 3년으로 정했다. 보다 발전된 형태의 건축교육은 1920년대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건축학교를 정비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107) 西山卯三(1937). 「我國建築家の將來に就いて」, 『建築雜誌』 51 (625), 1937-04, pp.520-524

108)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pp.320-323

109) 钱锋(2005). 『现代建筑教育在中国 1920-1980』, 同济大学博士学位论文, p.27

- 쑤저우 공업전문학교(苏州工业专门学校)

1923년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건축사 류스잉(刘士英), 류둔젠(刘敦楨) 등은 상하이에 중국인 최초의 건축사무소인 화하이(华海) 건축사무소를 설립한 이후 쑤저우 공업전문학교에 건축과를 만들었다¹¹⁰⁾. 교과과정은 공업기술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법, 측량, 건축역학, 서양건축사와 미술 등의 과목이 있었다. 1927년 6월에 난징의 제4중산대학으로 병합되고 건축계(학과)가 설치되었다. 계주임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류푸타이(刘福泰)가 맡았고, 학제는 4년이었으며, 예술과 기술을 모두 중시하는 학풍을 만들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는 공·상업 발달지역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학당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은 실무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실업교육을 중시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교육체제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교수들 대부분은 일본 유학생들이었고, 당시 표준교육체계 또한 일본의 것을 참고했기 때문이다¹¹¹⁾. 그러므로 도쿄고등공업학교(東京高等工業學校) 건축과의 교육방식이 쑤저우공전 건축과의 운영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고등공업학교 건축과의 설립목적은 건축과정에서의 기술자와 조수, 건설현장 사무원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는데, 쑤저우 공업전문학교 또한 건축공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즉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공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영향관계를 파악해볼 수 있다¹¹²⁾.

- 중앙대학 건축계(中央大学 建筑係)

1927년 7월 ‘대학구(大学区)’ 제도가 시행되면서 쑤저우 공전과 동난대학(东南大学) 등 8개 학교가 병합되어 제4중산대학이 되었고 1928년 5월 국립중앙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¹¹³⁾. 초기의 교수들은 배경이 모두 달랐지만 대규모의 교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예술과 고전미학의 훈련을 중시하는 아카데미한 풍토가 강조되었다. 학원식 교학사상이 확립되면서 중앙대학의 지위가 상승했고 점차 톈베이대학(东北大学) 건축계를 넘어서는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었다¹¹⁴⁾. 동시에 당시 중국의 주류 건축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일련의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서 건축교육 영역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110) 쑤저우공업전과학교는 1911년에 설립된 관립중등공업학당(官立中等工业学堂)을 모체로 한다. <https://zh.wikipedia.org/wiki/苏州工业专科学校> last accessed:2015-11-15

111) 钱锋(2005). 『现代建筑教育在中国 1920-1980』, 同济大学博士学位论文, p.30

112) 徐苏斌(1991). 『比较·交往·启示 -中日近现代建筑史之研究』, 天津大学建筑系博士学位论文, p.107

113) 중앙대학의 연혁은 동난대학건축학원(东南大学建筑学院)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arch.seu.edu.cn/dir.php?did=1&id=9> last accessed:2015-11-15

114) 钱锋·伍江(2008). 『中国现代建筑教育史, 1920-1980』, 中国建筑工业出版社, p.70

1928년의 중앙대학 건축공정계의 교과과정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공 기초 과목들 이외에 설계와 미술에 관련된 과목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시공과 관련된 과목은 크게 감소했다. 또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한 교수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유럽과 미국 아카데미즘의 영향이 강화되었다¹¹⁵⁾. 특히 1933년 후의 중앙대학 건축계는 예술적 표현과 건축물의 설계를 중요시 여긴 것에 비해 기술과 훈련을 경시하는 풍토가 더 강해졌다¹¹⁶⁾.

- 동베이대학 공학원 건축계(东北大学 工学院 建筑系)

1928년 동베이대학(东北大学) 공학원 건축계에는 량쓰칭(梁思成)과 린후이인(林徽音)이 교편을 잡고 있었고, 학제는 4년이었다. 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천즈(陈植), 퉁쥔(童 雋), 차이팡인(蔡方荫)이 잇따라 부임하여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베이대학 건축계는 건축가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건축예술과 설계과목이 구조와 시공 과목보다 많이 배정되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에, 동베이공학원 건축계가 설립되었고, 1956년 쑤난공업전문학교(苏南工业专科学校) 건축학과, 칭다오 공학원(青岛工学院), 시베이 공학원(西北工学院)의 토건계와 합병하여 시안건축공정학원(西安建筑工程学院)이 되었으며, 1963년에 시안예진건축학원(西安冶金建筑学院)으로 개명하였다¹¹⁷⁾.

2) 근대 한국의 건축가 교육

한국에서 대한제국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위 신교육은 척사적 풍토 속에서 침략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도입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¹¹⁸⁾ 대한제국은 일본과 청나라에 연수단을 파견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한편, 해외유학을 장려하는 등 전방위로 신학문 습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1899년에 설립된 상공학교에서는 예과 1년, 본과 3년 과정으로 상과와 공과가 개설되었고, 기초 수준에서 건축교육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4년 농상공학교로 개편된 이후, 공과는 1907년에 명칭을 ‘공업전습소’로 바꾸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건축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115) 赖德端(2007). 「学科的外来移植中国近代建筑人才的出现和建筑教育的发展」, 『中国近代建筑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pp.154-155

116) 钱锋 伍江(2008). 『中国现代建筑教育史, 1920-1980』, 中国建筑工业出版社, p.73

117) 동베이대학 건축계의 연혁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 <http://baike.baidu.com/view/8053622.htm> last accessed:2015-11-15

118) 윤건차(1987).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 p.111

① 근대 한국의 건축교육기관

□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 : 1907

한국 최초의 근대 건축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업전습소는 을사조약으로 탄생한 통감부의 관할기관으로서 1907년 3월에 일본인 노다(野田忠藏)를 초대소장으로 하여 개소하였고, 그해 4월 제1기 생도 74명이 입학했다¹¹⁹⁾. 전공은 목공과, 토목과, 염직과, 도기과, 금공과, 응용화학과 6과가 운영되었다. 공업전습소의 교육수준은 일본의 보통공업학교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최고급 건축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축은 별도의 과가 없이 목공과에서 교육했다. 목공과는 조가, 가구, 차량 등을 교육했는데, 1909년 3월의 첫 졸업생은 김원식, 이기홍, 이종승, 이원목, 이기덕, 박한신 등이 알려져 있다¹²⁰⁾.

[표 3-9] 식민지 조선의 전문학교 학생구성 (1935년 5월)

학교별		학생수			백분율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전문 학교	경성법학전문	143	48	189	44.6%	25.39%
	경성의학전문	76	256	332	22.9%	77.10%
	경성고등공업	49	147	196	25.39%	75.00%
	수원고등농업	49	144	193	25.39%	74.61%
	대구의학전문	79	194	273	28.74%	71.06%
	평양의학전문	120	174	294	40.81%	59.18%
	경성치과의학	100	369	469	21.33%	78.67%
	경성약학전문	81	199	280	28.93%	71.07%

* 출처 :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2』, 거름, p.128

□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 : 1914/1922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1914년 「전문학교규칙」을 제정한 후 1916년 총독부 관립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¹²¹⁾. 이에 따라 공업전습소는 특수 기술교육 담당 부속기관이 되었으며, 종래의 기술교육은 경성공업전문학교가 담당하게 되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1922년 학제 개편에 따라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된다. 공

119) 공업전습소의 연혁은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한국건축가협회(1994).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p. 429

120)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429

121)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연혁은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430

업 이외에도 법학, 의학, 농업, 약학 등을 교육했던 식민지 조선의 전문학교의 학생은 일본인의 비중이 높았고 조선인은 20%대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다. 1935년 경성고등공업학교의 학생구성비를 보면 약 25%가 조선인으로 구성된 모습이다.

1916년에 공포된 ‘경성공업전문학교 규정’에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설립목적으로는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켜 공업의 진보발달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함을 본래 취지로 하고 부속한 공업전습소에서 공업에 종사할 도제를 양성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에 대하여 ‘교수는 한갓 고위한 학리에 흐르지 말고 간명을 본래 취지로 하고 실제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기능의 습득에 보람 있는 실습을 숭상하고 실험을 중시하여 응용,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학생의 수양에서 ‘경영은 단지 종래의 경험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학리에 바탕을 두고 실제에 적용시키도록 힘쓰며, 정확한, 나날이 새로운 과학을 기초로 실지에 활용할만한 기술을 연마하여 국가산업을 진흥, 발달시키는데 뜻을 두자.’고 했다. 즉, 매우 실용적이면서 신속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인력양성기관임을 천명하고 있었다.

[표 3-10] 경성고공 건축과 학생 구성(일부발췌)

교명	한인	일인	총원	비율(%)	졸업년도	비고
경성고공	2	5	7	29/71	1919	경성공업전문학교2회
	1	11	12	8/92	1925	경성고등공업학교
	1	11	12	8/92	1929	상동
	1	12	13	7/93	1932	상동
	3	9	12	25/75	1937	상동
	4	9	13	30/70	1938	상동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건축과, 토목과, 염색과, 요업과, 응용화학과의 5개과로 구성되었으며, 개교 당시 건축과의 학생수는 7명이었다. 이후 매해 12-13인으로 안정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조선인의 비중은 대단히 낮았다. 1945년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의 수가 60명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해마다 평균 2명 남짓의 조선인 건축전문인이 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성공업전문학교의 학제는 3년제로서 건축과, 토목과, 염색과, 요업과, 응용화학과 5개 학과로 구성되었고, 1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교양과목을 이수케 하고, 2학년은 제도가 제일 많았고 건축법, 건축구조에 대한 내용이 강의되었으며, 3학년은 졸업설계를 위주로 하였다. 즉, 경성고공의 교육적 특징은 아카데미즘이 결여된 기술교육중심의 건축전문기관이었으며, 관청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¹²²⁾

[표 3-11] 경성고등공업학교 개편당시 교과과정

각과공통	修身1-1-1, 일본어3-0-0, 영어3-3-3, 수학5-0-0(단 응용화학과 3-0-0), 공업법령0-0-1(단 공산학과제외), 기계학0-3-0(단 건축과제외), 전기공학0-0-2(단 건축과제외), 공업경제0-0-1, 체조1-1-1
건축과	건축목재1-0-0, 응용역학1-2-0, 건축구조3-0-0, 철근콘크리트 철골 0-2-0, 규구법0-1-0, 건축사3-0-1, 위생건축0-0-1, 특수건축0-2-0, 건축장식법0-1-0, 시공법0-0-1, 측량학2-0-0, 자제화3-3-0, 제도 및 실습10-22-30(단 數字 1학년-2학년-3학년)

*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8-9

교수진은 주로 일본인으로, 연수 등의 개념으로 교직생활을 하는 일본 청년건축가나 총독부에서 파견 온 관리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경성고등공업학교에 부임한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노무라 다카후미(野村孝文), 가사이 시게오(葛西重男) 등이 동경제국대학 출신이었으며, 시간강사도 대부분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던 일본 출신 기사들이었다.

□ 기타 공업학교의 상황

- 경성공업학교(京城工業學校) : 1924

경성공업학교는 고등공업학교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공업학교로 1924년 개설하였으며 경성고공의 개교로 위상을 격하시킨 공업전습소를 모태로 한다¹²³⁾. 조가과(造家科), 기계과(機械科), 염직과(染織科), 화학제품과(化學製品科), 제약과(製藥科) 등 5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과 교수진 모두 일본인이 우세하였고, 광복 후 서울공고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122) 심상호(1992). 「20세기 전반기 한국 건축교육에 대한 실증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v.1, n.1, p.32

123) 경성공업학교의 연혁은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431

[표 3-12] 경성공업학교의 학과 및 학생 구성

종류	학생수	조선인	일본인
조가과	44	3	41
기계과	45	3	42
염직과	40	27	13
화학제품과	31	3	28
제약과	16	4	12
계	176	40	136

* 출처 : 백관수(1929), 『경성편람』, 홍문사, 경성, p.90; 한국건축가협회(2000:431) 재인용

-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業專門學校) : 1937

1937년 평양에 설립된 민족의 대표적 사학으로서, 관학이 주로 조선 내 일본인 교육에 힘쓴 반면, 민족사학은 조선인들의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었다¹²⁴⁾. 경성고공에 비해 교직원 및 학생의 구성이 주로 조선인으로 이루어졌지만, 당시 건축 산업의 활성화 및 교육의 중심이 경성(서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운영 및 교육이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표 3-13] 일제말의 관공사립 전문학교 상황(한국인/일본인)

교명	개교	학급수	교직원	학생수	해당년도	비고
경성고등공업	1922	22	(9/55)	(80/425)	1942	관립
		23	(9/52)	(68/475)	1943	관립
대동공업전문	1937	3	(14/7)	(195/35)	1942	사립
		3	(13/4)	(125/28)	1943	사립

- 동아공과학원(東亞工科學院) : 1939

동아공과학원은 1939년 개교하여 동아고등공과학원(1941), 동아고등공과학교(1943)으로 개칭했다¹²⁵⁾. 광복 전 많은 건축 관련 조선인 기술자를 양성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규모가 더욱 커져서 한양공업학교(한양공고)가 되었고, 이는 현재의 한양대학교의 전신이다. 기타 당시 사학으로는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서 선택 전공으로 건축 전공분야가 있었고, 소화고공, 경기공업 등에도 건축과가 있었다.

124) 대동공업전문학교의 연혁은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431

125) 동아공과학원의 연혁은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431

[표 3-14] 기타 공업학교 건축과 학생 구성(서울지역)

교명	한인	일인	총원	비율(%)	졸업연도
경성공업	2	12	14	14/86	1937
소화고공	5	31	36	13/87	1937
경기공업	13	2	15	86/14	1937

□ 일제 강점기의 해외 유학

일제 강점기 유학의 대상지는 대부분 일본이었으며 일본에는 당시 조선에는 없던 4년제 대학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경대학, 동경공업대학, 와세다대학, 일본대학, 교토대학 등에서 주로 건축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의 해외 유학이 확대되었다.

② 초기 한국인 건축가의 진로와 활동

□ 고등 건축교육 수료자의 진로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인들이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최고의 기술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은 대체로 정부의 관료로서 건축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초기의 관청 건축직들은 일본인들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건축 및 토목 직원을 채용했는데, 기사 7명, 기수 90명에 달했으며, 건축직은 총독부 회계국 영선과에, 토목기술자들은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토목국 또는 토목출장소에 속했다.¹²⁶⁾ 1919년 박길룡의 총독부근무로 시작되는 한국인 건축가들의 관공서 진출은 이후 1920년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증가했다. 건축의 민간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업무가 많은 곳이 관공서였기 때문이다¹²⁷⁾.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건축과 토목이 관의 조직에서 항상 같이 따라 다니며, 때에 따라서는 건축이 토목의 산하기관으로 편성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건축을 건설의 한 보조수단과 부수적인 영역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태생적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¹²⁸⁾

126) 윤인석(2014). 「조선총독부 치하의 근대건축」,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학회, p.619

127) 김의용(1992). 『1880년~1945년 한국 관 건축조직의 변천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3

[표 3-15] 경성공업학교 졸업생 동정 (1932년 12월)

직종	관청	회사	자영	교원	상공업	상급학 교진학	가사 기타	사망	총계
경성 공업	34.6%	11.5%	5.5%	4.1%	14.7%	2.3%	20.3%	6.9%	100%
	75	25	12	9	32	5	44	15	217

1945년 광복 때까지 경성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배출한 한국인 건축 기술자는 총 59명이며, 이들은 유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여 중견기술자로 활동하였지만, 민간에서 건축설계에 종사한 졸업자는 매우 드물다. 국내 건축계를 선점한 경성고공 출신 들은 관학, 관청으로 진출하였고, 유학파들은 이들에게 밀리어 분산되어 사학이나 개인사 무소(건축설계, 건축시공)로 진출하여 당시 조선의 건축계를 이루고 있었다.¹²⁹⁾

□ 해방 직후의 건축전문가들의 성격

국내에서 유일한 고등 교육기관이었던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의 조선인 교수는 이 균상 1인뿐이었고, 1945년까지 27년간의 조선인 총 졸업자수는 59인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정규대학 건축과 졸업자는 김윤기, 김형걸 등 10여인 정도, 대학 전문부 졸업자는 미국 미 네소타 대학을 졸업한 박인준을 포함하여 약 25인 정도였다. 이중 공직자로는 장연채, 유 상하, 이한철, 김재철, 김희춘, 김정수 등이 있었다.¹³⁰⁾

미군정의 통치는 일제 총독부 8국1방의 기구와 관료집단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작되 었다. 정부기구는 많은 변천이 있었으며 기술부서로서 부흥부, 건설부, 과학기술처와 이에 부수되는 각종연구소 등의 중앙기구와 서울시, 그리고 각 도 기술국의 설치 등으로 많은 기술인의 부서가 증설되어 다수의 건축가가 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¹³¹⁾

128) 윤인석(2014). 「조선총독부 치하의 근대건축」,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 학회, p.620

129) 한국건축가협회(1994). 『한국의 현대건축』, p.431

130)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431

131) 이종호(1992). ibid., p.37

3. 건축가 단체의 성립과 구성원의 결속

1) 서양 건축가 관련단체의 형성

전문직화 과정은 직업인들이 모여 만드는 단체, 전문교육, 관련 자격법, 그것들을 움직이는 윤리 등으로 대변된다. 그중에서도 전문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공식적 직업단체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다¹³²⁾.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화는 고결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들이 먼저 드러나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결성단체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 누가 배제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과 노력은 대외적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이익집단처럼 비춰지지만, 역으로 전문직의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있다¹³³⁾. 각 국의 건축가 단체들은 대체로 19세기 동안 조직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20세기가 되어서야 가능했다.

① 영국 : RIBA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1834)

건축가의 이상이 영국사회에 전파된 것은 17세기 중엽의 일이다. 건축가 개념의 성립 이후 더 이상 건축물의 설계를 장인에 의존하지 않고 건축가를 초빙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니고 존스(Inigo Jones) 등에 의한 건축가 개념의 정립은 건축물의 스타일 개념이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게 하였고, 유럽대륙을 여행한 젊은 사람들이 건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건축학을 지식인층이 갖추어야 할 교양의 일부로 취급하기도 했다¹³⁴⁾. 그러므로 건축주가 직접 건축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양있는 계층에서 세련된 양식으로 자신의 집을 설계하는 일은 매우 비중있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했고 점차 건축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전문직화 과정이 추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망있는 전업 건축가들이 출현했다.

영국에서는 1791년 15명의 유명 건축가들이 최초의 건축가협회인 ‘건축가클럽 (Architects’ Club)’을 창설했다. 이 클럽은 왕립아카데미의 회원들이나 왕립아카데미가 수여

132) K.M. Macdonald(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Sage Publication, 권오훈 역, 전문직의 사회학, 일신사, 1999, p.334

133) M.S. Larson(1979). The Rise of Profess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 p.xii.

134) K.M. Macdonald(1995). ibid., p.334

하는 건축분야 금메달 수상자들, 혹은 로마, 파르마, 볼로냐, 플로렌스, 파리 등지의 아카데미 회원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가 직업 내에서 이해관계가 분분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1834년에 설립된 ‘영국건축가협회(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조차도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건축협회(Architectural Association)’라는 또 다른 단체가 동시대에 번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통합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부터 전문직이 갖고 있는 전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이 문제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¹³⁵⁾

[표 3-16] RIBA의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774	Building Act 건축법 제정	
1834	RIBA 설립	
1837	칙허장 수여, 국가 인준(Awarded Royal Charter)	초기 업무는 수수료, 실무와 실행에 대한 규칙을 공식화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음
1845	수수료 일정하게 규정	
1848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로열 골드 메달(Royal Gold Medal) 도입	
1855	스트리트(George Edward Street)는 건축 전문직의 지위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주장	
1887	1887년 건축사 협회 회원이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	높은 지위의 전문직 중 10%만 RIBA에 소속
	세 단계의 시험 제도 체계화	예비시험, 중간시험, 최종시험제도
1891	Registration Bills 건축사등록법 의회 통과	
1894	첫 RIBA 저널 발간	
1931, 1938	The Architect's Registration Acts 건축사등록법	건축사 전문직 지위 확보
1960년대	지역 조직으로 발전	1966년, 캠브리지에 동부 지역 사무소 첫 개관

* 자료 : RIBA 홈페이지, 최태숙(2006:92;96)

135) K.M. Macdonald(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Sage Publication, 권오훈 역, 전문직의 사회학, 일신사, 1999, p.334.

RIBA(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왕립영국건축가협회)는 1834년 “보통 건축의 일반적인 발전과, 다양한 예술과 과학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¹³⁶⁾ RIBA는 드로잉, 디자인, 감리와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건축가의 작업을 장인의 작업과 구별하고자 애썼다. 이를 위해 요소들을 고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수학과 기하학의 더 높은 수준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독려했다. 디자인은 공예와 건설의 문제와 구분되어 그 자체로 합리화된 절차와 미학적 또는 역사적 이론들의 조건이 되었다¹³⁷⁾.

영국건축사에서 RIBA의 중요성은 시험을 통한 자격제도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1931년 건축사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RIBA는 자체 시험제도를 고안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수습 제도를 거치거나 RIBA의 시험을 치러야 했고, RIBA에 의해 인증된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과정을 이수하거나, RIBA에 의해 인증된 자체 시험을 가진 5년제 학교에 출석해야만 했다¹³⁸⁾. RIBA의 영향력 있는 멤버들과 AA나 University College 같은 새로운 건축교육기관 사이에는 친밀한 유대가 있었고, RIBA는 1850년대 중반부터 시험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곧 AA에서 그 주제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¹³⁹⁾.

② 미국 :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1857)

미국건축가협회(AIA)는 1857년, A. J. Davis, Thomas U. Walter, and Calvert Vaux을 포함한 13명의 건축가를 중심으로 건축가들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업무를 돕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다.¹⁴⁰⁾ 1866년에는 설계업무의 대가기준을 작성하고 건축가의 정의와 업무에 대한 합의 형성에 힘을 썼다. 그 결과, 1870년에 건축가의 업무로 건물에 대한 계획, 감독, 경쟁 심사를 포함한다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136) “the general advancement of Civil Architecture, and for promoting and facilitating the acquirement of the knowledge of the various arts and sciences connected therewith” RIBA 홈페이지 참조. <https://www.rba.org.uk/about-us/history> last accessed:2015-11-25

137) M. Crinson, J. Lubbock(1994). Architecture, Art or Profession?: Three Hundred Years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42

138) M. Crinson, J. Lubbock(1994). *ibid.*, p.87

139) M. Crinson, J. Lubbock(1994). *ibid.*, p.56

140) AIA 홈페이지, History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ttp://www.aia.org/about/history/AIAB028819> last accessed:2015-11-25

[표 3-17] 미국 건축가협회 AIA의 연혁

연도	내 용
18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A설립 • 13명의 건축가가 설립(같은 해 2차 회의에 추가 인원 16명 포함하여 총 29명의 회원들로 시작) • H. W. Cleaveland, Henry Dudley, Leopold Eidlitz, Edward Gardiner, Richard Morris Hunt, J. Wrey Mould, Fred A. Petersen, J. M. Priest, John Welch, and Joseph C. Wells, Upjohn's son Richard and son-in-law Charles Babcock + masons, carpenters, bricklayers과 기타 건축업 종사자들
1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문서인 요금 스케줄이 채택됨 • 누가 건축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의하는데 기여
1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에서 첫 컨벤션 개최
1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설계에 대한 계획(Planning), 감시, 경쟁 심사를 포함한 문서
1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A(Western Association of Architects) 설립 시카고 지부
18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지역 포함(오늘날에는 300개 이상의 지부 있음) • Philadelphia, Chicago, Cincinnati, Boston, Baltimore, Albany, Rhode Island, San Francisco, St. Louis, Indianapolis, and Washington, D.C.
18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에 A-201에 되는 첫 건설 문서 채택 • 건설에 대한 건축가와 소유주의 협의
1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A와 AIA, AIA로 통합
1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용어로의 '건축사(Architect)' 등장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내 독립체로써 College of Fellows 설립 • 존경 받고 경험 많은 전문가 회원들의 충고와 의견들을 활발히 하고 드러내기 위해 "stimulate and express the opinions and advice of honored and experienced members of the Profession."

* http://info.aia.org/aiarchitect/thisweek05/tw1007/a150_tw1007.htm, last accessed:2015-11-25

한편 1884년 시카고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를 아우르는 11개 지역의 건축가 협회인 서부건축가연합 WAA(Western Association of Architects)이 설립되었다¹⁴¹⁾. 이후 1889년 WAA와 AIA를 AIA로 통합하고, 1897년에는 건축사(Architect)를 법률 용어로 규정했다.

141) WAA에 참여한 11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Philadelphia, Chicago, Cincinnati, Boston, Baltimore, Albany, Rhode Island, San Francisco, St. Louis, Indianapolis, and Washington, D.C.

[표 3-18] 미국의 건축사 제도 관련 단체 및 조직

협회명	설립 년도	목적 및 특징
미국건축사협회 (AIA)	18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완벽을 증진시키고, 전문직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promote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perfection of its members” and “elevate the standing of the profession”¹⁴²⁾ • 첫 회의 때, A. J. Davis, Thomas U. Walter, and Calvert Vaux을 포함한 16명의 건축가를 2차 회의에 초청하기로 결정
미국건축학교육협의회 (ACSA)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학교육의 최소기준 설정¹⁴³⁾ • 1932년까지 인증제도와 동등한 역할¹⁴⁴⁾
미국건축사등록원 (NCARB)	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미연방 개념의 통일된 건축사자격기준이 필요 • 건축 교육 이후의 모든 제도적 법적 과정을 관장
미국건축교육인증원 (NAAB)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교육에 있어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립 된 ACSA가 1932년, 그 최고 기준의 사용을 포기하였고, 이후 ACSA, AIA, NCARB가 NAAB를 설립하고 국가적으로 건축 학교를 승인하는 권한을 위임함¹⁴⁵⁾ • NAAB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13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의사결정 및 정책형성 기구로서, 위원은 일반 학자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인 그리고 ACSA 3인, AIA 3인, AIAS 2인, NCARB 3인을 포함¹⁴⁶⁾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 :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은 1919년 통합 된 미연방 개념의 통일된 건축사자격기준의 필요성에서 건축 교육 후 모든 제도적 법적 과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제62차 미국건축사협회 총회를 통해 건축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건축가들의 건축실무시 법제 지원을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13개 주만이 자체적인 법적 지위(Laws Regulating)를 갖는 독립된 건축실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 건축실무행위에 있어 건축가들은 연방법(Federal Laws)보다 각 주의 지방자치법(State Laws)이 우선하여 다른 주의 프로젝트 수주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¹⁴⁷⁾ 1919년 설립된 미국의 건축사등록원(이하 NCARB로 표기함)은 연방제라는 독특한

142) <http://www.aia.org/about/history/AIAB028819> last accessed:2015-11-25

143) 한국과학재단(2003). 『건축학교육인증시스템개발연구』, p.28

144) 최태숙(2006), 『건축설계 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p.113

145) NAAB History, http://www.naab.org/about/naab_history last accessed:2015-11-25

146) 한국과학재단(2003). 『건축학교육인증시스템개발연구』, p.46

147) 박종성(2007). 「미국의 건축사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v.09, n.03, 2007-09, p.72

미국의 강력한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서 교육, 실무수련,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등록, 건축사 계속교육 등에 관한 이해관계 및 조정과정을 통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 독자적 방법으로 시행되어오던 건축사 시험제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③ 독일 : 독일건축가협회 BDA (Bund Deutscher Architekten, 1906)

독일에서 건축가 지위의 공식적인 인정을 위한 첫 시도는 David Gilly(1748~1808)와 Heinrich Gentz(1766~1811)가 1799년 결성한 건축가들의 회합이었다. 이 회합은 1824년 Karl Friedrich Schinkel과 Carl Ferdinand Langhans d. J.(1782~1869) 그리고 Leo von Klenze(1784~1864)를 주축으로 한 베를린 건축가회(Berliner Architektenverein)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또 1852년에 베를린 건축가 엔지니어 협회가 설립되어 1년 주기의 Schinkel 건축상을 수여하였다.¹⁴⁸⁾ 협회의 구성원은 주로 공직에 종사하는 건축가들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1879년 Julius Raschdorff(1823~1914)가 건축예술의 발전을 표방하는 최초의 자영업 건축가 협회 VFA를 설립하였다. 1869년 협회에 소속된 Joseph von Egle(1818~99)는 건축 설계업무의 대가기준을 발표하였다¹⁴⁹⁾.

1906년 자유건축가와 등록건축가, 도시계획가를 회원으로 하는 독일건축가협회 BDA(Bund Deutscher Architekten)가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1930년까지 BDA는 건축사 계약 규정과 표준 수당의 제안, 건축가의 명칭 보호, 건축사협회의 창립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개인으로 일하는 건축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 이로 인해 페터 베렌스, 발터 그로피우스 등의 우수한 건축가들을 포함, 2,7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연합체가 되었고 2차 대전 당시에는 나치당에 의하여 통제를 받았다. 이후 1950년 연방건축사협회(BAK)의 발족으로 건축사 명칭의 법적인 보호가 확보되었다. 또 BDA는 건축상을 통해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1964년 최초 BDA건축상은 한스 샤론에게 수여되었다. 1970년대에는 협회 목적을 “사회적 책임을 의식한 설계와 건축의 질적 향상”으로 개정하면서 사회정치적 이슈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1990년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사무소 이전하고 독일건축센터를 설립하였으며 5천여 명 규모의 건축가 단체가 되었다¹⁵⁰⁾.

148) Stefan Amt(2001). Von Vitruv bis zur Moderne - die Entwicklung des Architektenberufes, pp.21-23, http://www.bhb-hannover.de/schriften/in_Druck_Entwicklung_Architektenberuf.pdf last accessed:2015-10-29

149) Stefan Amt(2001). *ibid.*, pp.23-24

150) Bund Deutscher Architekten Bundesverband, Chronik, URL: <http://www.bda-bund.de/der-bda/chronik>

[표 3-19] 독일 건축가 관련 단체 일람

단체명	활동목적 / 주요활동	설립	회원수
VDI 독일 엔지니어 협회 (Verein Deutscher Ingenieure)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협회구성	1856	창립 367(1860), 57,757(1943) 154,000(2015)
VDAI 연방 건축가 엔지니어 협회 (Verband Deutscher Architekten und Ingenieurvereine)	32개 지회로 구성 건축문화의 발전 목적 건축상 수여 건축잡지 “Baukultur” 발행	1871	창립 5,300 (1871), 최다10,092 (1917) 현재 4,000(2015)
AIV 베를린 건축가 엔지니어회 (Architekten und Ingenieurverein zu Berlin)	독일 최초의 건축가회 국가 공인 건축사(vereidete Conducteur)에 의해 설립 건축가의 예술적, 역사적 교육을 목적 베를린 건축시행령과 건축학교(Bauschule) 개혁 자문 (1848) 9개 분야 건축상 수여	1824	창립 18 (1824), 최다 2,419 (1906) 현재 350 (2015)
AIV 도르트문트 건축가 엔지니어회 (Architekten und Ingenieurverein zu Dortmund)	지역 건축가 직능의 권익 수호, 정치적 입장 대변 자유건축가 및 중앙정부, 시정부 건축감리공무원을 포함 건축계약서 표준 양식 발행, 건축감리 시행 규칙에 대한 자문	1900	창립 21 (1900)
BDA 독일건축가협회 (Bund Deutscher Architekten)	자유전문직 건축사의 배타적 권익 수호, 건축의 질적향상 건축 공모전,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 16개 지회	1906	창립 400 (1906), 2,700 (1931), 현재 5,000 (2015)
VDDI 독일 고등 엔지니어 연합 (Verband Deutscher Diplom Ingenieure)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자의 직능 보호 직업적 이익 수호	1909	창립 1,500 (1910), 4,354 (1928), 10,000 (1930)
BDB 독일 건축마이스터, 건축사, 기술사 동맹 (Bund Deutscher Baumeister)	건축사, 기술사와 시공자 간 협력도모, 건축의 질적 향상, 건축과 관련된 제도적, 정치적 참여, 지속교육, 고등전문교육 진흥, 국제협력 (1959부터 건축사를 포함)	1949	12,000 현재 20,000 (2015)

k.html last accessed:2015-10-29

단체명	활동목적 / 주요활동	설립	회원수
VFA 자유전문직 건축사 협회 (Verband freischaffender Architekten)	자유전문직 건축사만으로 구성된 단체 1968년 건축사법, 건축사회, 설계자격제한규 정을 위한 정치적 활동 13개 지회, 39개 지역회	1958	-
LAK 지방 건축사회 (LANDESARCHITEKT ENKAMMER)	비영리 공공법인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문화, 건축 예술, 건설, 도시계획, 경관계획의 발전 도 모 BDA와 BDB, VFA등 각 직능단체 대표 참여	1948 (SL), 1950 (RP), 1964 (SH), 1969 (HE), 1972 (HB), 1985 (BE), 1971 (BY), 1991 구동독지역	현재 8310 (BE), 1200 (BB), 800 (MV), 10000 (NI), 31000 (NW), 2900 (SN), 2900 (SH)
BAK 연방 건축사회 (Bundesarchitektenka mmer)	16개 지회 LAK가 모여 결성된 민간이익단체 실내, 조경, 도시계획가 포함 건축사의 국내, 국제적 입장 대변 건축사 명칭의 법적 보호 독일 건축의 날 개최: 3년 주기	1969	창립 초기 57,000(1974) 115,000 (1996) 현재 125,000 (2015)

* 창립시기와 최다 회원수는 T. Sander(2009:299) 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BDB는 국립토목기술학교(Staatliche Ingenieurschule für Bauwesen)의 엔지니어들과 건설 마이스터 연합이 창립한 단체로 1959년부터 건축가 회원을 받았다.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의 각 단계에서 건축사와 건설 엔지니어, 건설업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협회의 목적이다.

④ 프랑스 : 건축사 등록원 (Ordre des architectes, 1940)

1671년 왕립건축학술원의 설립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근대적 건축가의 위상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학자들의 급성장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건축가들의 직업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와 같은 경쟁세력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1840년 건축가중앙회(Société centrale des architectes)의 설립, 1877년 최초의 국가 건축가 자격증의 발부와 함께 설립된 정부공인건축가협회(Société des architectes diplômés par le gouvernement), 1840년에 창간되어 44년간 건축가의 직업적 사회적 위상 강화에 크게 공헌한 건축잡지 『건축과 공공공사 일반 리뷰(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의 발간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협회 중 하나는 보자르 학위 소지자들에게 한정된 ‘정부공인 건축가협회(Société des architectes diplômés par le gouvernement)’였다¹⁵¹⁾. 1882년 초기 학위 수여자들에 의해 설립된 협회는 1920년에서 1940년 사이에 전성기를 누리며, 거의 모든 에콜 데 보자르 출신 건축 학위자들을 모았다. 실제로는 그 이전 1869년에 처음 건축가 자격(학위)이 발부되었으며 1874년에 법령화된 건축가 학위예의 응시를 장려하기 위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1882년에 창립된 것이다. 행정부는 초기 공인 건축가들이 공공 발주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려 했으나 이 새로운 자격증을 소지한 젊은 건축가들로 인해 발주 사업에서 배제될 것을 기득권 다수가 염려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0년에 회원이 200명이었던 것이 1940년에는 1,800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수많은 지역 단위 노조가 결성되어 전체 회원수가 5,000여명에 달하는 하나의 연맹(confédération)을 성립시켰다. 노조 가입원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서 받은 자격증(diplôme)을 소지한 건축가로서 또는 특정 유형의 발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보호받으려고 하였다. 이 협회들은 하나의 거대한 프랑스 건축가 일반 연맹을 구성하였고, 이 연맹은 레온 블룸 정부가 1938년에 내놓은 건축가 직업의 법제화 법률안에 명문화되었다.

건축가 전문직의 법제화와 등록원의 설립을 위해 싸웠던 정부공인건축가협회의 초대 회장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는 자연스럽게 등록원의 첫 번째 원장이 되었다. 건축사 등록원이 설립되는 시기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직 분야에서 능력의 보장을 정립하는 위상의 확립, 전문직에 대한 규제 권력, 경쟁의 윤리성 등의 요구가 확대되었던 시기였다. 등록원의 설립은 독일점령기간의 임시정부인 비시 체제와 연계된 노동조합의 재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준된 문건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건축가 협회 및 노조들에 의해 요구되었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40년의 법제정 이전까지, 건축가 업무의 수행에서 자격증의 소지는 보호받지 못했다. 즉, D.P.L.G.(국가공인자격증), D.E.A.D.(예술수공예학교의 학위) 또는 D.E.S.A.(diplôme de l'Ecole spéciale d'architecture)의 표기를 덧붙일 수는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건축가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었다. 1940년 법은 건축사 자격의 보호를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51) F. Champy, C. Heitz, R. Martin, R. Moulin, and D. Rabreau(2013). ARCHITECTURE Thèmes généraux – L'architecte, in Encyclopædia Universalis France, version électroniqu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a/architecture-themes-generaux-l-architecte/> last accessed:2015-06-25 이하 프랑스 건축가 단체의 인물과 연도는 이 문헌에서 인용함.

건설 행위를 법제화하지 못했으며, 건설 과정에 건축사의 개입을 의무화하지도 못했다. 건축사 직업은 전문직에의 진입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능력을 가진 등록원에 의해 조정되었고, 자유직으로 또는 개인적인 형태로만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2) 동아시아 건축단체의 성립

① 일본 건축단체의 형성

일본의 건축단체는 관립 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또한 당시 민간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구의 자유전문직의 결속이라는 이슈와는 조금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카데미즘과 시장의 구분이 불명확했던 상황 속에서 학회와 협회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건축학회가 발족되었지만 건축가의 위상정립, 전문직화의 과정 속에서 자유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갈라져 나왔다. 일본의 건축단체는 크게 직능단체, 학술단체, 기타 운동단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⁵²⁾. 직능단체는 일본건축사회가 대표적이고, 학술단체는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협회가 있으며, 기타 운동단체가 별도로 분류된다.

□ 조가학회 (造家學會, 1886)

공부대학교 제1회 졸업생들은 1879년 ‘공학회(工學會)’를 결성하여 학회와 협회, 동문회의 성격이 혼합된 활동을 시작했다. 이중 건축 분야의 구성원들은 공학회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고자 조가학회를 새로 발족시켰다. 이처럼 단체가 세분화되는 모습은 건축계 내의 건축학회와 일본건축사회, 토목건축통제조합과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조합, 각 지역 건축사회와 일본건축가협회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¹⁵³⁾.

조가학회의 영문조직명은 ‘The Institute of Japanese Architects’로서 학회의 의미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후 이토 츠타(伊東忠太) 등이 학회의 개명을 요구하는 논문에서 호칭을 협회로 개정하고자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은 당시 건축에서 학문과 실무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조가학회의 특수한

152)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가협회, 일본건축사연합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한 팸플렛 참고.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p.2032-2033

153)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2037

성격을 잘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조가학회의 규약은 영국 및 미국의 건축가 협회 규약을 참고로 마련했다. 타키 다이키치(瀧大吉)가 영국 RIBA 회칙을 번역하고, 가와 이 코조(河合浩藏)가 미국 AIA의 규약을 번역해서 서로 대조, 취사선택한 것이다¹⁵⁴⁾. 즉, 조가학회는 특별한 학맥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가 협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가학회는 전문직 단체가 아닌 지도 단체로 성장했다¹⁵⁵⁾. 조가학회 규약의 제5조 및 제6조의 회원의 성격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분히 건축가 전문직 단체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창립 당시부터 정부로부터 내진이라든지 건축법규 제정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이 들어오는 등 학술기관의 성격이 부각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1908년 전문직 건축가 회원의 증가에 따라 ‘건축사보수규정’을 제안하였고 ‘건축공사청부 계약약관’ 서식을 제작하는 등 협회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1897년에 조가학회는 건축학회로 개명하게 된다. 조가에서 건축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이슈는 제2장에서 다룬 바 있다. 부연하자면 당시 이토 추타 등이 주장했던 ‘협회’로의 전환은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조가학회가 동일한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직업군에 의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포괄하는 지도단체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여러 전공들 사이의 갈등을 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카데미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 일본건축사회 (日本建築士會, 1914)

메이지 후기에 이르러 민간건축설계사무소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건축가의 직능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민간설계사무소는 메이지 21년 콘도르가 공과대학에서 퇴직한 후 개업한 사무소이며 메이지 말에서 다이쇼 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민간건축사무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설계사무소 탄생은 건축설계라는 노동의 가치를 분리시켜냈다는 점, 자본주의경제에서 설계분야를 시장경제에 끌어들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¹⁵⁶⁾.

154)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1979.

155)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2037.

156)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1978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개업하는 건축가의 수가 늘고, 학회 내의 의견과 감정의 대립도 시작되었다. 특히 공학 아카데미즘의 대표주자였던 사노 리큐(佐野利器)의 ‘건축학회는 업자들이 회합하는 곳이 아니므로 개업에 관한 규정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건축잡지』에 발표되면서 건축가-공학자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사후의 일이지만, 1918년에는 ‘건축사보수규정’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건설업체에서 사내에 연구 및 설계 부서를 갖추기 시작했고, 설계-시공 일관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1910년대로 넘어오면서 민간 건설청부업자의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공사 이외의 민간 공사도 수주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제3자로서 감리자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14년 도쿄에서 공부대학 제1회 졸업생인 타츠노 긴고(辰野金吾)를 주축으로 12인의 건축가가 모여 ‘전국건축사회’라는 건축사간담회를 결성하였고, 다음해 오사카에서 ‘일본건축사회’로 개명했다. 물론 그 이전 1886년 ‘조가학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건축학회’가 영미의 건축가협회의 규약을 따르면서 건축가 협회를 표방했지만, 점차 학술적인 성격이 짙어지고 건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역할을 행함으로써 건축가들만을 위한 단체라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본건축사회 창립멤버였던 추조 세이이치로(中條精一郎)의 아들 쿠니오(国男)의 인터뷰에는 일본건축사회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¹⁵⁷⁾.

- A: 1914년에 타츠노 킨고 박사 외 12분이 함께 건축사회를 창립하였다. 건축 조례, 건축사 등록법, 건축사 덕의규약의 제정 등은 그 창립 당시 추조 선생의 주장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것을 그 당시부터 생각했던 것 같다.
- 추조 쿠니오 : 건축사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많았다. 청부업과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 아버지가 고민이 많았던 것이 매우 인상에 남아 있다.
- A : 당시 세금은 그렇게 많았나?
- B : 세금을 오늘날 청부업과 혼동하여 부과했었다.
- 추조 쿠니오 : 그렇다. 사업세라든지 이것저것.
- B : 종종 세무서에 가서 설명을 했다. 우리가 갔을 때 이미 그랬다. 그 설명이 힘들었

157) 中條國男・網戸武夫・黒崎幹男 외(1961). 「人物風土記 第21回 建築士会の創立者 中条精一郎先生を語る」, 『建築士』, v.10, n.99, 1961-01, pp.30-35

다. 즉 건축사의 직분을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등록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 C : 건축사회를 창설하고 싶은 생각이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직접적으로 세금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불편한 점은 건축가의 존재나 직능이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인식이 주요한 동인이었다. 메이지 초년 이래 30년에 걸친 서양의 양식건축의 학습이 일단락되었다는 자신감이 찬 분위기에서, ‘잡다한 직업인의 집단’으로 변해버린 건축학회로부터 ‘순수한 설계감독자’를 선별하여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다¹⁵⁸⁾. 그리고 그 때까지 건축사(建築師)·건축기사(建築技師) 외 다양했던 설계자 호칭 중에서 특히 설계전문업 조직에 있는 설계자를 지칭하며, 다른 전문직의 호칭과도 통용될 수 있는 ‘건축사(建築士)’가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창립 당시 건축사회 구성원들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혹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¹⁵⁹⁾. 이미 건축학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지도자적 지위에 서양의 Architect와 같은 권력을 더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회원수를 보면 건축사회의 정회원은 약 120-140명에 불과한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건축학회와 같은 추진력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일본건축사회 회원수

1927년(昭和2년) 기준 : 정회원 120명, 객원 26명
1938년(昭和13년) 기준 : 정회원 142명, 객원 54명

□ 기타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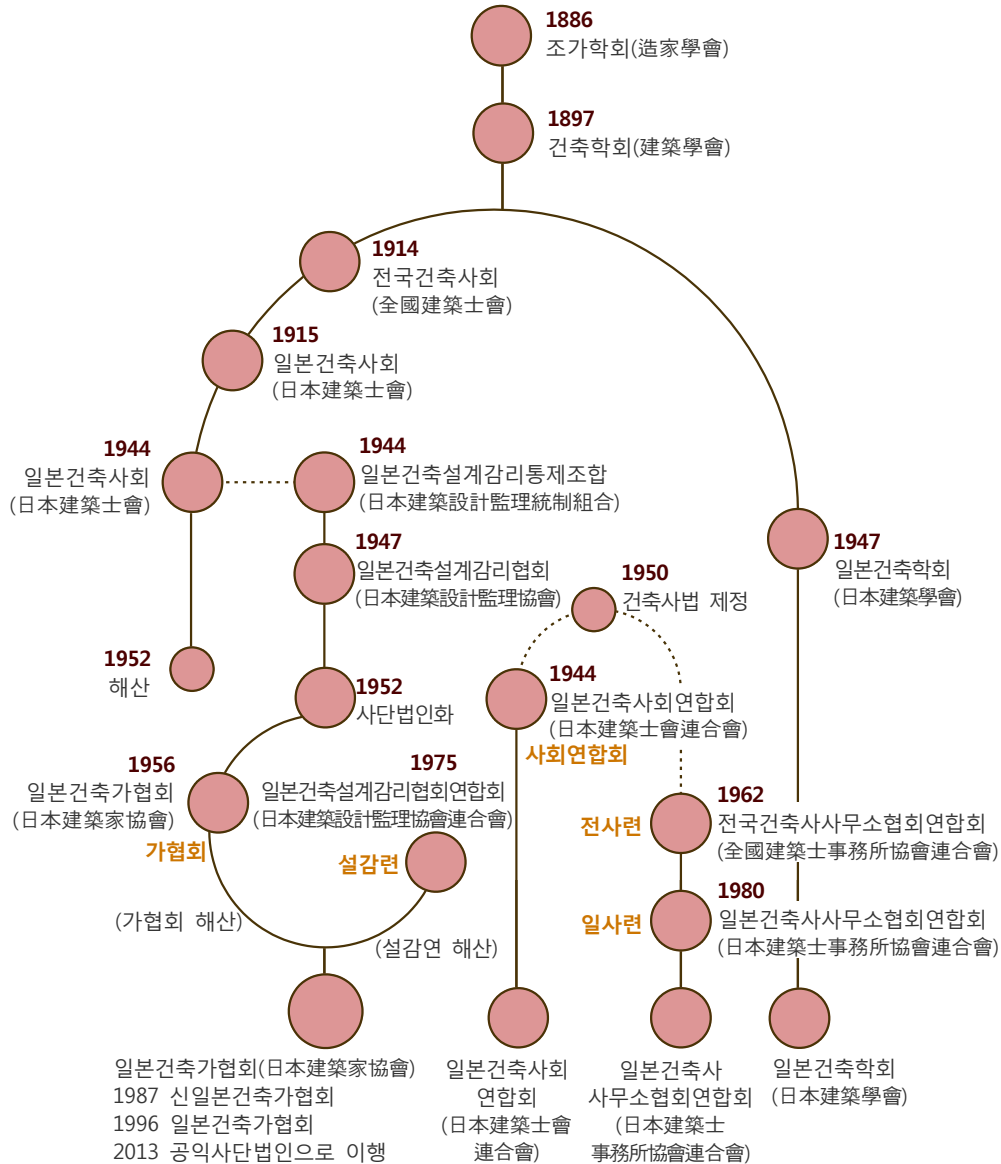
-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조합(日本建築設計監理統制組合, 1944)

일본건축사회 회원이 소속된 설계사무소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전쟁 후에도 조직이 유지되어, 1947년에는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협회’로 개명했다.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협회와 일본건축사회의 관계는 표리일체로, 일본건축사회의

158) 長野宇平治(1936). 「中條君を追憶す」, 『建築雑誌』 v.50 (612), 1936-05, pp.551-552

159)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2040.

유력회원이 곧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협회의 유력회원이며, 일본건축사회가 추진하는 건축
 사법 제정운동을 위한 기부금을 지출한 기록도 남아있다¹⁶⁰⁾.



* 출처: 일본건축가협회 <http://www.jia.or.jp/> last accessed:2015-09-30

[그림 3-2] 일본 건축직능단체의 변천

160) 日本建築学会 編(1972). *ibid.*, p.2085.

- 일본건축사회연합회(日本建築士会連合会, 1951)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단체로서, 도도부현별로 설립되어 있는 건축사회를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건축사의 품위 유지 및 업무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정비, 보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일반소비자의 이익 옹호,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¹⁾ 일본건축사회 회원이 소속된 설계사무소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 일본건축가협회(日本建築家協会, 1956)

전신은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협회이다. 건축사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는 지역별 건축사회와 일본건축사연합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법적 자격인 건축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술가적 감각을 겸비한 차별화된 건축가로서 그들만의 별도 조직을 표방한다. 1955년 일본건축설계감리통제협회는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건축가연맹(UIA) 제4대 대회에 참석, UIA 가입 승인을 받았는데, 연맹측이 사무소회원제도라는 협소한 협회의 성격을 지적하면서 조직개편을 요구함에 따라, 1956년 기존 협회를 해산하고 개인회원에 의한 일본건축가협회를 설립하였다.

161) 日本建築士会連合会 <http://www.kenchikushikai.or.jp> last accessed:2015-09-30

② 근대 중국의 건축단체

근대 중국의 건축단체가 학회로 출발한 것은 일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만 건축가들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중국의 근대적 의미의 건축단체로는 중국토목공정사학회, 중국건축사학회, 건축기사공회, 중국영조학사(中国营造学社) 등이 대표적이다¹⁶²⁾.

□ 중화공정사학회(中華工程師學會) : 1912

중국토목공정사학회는 가장 이른 시기에 조직된 건축가 관련 단체로서 그 전신은 1912년 설립된 ‘중화공정사학회’이다. 근대 중국에서 건축은 토목으로부터 거의 구분되지 못했다. 토목공학교육의 성숙과 관련 기술자의 증가, 이들에 의한 단체 형성이 중국토목공정사학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먼저 1931년 당시 대표적 공학계열 학술단체였던 ‘중화공정사학회’와 ‘중국공정학회’가 합병하여 ‘중국공정사학회’가 되었으며, 이후 ‘중국토목공정사학회’로 전문화되었다.

□ 중국건축사학회(中國建築師學會) : 1928

토목공학을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들의 단체에 속한 건축직들과는 별도로 건축가들의 조직결성 시도가 있었다. 1922년 여름, 장광치, 뤼옌즈, 쑹준, 우잉 등 유학생들은 단체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인원이 적다는 이유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이후 유학생들의 귀국이 이어지면서 1927년 겨울 ‘상하이건축사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지역을 확장해서 1928년 ‘중국건축사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난징, 충칭, 쿤밍 지역에 분회를 설립했다. 1931년에 정식 회원이 39명, 준회원이 61명이었다. 1933년에는 정식 회원이 55명이 되었다¹⁶³⁾. 학회에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국건축』 등 잡지 출판, 법령 및 기준 제정, 전문용어 해석 및 번역, 건설 소송 사안에 대한 자문, 직종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건축기사공회(建築技師公會) : 1947

1947년 국민 정부가 반포한 「기사법」 규정에 따라 ‘건축기사(建築技師)’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농업, 공업, 광업의 3대 기사가 있었으며, 건축기사는 공업기사의

162) 이하 중국건축단체의 자세한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술을 참고했다. 朱英·魏文亨 主編(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163) 李海清(2004). 『中国建筑现代转型』, 东南大学出版社, p.253

일종이었다. 「건축사관리규칙(建築師管理規則)」에서는 ‘건축사는 이미 경제부에 등기, 기재되어 있거나 증명서를 가진 건축과 혹은 토목공정과 기사 또는 부기사(技副)에 한한다.’고 하여 건축사와 건축기사가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던 실정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건축사는 「기사법」에 의해 ‘건축기사’로 호칭되면서 1947년 건축기사公會(建築技師公會)를 설립했다. 건축사는 국외에서 유입된 신규 직종으로서 중국에서 개업한 서양출신 건축사, 중국의 토목공정사 및 재래의 영조창과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공회가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건축 삼단체의 성립

① 식민지 조선의 건축단체

□ 조선건축회 (1922)

조선건축회가 출범하게 되는 1920년대 초반에는 사회 전반에서 단체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의 문화정치라는 민족분열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건축회의 결성이 건축가 전문직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관변단체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사상성이나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무리가 있었다¹⁶⁴⁾. 1922년 4월 당시 조선에 있던 건축 관련 인사 대부분을 포괄하는, 즉 공무원, 시공기술자, 도금업자, 설계업자, 학자를 망라하는 거대한 모임은 학회인지 협회인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목표로 출발했다.

전 조선(全朝鮮)에 거주하는 건축기술가(建築技術家)들이 결속하여 일어난 우리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정말로 열심과 노력으로 적어도 건축에 관한 것은 모두 연구조사하고 특히 현재 급무인 도시계획, 건축법규, 가옥정책, 주택개선, 건축재료의 규격통일, 내화건축(耐火建築), 방한건축(防寒建築)의 보급 등 문화적 사회적 시설의 기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사회에 발표하고, 특히,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것을 결의하여 사회적 방법에 그 실행을 촉구하고 사회문화의 발달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로지 계몽의 위치에 설 것을 다짐한다.¹⁶⁵⁾

조선건축회의 결성을 지원한 세력은 식민통치기구의 관료들이었고, 창립회원 122명

164) 김의용(1992). 『1880년~1945년 한국 관 건축조직의 변천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7

165) 조선건축회(1922). 『朝鮮と建築』 창간호, p.5

중 한국인 건축가는 한 사람뿐이었으며, 이듬해에 10명이 가입했는데 대부분 경성고공 출신들이었다.¹⁶⁶⁾ 또 이들은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유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개인설계사무소의 개설도 한국인 건축가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건설업계로도 진출이 시작되었다. 당시 민간 설계사무소 개설은 박길룡과 박인준, 일본에서 활약한 강윤(姜允) 등이 알려져 있으나 여론을 주도하고 세력을 만들어 직종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표 3-20] 조선건축회에 가입한 한국인 건축가의 수와 직업

시기	관청	회사	설계사무소	자영업	교육
1922부터 1925까지	9인	3인	-	4인	1인
1926부터 1930까지	9인	1인	-	-	-
1931부터 1935까지	7인	2인	1인	-	-

② 조선건축기술단 및 대한건축학회¹⁶⁷⁾

□ 조선건축기술단 (1945)

1945년 9월 1일, 약 50인의 건축관계자들이 발기하여 종로 YMCA강당에서 조선건축 기술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¹⁶⁸⁾. 해방 후 불과 보름 만에 건축계에서 독자적인 조직이 결성된 것은 다른 전문직 단체의 조직결성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었다. 이는 일제시기에 조직된 조선건축회의 조직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지만 조선건축회의 관변단체적인 성격과 친일정신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당시 김세연 단장의 설립취지 발언에는 조선건축기술단의 목표와 성격이 잘 드러난다. 즉, 건축가 전문직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천명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였고, 눈앞에 닥친 국가수립이라는 절대과제 아래 모든 전문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166) 김정동(2014),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사 시대 개관,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학회, p.608.

167) 이하 서술에서 주요한 연혁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적을 참고함. 대한건축학회(1985). 『대한건축학회40년사』, 새한.

168) 창립총회에서 단장에는 조선총독부 건축기사이자 건설업을 하던 김세연씨(당시 58세), 부단장에는 철도국 건축기사인 김윤기씨(당시 41세)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인준(당시 53세)씨가 피선되었고, 임원진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대한건축학회(1985). 『대한건축학회40년사』, 새한, p.37

우리는 정상적인 전통을 밟고 있는 어느 나라 건축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의 투쟁 여하에 달린 것이다. 조선건축기술단은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띠고 해방조선 건설에 전위로 발족 되어온 것입니다¹⁶⁹⁾.

그러므로 조선건축기술단은 국가 재건에 적극 협력하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 수밖에 없었다. 설립목적을 “건축에 관한 각종 연구 조사 연락 및 지도를 함으로써 건축계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축 국책(國策)에 협력”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건축에 관한 학술 기예의 연구 및 조사
2. 건축기술자의 등록 배치 및 지도
3. 건축교육의 진흥과 노무자의 기능향상
4. 건축 각 부문에 연락 협력 및 건축과 사회 각부문과의 연락 협력
5. 건축 국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그 실시에의 협력
6. 건축에 관한 사회 인식의 개발과 보급
7. 기타 본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건축관계자 약 50인이 발기하여 창립된 조선건축기술단의 단원수는 1947년 1월 186명이었던 것이 4월에 254인으로 증가하고 1948년에는 무려 803인에 달했다.¹⁷⁰⁾ 기술단의 회원자격은 “건축의 기술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및 특히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라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에 대한 자격은 정원과 찬성원으로 구성된 단원, 단원 외의 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었다.

- 조선건축기술단 활동의 특징

명확한 자격조건 없이 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선건축기술단의 활동은 식민지 시기의 건축단체 활동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사상적으로 이념과 무관하게 타

169) 조선건축기술단(1947), 『조선건축』, v.1 n.1, p.1

170)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7

예술단체와 교류하는 등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한편, 공공연하게 국책에 협력함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면모도 있었다. 이는 회원들 상당수가 공무원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에 기인하는 바도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건축을 ‘예술’보다는 ‘기술’로 보는 관점이 우세했고¹⁷¹⁾ 본격적으로 건축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건축기술단의 주요 임원이었던 김윤기와 이천승은 기관지 『조선건축』의 창간호에서 조선건축기술단과 건축가의 진로에 대하여 피력하였다.¹⁷²⁾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가의 역할이 제시되었다. 특히 김윤기는 건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시험제도의 실시를 제안하였으며, 이어 이천승은 국토계획과 병진(併進)하는 건축가의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1. 기술자의 양성
2. 고건축의 연구 및 부흥
3. 건축사와 업자의 질적향상과 통제
4. 건축가와 사회와의 계약 입찰제도의 재검토
5. 주택문제
6. 건축술어의 통일
7. 건축행정의 필요성
8. 건축자재의 생산확보

1945년 9월 기술단이 발족한 후 가장 먼저 역점을 두 사업은 건축용어제정과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이었다. 『조선건축』 제1집에 실린 조선건축기술단 사업보고 (1945.9 ~ 1946.11)중 건축학술에 관한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먼저 건축술어제정위원회는 1946년 상반기 6개월간 75회의 회합을 가질 정도로 집중적인 활약을 펼쳤다. 또 이미 긴급한 재료·구조·시공에 관한 술어를 3차에 걸쳐 검토하고 『조선건축』에 9회에 걸쳐 연재하는 성과를 내었다¹⁷³⁾. 건축술어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를 기초로 두 번째

171) 이광노(1988). 「사회와 문화의 첨단 가장 역」, 『예종 40년사』,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p.32

172) 김윤기(1947). 『조선건축의 전망』, 『조선건축』, v.1 n.1; 이천승(1947). 「현단계의 건축가의 진로」, 『조선건축』, v.1 n.1

173) 그러나 단순히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장인의 맥이 단절되었고 건축술어 제정위원회의 회원 중에 전통장인이 전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종호(1992). 「1945년-1955년 한국 건축단체 연구-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5

사업인 건축표준시방서를 제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7년 4월에 출범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위원회는 3년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¹⁷⁴⁾. 1948년 12월 위원회를 개편하고 (구)조선건축회의 표준사양서를 우선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했던 시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좌절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문헌을 번역하여 공개하는 일, 독립국가로서 건축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 학술적 과제로 주어졌다.

조선건축기술단의 건축학술에 관한 사업

1. 건축술어제정위원회 조직 활동의 건
장기인·박호장 양시의 술어 편집안을 원으로 채택하여 1946년 2월부터 7월까지 75회의 회합을 거듭하여 우리말로 된 건축술어안의 제정을 완료. 그중 가장 긴급한 재료·구조·시공에 관한 술어는 3차에 걸쳐 인쇄 발표하였고, 더욱 완전한 술어의 제정을 위하여 심의는 계속 중이며, 조선어학회 권위자 제씨와도 연락 심의중에 있음
2. 건축표준시방서제정위원회 조직 활동의 건
제정된 건축술어를 기초로 하여 건축용어 및 시방서를 제정중으로 성안은 머지않아 발표될 예정
3. 외국문헌 번역위원회 조직 활동의 건
입수된 외국 문헌을 번역함과 동시에 극히 원시적인 우리 구조법 개량안, 재료규격안 등 기타 과학적 기술향상을 위하여 심의 연구중에 있음
4. 조선건축사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의중 우리 건축사를 체계화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음

조선건축기술단은 1947년 4월 23일 총회에서 ‘조선건축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원을 선출하였고, 건축의 설계, 시공, 행정뿐만 아니라 당시의 공과대학 재학생까지 회원을 확장하여 그해 10월에는 회원수가 618명으로 확대되었다¹⁷⁵⁾. 이 시기를 전후로 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팔목할만한 것이었다. 『조선건축』지에 개재된 일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집계해보면, 건축술어제정위원회가 28회, 주택문제연구위원회가 7회, 건축행정연구위원회가 5회, 건축표준시방서제정위원회 4회, 기타 기관지편집위원회, 야간강습소 설치준비위원회, 조선건축사연구위원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며, 위와 같은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통로에 기관지 『조선건축(朝鮮建築)』이 있었다. 기술단은 창립총회 직후부터 기관지 발간을 계획하였으나 재정문제, 원고문제 등으로 지연되다가 김희춘 등의 노력으로 1947년 3월 20일에 첫 호가 계간(季刊)으로 창간되어 1949년 5월 10일 통권 제9호로 종간

174)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p.160-161

175) 대한건축학회(2000). *ibid.*, p.85

되기까지 기간은 짧았지만 귀중한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조선건축기술단/협회의 각종 위원회 활동

- 건축술어제정위원회(28차 개최) : 1947년 2월1/17/(조선어학회와 연석하여 건축술어 제정 심의개시)/21(No.1심의완료)/24/25/26/28일, 3월6/7/10/19(雜部篇 완료)일, 4월 8일, 5월 19/20/21/22/23/26/27(의장편만 보류하고 그 외 전부 원안 작성 완료)일, 6월9/12/13/15/16/19/23(응용역학, 의장편 제외)일, 11월19일, 12월3일
- 주택문제연구위원회(7차 개최) : 1947년 5월 13/17(주택문제연구위원회 구성)/21/28일, 6월 11/18일, 12월17일
- 건축행정연구위원회(5차 개최) : 1947년 3월 5/15/17일, 6월 3(건축부 설치건의건 토의)/7(건축행정연구위원회구성)일
- 건축표준시방서제정위원회(4차 개최) : 1947년 8월 13/14/21일, 10월 22일
- 기관지편집위원회
- 야간강습소설치준비위원회
- 조선건축사연구위원회

위와 같은 위원회 활동과 기관지 발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선건축기술단 및 조선건축기술협회의 성격은 호칭과는 달리 협회의 기능보다는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학회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도 기술 중심의 아카데미한 논의보다는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계몽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건축기술단이 주최하고 조선주택영단과 도시계획연구회가 후원을 한 ‘국민주택 설계도안’ 공모전은 1946년 2월 20일 정오에 응모를 마감하고,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앙백화점 5층 화랑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건축학회 (1950)

1949년 12월 김윤기 등 80여명은 한국의 건축문화에 기여하고, 건축기술인의 상호 친목과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건축기술협회’를 해단하고 ‘대한건축기술협회’를 조직하였다¹⁷⁶⁾. 이어 1950년 1월초에 이를 계승하는 대한건축학회의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나 학회가 설립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1954년의 일이다. 즉, 대한건축학회는 조선건축기술단과 조선건축기술협회를 전신으로 하여 학회로 재발족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조선건축기술단 및 협회가 일궈 온 주요 활동으로 볼 때 정체성에 어울리는 명칭을 획득

176) 대한건축학회(2000). *ibid.*, p.85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 발기 당시, 학계 16명, 관공서 30명, 민간 26명으로 이루어진 발기인을 모집했는데, 이 때 발기인 명단표를 살펴보면 인물보다 기관을 먼저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소속과 씨명을 기록하고 있는 명단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기재되었으며, 서울공대를 시작으로 한양공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교, 다음으로 경기공중, 성동공중 등의 공업중학교가 배치되었고, 정부부처와 서울시의 공무원, 은행, 시멘트 회사, 설계사무소, 시공자의 순으로 회원명단이 기재되었다. 이 중에는 기관명은 있지만 인명이 미기입된 칸들이 있다. 기관을 먼저 망라한 상태에서 소속기관의 인물을 찾았던 흔적이다. 또한 사후에 추가된 인명은 파란 잉크로 기재되어 있어서 명단의 확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한건축학회는 학계와 관계가 주축이 되어 조직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학회 활동에서 학계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회고가 있다¹⁷⁷⁾. 관계(官界)나 실무계의 건축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상황에서 6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대졸자가 배출됨에 따라 비로소 중심이 학계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그림 3-3] 대한건축학회 발기인 명단(1950년 경)
(자료 : 대한건축학회 소장, 장기인 선생 자료를 2013년 이문보 선생이 기증)

177) 이문보(2001). ibid., p.30

그러나 학술단체로서의 성격은 설립 당시 회칙의 개정으로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신이었던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회칙을 계승하였지만 설립목적이 새로 정리되었다. 특히, 건축과 사회 각 부분과의 연계협력을 구하는 부분, 국책에 관한 협력 등을 삭제하고 건축에 관한 설계, 감독 등의 부분을 삽입하여 정치성을 배제된 순수한 학회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¹⁷⁸⁾.

[표 3-21] 조선건축기술협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설립 목적 및 회원 자격

구분	조선건축기술협회 (1947.4.23.)	대한건축학회 (1954.3.30.)
회원	정원, 찬성원	①정회원 ②준회원 ③명회회원 ④찬조회원
목적	1. 건축에 관한 학술기예의 연구 및 조사 2. 건축기술자의 등록배치 3. 건축교육의 진흥 및 노무자의 기능 향상 4. 건축 각부분의 연락 협력 및 건축과 사회 각분야의 연계협력 5. 건축 국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실시에 협력 6. 건축에 관한 사회인식의 개발과 보급 7. 기타 본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 건축에 관한 조사 및 연구지도 2. 건축에 관한 도서 기타 잡지 인쇄물의 간행 3. 건축에 관한 간담회, 강연회, 견연회(見宴會), 전람회의 개최 4. 건축에 관한 계획설계 감독의 위탁, 기타 본회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항.
회원자격	정원 : 건축의 수술(手術)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당한 학습경험이 있는 자, 특히 역원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찬성원 :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단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	①정회원 : 정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有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 ②준회원 : 건축사업에 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자, 혹은 건축학을 전공한 자 중 정회원 2인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③명회회원 : 각계 학식덕망이 높은 인사 중 이사회의 의결로 추재한다. ④찬조위원 : 건축의 관계를 가진 개인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조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케 한다.

178) 조선건축기술단의 규정은 다음을 참조함. 조선건축기술단(1947), 『조선건축』, v.1 n.1, p.10;부록p.32

③ 조선건축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 조선건축사협회 (1946)

1946년 3월에 기존 ‘건축대서사조합’을 대신하는 ‘조선건축사협회’가 설립되었다. 조선건축사협회의 설립에는 행정적인 필요에서 관의 개입이 있었을 소지가 크다. 1945년 12월 말경 경찰청의 정 과장이라는 사람이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자 중 몇 명을 경찰청 건축과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종전의 건축대서사조합대신 조선건축사협회를 조속히 설립토록 종용하였다고 한다¹⁷⁹⁾. 당시 참석했던 인물들이 발기인이 되어 수차 모임을 가진 후 1946년 3월 1일에 ‘조선건축사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김태식(金台植)을 선출하였다. 당시 고문은 김세연과 정덕현, 부회장은 장기인, 상임위원은 신태산이었다. 설계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장차 탄생될 신국가의 명실상부한 건축사가 되기를 지향함을 목적”¹⁸⁰⁾으로 했던 조선건축사협회는 결과적으로 건축가의 지위향상과 법적인 자격획득을 위한 선구적인 노력을 하였다.

협회의 당면 과제는 앞으로 설계사무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일이었다. 이는 일제시기의 건축대서사제도를 이어받은 것이었지만, 법률에 의한 정부차원의 자격제도가 아니라 자치적인 것이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협회구성원의 상당수가 기존 건축대서사 자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상과 실천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협회는 조선건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46년 7월 8일부터 1946년 7월 13일까지 6일간 법규(法規), 구조(構造), 시공(施工) 등 7개 과목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신청자 80명중 약 60명이 심사에 통과되어 1946년 8월 이들에게 「조선건축가자격증」을 교부하였다. 심사위원장은 김세연이었으며 위원은 김태식, 김순하, 김윤기, 유상하 등 8명이었다.

179) 이종호(1992). 『1945년-1955년 한국 건축단체 연구-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180) 윤일주(1978). 『한국현대미술사(건축)』, 국립현대미술관, p.66

□ 대한건축사협회 (1965)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식 창립년도는 1965년이지만 조선건축사협회에서 이어지는 동일한 명칭의 협회가 존재했으며, 이를 간단히 구협(舊協)이라 칭하기도 한다. 구대한건축사협회가 구체화되는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였다. 피난에서 돌아 온 재경 건축대서사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결성하였고, 명칭을 대한건축사협회로 정했다. 회장에는 김세연을 추대하였고, 7·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1인의 총무이사를 선임하였다¹⁸¹⁾. 김세연 회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김순하 회장이 취임하였다.

구협은 건축사법의 제정을 위해 가장 공을 들였다. 특히 회원들은 건축대서사의 호칭을 버리고 건축사가 되기를 갈망하였다. 군사정부 초대 서울시장 시기, 회원들이 지녔던 건축대서사 자격증을 구협과 서울시가 협의하여 ‘건축사자격증’으로 표시한 것을 서울특별시 시장 명의로 새로 교부받아 회원사무실마다 달아두었다고 한다¹⁸²⁾. 구협의 기관지는 처음부터 『건축사』였다.

1963년 건축사법이 공포되면서, 제31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설립되었다. 1965년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되었고, 이때 합격한 사람들에 의해 협회발기인이 구성되었다. 발기인은 구협 회장이었던 김순하 등 11명이었고, 창립회원은 246명이었다.¹⁸³⁾

[표 3-22] 대한건축사협회 지부별 창립 회원수

지부	회원수	비율(%)
서울지부	65	26.42
부산지부	32	13.01
경기지부	22	8.94
전남지부	21	8.54
전북지부	10	4.07
경남지부	16	6.50
경북지부	16	6.50
대구지부	14	5.69
충남지부	18	7.32
충북지부	12	4.88
강원지부	10	4.07
인천지부	8	3.25
제주지부	2	0.81
합	246	100

181) 대한건축사협회(1986), 『대한건축사협회 이십년사 1965-1985』, p.72

182) 대한건축사협회(1986), ibid., p.75

183) 대한건축사협회(1986), ibid., pp.16-17의 명단을 집계

④ 한국건축작가협회 및 한국건축가협회

□ 한국건축작가협회 (1957)

한국건축작가협회는 당시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던 건축가들이 1957년 2월 18일에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단체이다. 초기 회장은 이천승이었고, 총무위원은 이희태, 사업위원은 배기형, 연구위원은 김희춘이 담당하였다. 한국건축작가협회는 “건축가 상호간의 친목과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며 발전도상의 한국건축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창립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친목단체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¹⁸⁴⁾.

한국건축작가협회는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당시에 건축을 기술로서만 이해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예술로서의 건축을 주장하고, 작가라는 직분으로서의 자각의식과 건축가의 대 사회성에 자신들의 지위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출발하여, 지식과 경력, 인격을 갖추어야 회원으로 영입하는 등 비교적 자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여 처음에 함께 참여했던 구조분야의 전문가들, 김창집, 함성권, 조병섭 등이 자진 사퇴했다는 미담도 전해진다.

건축가의 작가로서의 지위는 해방 직후 미술계에서도 작은 조직을 결성했었다. 대한미술협회의 건축분과에서 이천승, 강명구, 엄덕문, 박학재, 정인국 등의 건축계 인사가 활약했고, 1955년 한국미술협회가 발족한 후 산하 건축분과에서는 이희태, 김정수, 김태식 등이 활동했다. 대한미협과 한국미협은 홍익대학과 서울대학의 인맥들이 갈등하여 미술계가 양분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이와 별개로 건축계 인사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협력했다. 한국건축작가협회는 대한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와 대등한 자격으로 문화예술로서 건축의 진흥을 위해 노력했다.

1953년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김윤기 회장이 선출되었고, 상무이사에 김태식, 이희태 등이 선출되었다. 이후 협회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건축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회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184) 한국건축작가협회(1994). 『한국건축작가협회사 1957-1990』, p.15

□ 한국건축가협회 (1959)

한국건축가협회는 한국건축작가협회가 1959년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한국건축작가협회는 건축가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더해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교류를 통해 건전한 발전과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정비했다¹⁸⁵⁾.

이에 따라 한국건축가협회는 1961년 UIA 가입을 결의하고 홍순오, 김동규 이사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UIA 가입은 1963년 제8차 멕시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그전에는 1962년에 창립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기간단체로 가입하여 명실상부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UIA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한국건축가협회의 조직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건축가연맹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작분과위원회, 구조분과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실내장식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밖에도 회원자격심사분과위원회, 재정위원회, 간행분과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이 조직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 정관에 의한 사업은 ①건축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교환, ②건축가의 임무를 정당하게 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③건축가 상호간의 업무 질서 유지와 회원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 ④회지 기타 건축에 관한 자료의 출판, ⑤건축에 관한 강연회, 전시회 및 견학회 등 개최, ⑥건축에 관한 교육 및 연구, ⑦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1965년의 사업보고에는 초기활동의 성과가 잘 드러나 있다¹⁸⁶⁾. 2월에 건축설계 업무 보수규정의 개정판 1,000부를 인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였고, 4월에 ‘고건축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5월에는 ‘알루미늄 새시의 용법과 특징’을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6월에는 ‘공기조화 냉동위생에 관하여’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조분과위원회’에서 구조 계산기준 작성을 개시했으며, 제3회 한국고건축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9월에는 제3회 현대건축작가전을 10일에 걸쳐 공보부, 예총, 주한미국대사관 후원에서 개최하였는데, 전시작품은 공모작품, 외국작품, 회원작품을 합쳐 총 36점이었고 약 5,000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85) 한국건축가협회(1994). 『한국건축가협회사 1957-1990』, p.16

186) 한국건축가협회(1994). ibid., pp.23-24

한국건축가협회의 초기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1960년대의 건축사법 제정과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의 실시였다. 한국건축가협회는 1960년 10월에 건축가들의 건축작품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정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논한 기록이 있으며, 다음 달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연석한 회의에서 건축사법 제정을 독촉하기로 논의했다. 11월 12일에는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와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하는 3단체 연석회의 및 공청회에 참가하였고, 1961년 건축사법 심의회를 구성 3단체가 공동으로 심의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면서,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건축학회와 연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축사법 개정건의서’에는 시험자격 연한의 단축, 설계도서 등록제 폐지, 법의 시행일을 최소한 공포 후 6-7개월 이후로 할 것, 대서사의 전형특례조항 삭제, 대한건축사협회의 직무대행 삭제 등이 포함되었다.

4. 초기 한국인 건축가 집단의 성격

식민지시기의 조선건축회는 경성고공의 건축과 교수와 각 관공서의 건축기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해방후 이들이 명칭을 개편, 조선건축기술단을 창립하면서 조선건축회의 한국인 전원이 자동가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잔재 청산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조선건축회의 성격이 조선건축기술단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한국건축계의 절대다수를 점유하였던 경성고공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되었던 조선건축기술단은 경성고공출신의 졸업생 모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어려웠으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칭변경과 조직의 전국적인 확대는 불가피했다¹⁸⁷⁾.

조선건축기술단(1947), 조선건축기술협회(1949), 대한건축학회(1955)의 초기 임원구성을 보면, 경성고공출신의 엘리트들이 주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전습소 출신의 손형순, 와세다 출신의 김윤기, 일본대학 출신의 김태식, 미네소타 출신의 박인준 등 소수의 타 교육기관 출신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비대칭성은 식민시기 교육기관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당시로서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다수의 건축가를 일본인으로 충당했던 식민시대가 종말을 고했을 때, 국내에 남은 건축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불행하게도 새로운 건축양식이나 구조는 일제 강점기 일본사람을 통해 들어왔고, 그들을 통하여 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한국사람들에게 신교육 자체도 그랬지만 기술교육을 배워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복당시 정식으로 대학교를 나온 건축가의 수는 열손가락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 지금의 중학교 정도되는 학교에서 건축을 배운 사람이 얼마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광복이 되고...¹⁸⁸⁾

건축가 단체의 구성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해방 후 대학교육에 건축학과가 개설되면서부터이다. 일제 강점기에 전문학교 수준이었던 기술중심의 공업전문학교들을 신교육법의 제정으로 대학 설립 추진에 따라 흡수 재편하게 된다. 이시기에 이르면 기술교육과

187) 이종호(1992). 『1945년-1955년 한국 건축단체 연구-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8

188) 한정섭(1981). 「권두인터뷰. 건축, 도시를 듣는다」. 『건축문화』 n.2, 1981-07, p.2

기능교육에 대한 두 가지 교육이 지향한 바와 목적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교육은 기술자 교육을 주 임무로 하며 실업고등교육은 기능인 교육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었다.

[표 3-23] 건축단체의 출신학교별 분포

출신교	조선건축기술단(1947)		조선건축기술협회(1949)		대한건축학회(1955)	
경성고공	단장 상무이사 총무이사 연구부이사 군정청 건축서 업무부이사 군정청 건축과	김세연(1920) 유상하(1930) 이원식(1928) 김동수(1927) 김순하(1924) 김재철(1936) 김희춘(1937) 장연채(1923) 신무성(1938) 이천승(1932)	총무부장 유상하(1930) 연구부장 이균상(1925)	총무부장 유상하(1930) 연구부장 이균상(1925) 회원부장 김재철(1938) 사업부장 전창옥(1941) 이흥국(1941)	준비위원 이한철(1935) 신무성(1938) 유상하(1930) 김순하(1924)	부위원장 이균상(1925) 김새연(1928) 총무부 신무성(1938) 사업부 이한철(1935) 연구부 유상하(1930)
공업전습소			사업부 손형순	부이사장 손형순		
와세다대학	부단장 김윤기(1928)		이사장 김윤기(1928)		김윤기(1928) 김종식	위원장 김윤기(1928)
일본대학					준비위원 권경열(1936) 김태식(1941)	
미네소타대학	부단장 박인준		부단장 박인준	부이사장 박인준		
연희전문				사업주장 김종민		
간사이공학	이사 강윤					

* 출처 : 이종호(1992:98)

1) 학부 건축학과와 성립과 졸업생의 진로

① 대학교 건축교육의 시작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43년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가, 광복 후 1946년 국립 서울공업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이후 1949년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개편하였다. 사립학교였던 동아고등공과학원은 1945년 건국기술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48년 현 한양대학교의 모체인 한양공과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건축공학과 인가를 받게 된다. 한양대학교의 초기 교수진은 박학재, 선병택, 엄덕문, 송민구였다.

새로 설립한 대학교들은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교과과정과 시설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제가 먼저 승격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축교육제도에서 일본의 영향을 탈피하지 못한 채 건축과를 공과대학 안에 설치한 것은 이후 미국 유학파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¹⁸⁹⁾.

[표 3-2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1945-1950) 현황

교명	년도	졸업생	담당교·강사
後 경성공업고등학교	1944	2	이균상, 송민구 김재철, 유원준 김면식, 김형걸 김홍주, 황익근
	1945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문부	1947	3	
	1948	2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1947	1	강상천, 김충국 염창현, 김형기 김중엽, 박인순
	1948	1	
	1950	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84 참조

[표 3-25] 서울대와 한양대의 연도별 졸업생, 정원

대학교	구분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	1	0	8	5	11	10	18	19	47	51	53	25
	정원	-	-	-	-	-	-	40	40	40	40	40	40	40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30	54	-	-	28	15	23	35	42	39	50	40
	정원	-	200	200	320	360	360	360	360	360	240	240	240	240

대학교	구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합계
서울대 (계속)	졸업	40	37	27	38	53	52	37	30	43	45	692
	정원	40	40	30	40	40	40	40	40	40	40	710
한양대 (계속)	졸업	97	122	122	184	329	376	302	263	265	210	2972
	정원	240	280	360	540	480	70	125	120	120	120	6055

* 자료 : 서울대학교 졸업생 명단, 한양대학교 졸업생 명단 (각 학교 과사무실 제공)

189) 이광노·주남철(1985). 『한국건축40년사 (1945~1985)』, 대한건축학회, p.37

이처럼 6.25 이전 남한에 설치된 건축학과는 서울대와 한양대 단 두 곳뿐이었지만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 시에도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고난을 극복해왔다. 그러므로 서울대 건축학과와 한양대 건축공학과가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건축계의 거의 유일한 인재 공급원이었다¹⁹⁰⁾. 현대적인 대학체제 건축교육을 받은 첫 졸업자는 1947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이다.

② 학부 건축학과와 전국 확산

6.25 동란 과정에서 부산으로 모여든 건축인들은 교육활동과 관청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다. 피난지 부산에서 김택진은 부산공업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박학재, 엄덕문, 김창집, 김중업 등이 부산공고에서 시간강사 등으로 건축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대학교육의 명맥이 유지되었다. 피난지에서는 동아대학교가 이종수를 중심으로 건축교육을 시작했다.¹⁹¹⁾

당시 건축교육의 열악한 상황은 원로건축가들의 구술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부족한 시설로 인해 실습보다는 강의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재가 없어 구술을 받아 적는 것이 대표적인 강의방식이었으며, 교수들은 전공을 넘어서는 많은 과목을 강의해야 했다.

정확히 말해서 1949년에서 1953년 봄까지가 재학시절이었다. 이중 6개월 정도가 그런대로 교실다운 교실에서 강의를 들었고 그 나머지 동안은 한마디로 피난 유랑의 계속이었었다.(...)그 밑에 초라한 박학재 교수님의 판자집이 있었으며, 매일이다시피 시내에서 박교수님과 만나는 것이 강의이며 수업이었다. 다방이나 남의 설계사무소에 앉아서 사제지간에 둘이서만 세상을 논하고 건축을 논했으니 다시없는 대학시절이었다. (이해성)¹⁹²⁾

당시 교육상황은 강사의 강의에 의한 구술을 받아 적는 것이 고작이었다. 참고서적은 일본 책으로 신간은 구독하기가 힘들 때다. 3학년 말부터 교재가 프린트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전문 서적의 시조인 격이다.¹⁹³⁾

190) 류전희(1993). 「한국 대학건축교육의 출발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v.2, n.2, p.91

191) 김육성(1990). 『1945년부터 1955년까지 韓國建築界 形成期 性格에 관한 研究-1919년~45년 동안 건축교육을 받은 세대의 교육실태 및 그 영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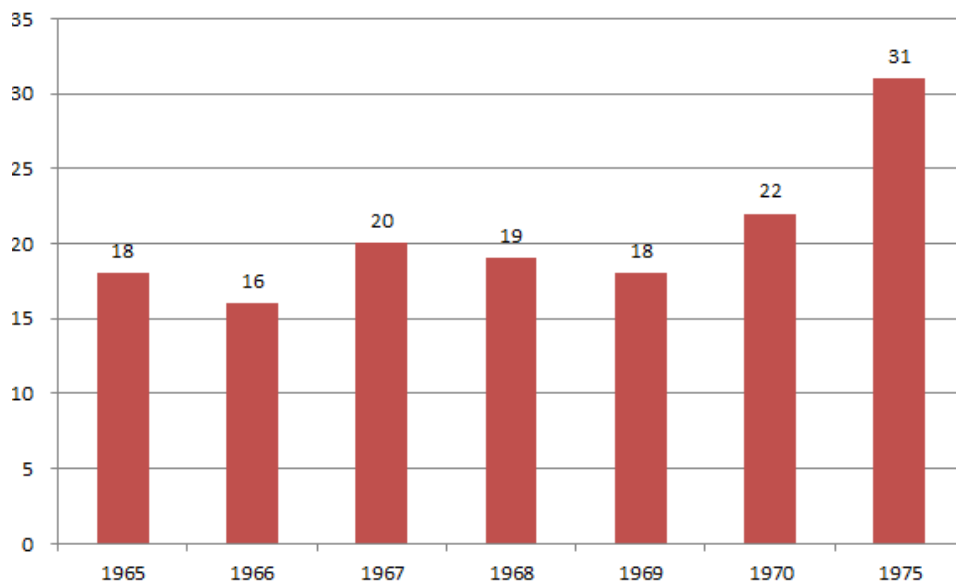
192) 『한양대학교 건축동문회보』, 1987, 건축동문회, p.16

193) 『한양대학교 건축동문회보』, 1987, 건축동문회, p.24

내가 한양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52년 10월경인데 부산피난시절 완월동 산 위의 판자집 교사시절이지요. 당시 건축과 교수라고는 故 박학재 선생 혼자뿐이셨는데 나를 만나 시고 즉석에서 교수로 채용, 30년의 교수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성권)¹⁹⁴⁾

6·25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건축교육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부산피난시절 공대건축과정을 대청동에서 군대용 천막 두 개에 제도판 2개로 교육을 하였는데, 그 때 학과장이었던 분이 이균상 선생이었습니다. (최창규)¹⁹⁵⁾

교수가 부족하다 보니 가르칠 선생이 없으면 내가 다 했지. 설계, 계획, 시공, 역학, 법규 등 안 가르쳐 본 과목이 없어. 그것 못한다하면 그만인데 그러질 못했지. 하나만 밀고 나가야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손해더라구. 하긴, 당시에는 다 그랬지만. (김한섭)¹⁹⁶⁾



[그림 3-4] 전국 건축관련 학과 설치 대학 수 (1965~1975,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참조)

194) 『한양대학교 건축동문회보』, 1987, 건축동문회, p.36

195) 최창규(1985). 「특집:해방40년-건축」, 『공간』, 1985-10, p.70

196) 김한섭(1984), 『건축가 김한섭(김정동 대담)』, 금성종합설계공사, p.12

1951년 8월 1일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 김장익 선생 사택에서 환도하는 학생들을 기다려 등교접수 사무를 시작, 이날 20여명의 학생으로서 개강을 하였다. 교실이래야 지붕과 기둥 밖에 없는 정도이고 덜 허물어진 벽을 막아서 가마니를 깔았고 주위에는 길길이 자란 잡초들이 에워싸여 있었다. 이 임시학교는 이해 9월 훈육소(訓育所)가 설치되기까지 날로 학생들이 늘어났고, 시설난과 교사진으로 학교장은 매년 교사구하기 작전으로 부심하였고, 교과서와 교복 등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강의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당시 군부로부터 전시중인 일선지구엔 무슨 학교설치냐고 항의를 받으면서 학생들을 질서있게 수용하는 것이 전쟁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고 이롭지 않겠느냐고 설득시키기도 했다.¹⁹⁷⁾

또한 전쟁 직후 분단의 결과 강사진이 크게 축소되었다. 서울대의 경우 1946년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전 까지 3명의 교수, 7명의 전임강사가 활약했었으나,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과 6.25 등으로 인하여 담당 교원의 월불, 납북, 사망 등으로 교수진이 부족해졌다¹⁹⁸⁾.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을 받은 세대가 부족한 교수 자리를 메꾸게 되었는데, 유학세대의 복귀, 미군정의 영향 등으로 일제식의 기술 중심 교육보다는 미국식의 엘리트주의 교육으로 교과내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 학제의 영향으로 건축학과는 공과대학에 건축공학과와 형태로 설치된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대학에 따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축미술학과, 토건학과 등의 명칭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와 한양대의 뒤를 이어 문을 연 대학은 전남대, 청구대(영남대의 전신), 충남대, 조선대, 부산대 등이 있었다¹⁹⁹⁾. 청구대학은 1950년 야간부에 토건학과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52년 건축공학과로 다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홍익대학에는 1954년 윤효중을 주축으로 건축미술학과가 설립되었다. 당시 윤효중은 미술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중견미술인이었다. 건축미술학과에는 학과장으로 정인국, 교수에 김창집, 엄덕문 등이 초빙되었다. 홍익대학교 건축미술학과는 건축을 예술로 인식하려 한 예술인의 동참과 지원 아래에서 출범하였다는 점과 한국건축교육의 방향을 예술지향적인 것으로 구체화한 최초의 대학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7) 90년사 편집위원회(1989), 『서울공고 90년사』,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 p.198

198) 심상호(1993). *ibid.*,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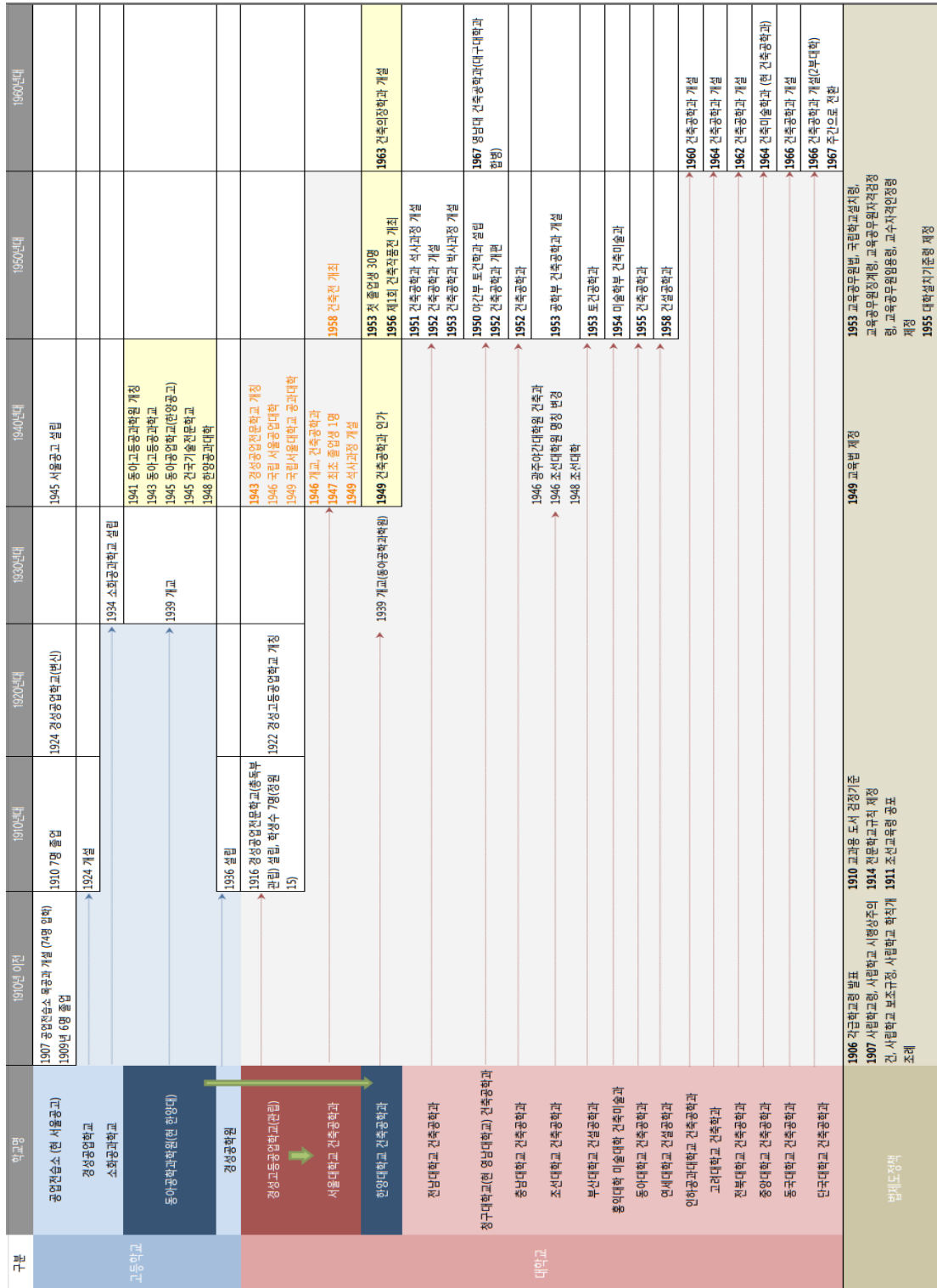
199) 학부, 대학원 건축학과와 인가년도는 각 대학·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함

[표 3-26] 해방 후 1950년대 대학별 건축 관련 학부, 대학원 인가년도

대학교	학부 인가년도	대학원 개설년도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1946	1946	1946
한양대학교(공)	1949	1953	1959
전남대학교	1952	1953	1953
영남대학교	1952	1960	1979
충남대학교	1952	1963	1979
조선대학교	1953	1956	1973
부산대학교	1953	1958	1961
홍익대학교	1954	1963	1973
동아대학교	1955	1966	1990
연세대학교	1958	1960	1961
인하대학교	1960	1969	1975

* 해방 후 1950년대 대학별 건축(공)학과 학부, 대학원 인가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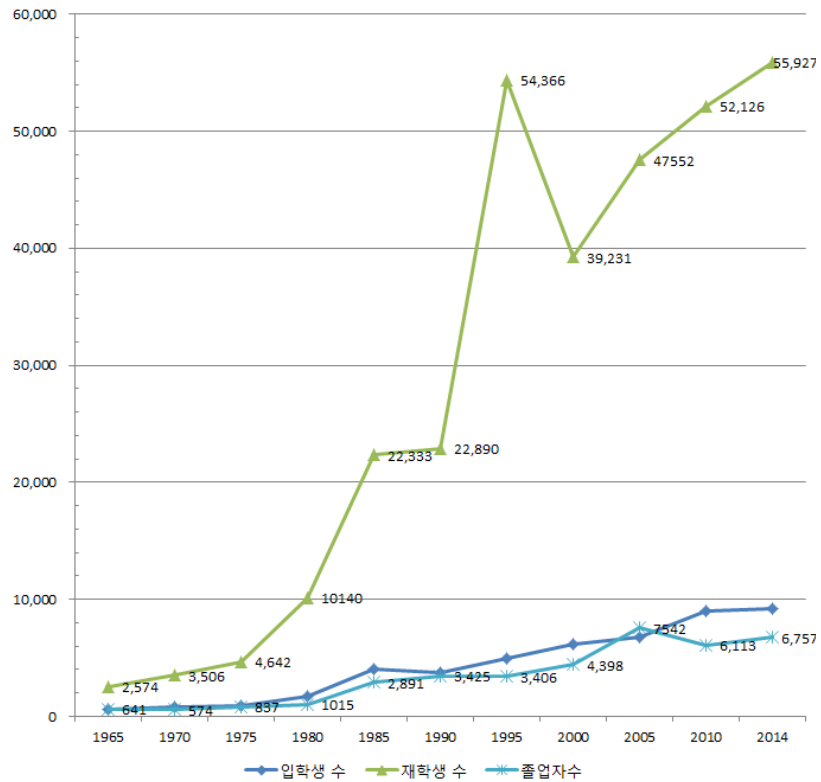
1950년대에 건축공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8곳이며 1960년에 문을 연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포함하면 196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교는 총 11개로 추정된다. 이밖에 전북대학교(1962), 고려대학교(1964),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1964) 등이 1960년대에 개설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965년까지 18개에 불과하던 건축 관련학과 설치 대학이 1975년에는 31개까지 늘었으며, 1980년대에는 건설경기 붐으로 건축공학과를 개설한 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졸업정원제’의 시행으로 입학정원의 30%가 증가하여 학생 수가 급격히 늘었다. 한편 석·박사 과정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상승된 학력을 가진 건축가 집단의 확대 생산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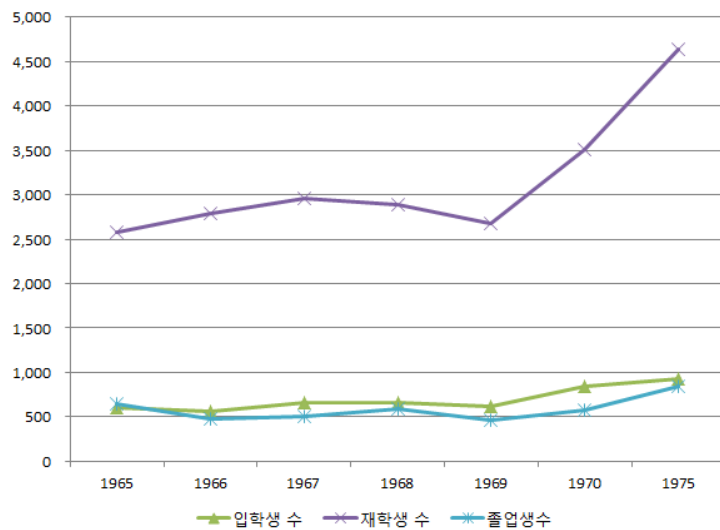
[그림 3-7] 초기 건축 고등교육기관 연혁

학교	교수진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비고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진영(강사)	○																										필록 1969년 사망 1979년까지 재직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청구대학교 (원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조진영(강사)																											

[그림 3-8] 초기 주요대학(서울대, 한양대, 청구대)의 교수진 분포



[그림 3-9] 대학교 건축학과 입학 및 졸업자수 추이
(1965년 이후 5년단위,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3-10] 전국 건축관련 학과 학생 및 졸업생 수
(1965~1975,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 원로 건축가들의 교육과 사회진출 조사

① 건축학과 동창회 명부 조사

□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개 학교(서울대, 한양대, 조선대, 영남대, 전남대, 부산대, 충남대, 홍익대, 동아대, 연세대, 인하대)에 대하여 각 학교의 동창회 및 학과사무실을 통하여(일부 학교는 총동창회 명부 자료를 활용), 1965년 이전 졸업생 명부를 조사 집계하였다. 각 학교 건축학과와 초기 졸업자들의 자료는 각 학교의 총동창회 명부가 작성되거나 학과의 기념집이 출간되는 시점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초기 졸업자들이 이미 작고하였거나, 졸업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동기간 졸업자 3,3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6.6%인 1,549명의 진로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3.1%는 별세하고, 약 6.6%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는 조사시점의 직업이기 때문에, 졸업 직후 혹은 최후의 직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3-27] 1965년 이전 학교별 건축학과 졸업생 수

학교 \ 졸업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합계
서울대	4	10	19	8	5	10	10	17	18	42	47	58	25	40	36	27	38	51	52	517
한양대							9	17	24	42	42	56	44	105	135	128	207	349	365	1523
조선대									3	5	21	5	16	3	1	7	6	6	7	80
영남대										14	13	25	16	15	23	23	40	58	61	288
전남대										9	21	12	6	8	14	4	28	29	18	149
부산대												27	23	29	38	16	12	20	18	183
충남대												21	5	22	23	17	26	23	28	165
홍익대												11	11	9	10	16	21	19	36	133
동아대													7	23	7	12	29	23	32	133
연세대																7	17	33	34	91
인하대																	6	28	28	62
합 계	4	10	19	8	5	10	19	34	45	112	144	215	153	232	287	255	430	639	618	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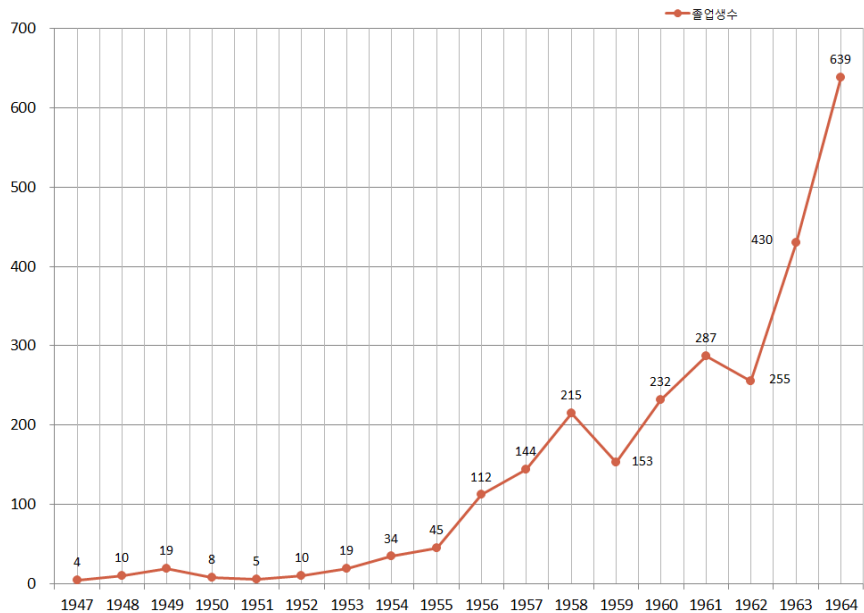
* 각 학교 동창회 및 학과 사무실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이전 졸업자들의 전반적인 진로의 현황을 제한적으로나마 파악하여, 건국 이후 초기 건축학과 졸업자들의 규모 및 각 학교별 졸업자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경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데 본 분석의 의의가 있다. 특히, 졸업자들의 직업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여, 미상비율이 적은 서울대와 충남대의 자료는 신뢰할 만하다.

□ 전후 건축학과 졸업자의 증가 추이

공식적인 4년제 학부 건축학과와 졸업생은 1947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4명)에서 배출되었으며, 1960년까지 설립된 11개 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에서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6.25 전쟁 전 졸업생을 배출한 학부 건축학과는 서울대가 유일했으나, 전후 복구 수요의 증가 및 초기 고등교육 세대의 교육계 재편입이 이루어지는,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건축학과 졸업생이 급증하였다.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한 세대들이 다시 교육계에 재편입되는 시기로는 1956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며, 이들은 대학교직에 선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사무소 운영 및 기타 자신의 사회참여 활동에서 현실적인 플러스요인으로도 작용했다. 50년대 후반기 대학의 졸업생들은 대다수가 교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1955년에서 1965년에 이르는 약 10여 년 동안 매해 건축학과 졸업생 수는 45명에서 618명으로 약 1,300% 증가하였으며, 건축학과와 수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1965년까지 서울대, 한양대, 영남대의 건축학과 졸업자의 수는, 전국 건축학과 졸업자 수의 약 70%에 달했다. 다음 장에서 검토할 제1회 건축사시험이 실시된 1965년을 기준으로 한양대 졸업생이 1,523명, 서울대 졸업생이 517명, 영남대(청구대) 졸업생이 288명이 배출되었다. 한 해 건축학과 졸업생이 100명을 넘어선 것은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서울대, 한양대의 졸업생이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조선대, 영남대, 전남대에서 졸업생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또 한 번의 급격한 졸업생수 증가는 1963년 한양대의 졸업생이 200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1964년과 1965년 한양대 졸업자수는 350명 내외로 집계된다.



[그림 3-11] 1960년대 이전 개설된 학부 건축학과 졸업생수(1947~1964)
(자료 : 1960년 이전 건축학과를 개설한 11개 학교의 각 졸업생명부)

□ 1965년 이전 건축학과 졸업자의 사회진출 현황

- 건축설계 분야의 진출이 우세

1965년 이전 건축학과 졸업자의 약 16.3%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설계 분야 진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인 학교는 부산대로서 24.6%에 달했으며, 가장 적은 연세대는 5.5%였다. 각 학교별 격차가 있지만, 졸업자들의 가장 높은 진출분야임에도 전체의 1/4을 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학과와 교육이 공대에 소속되어 설계, 시공, 구조의 다양한 건축계 소속인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공서 취업자의 비중 약화

일제 강점기 동안 건축분야 고등교육의 발전은 전문직 관료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졸업자들의 관공서 취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²⁰⁰⁾. 이에 비해 해방이후 1965년 이전 건축학과 졸업자들의 비중은 그에 크게 못미쳐 전체 졸업자의 약 5.4% 만이 중앙 및 지방

200) 예를 들어, 일본 도쿄대 건축학과 졸업자의 경우 건축감독관청 및 관공서 영선직 진출자가 전체의 약 38%에 달했다. 건축감독관청(5.8%), 관공서 영선직(32.4%), 거대기업 영선과(6.7%), 건축사무소 직원(3.8%), 청부기업 구성원(15.6%), 건축사무소 운영(8.4%), 공무소 등 자영(1.3%)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하였다. 이는 관주도의 건설산업이 민간에 이양됨으로써 관청에서 고급기술직의 수요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충남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청 및 국토개발 관련 청의 영선과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표 3-28] 학교별 1965년 이전 졸업자의 진로

	서울대	한양대	영남대	전남대	충남대	조선대	홍익대	부산대	동아대	연세대	인하대	총계
건축설계	10.5%	17.1%	23.3%	20.1%	11.8%	6.3%	15.8%	24.6%	19.5%	5.5%	0.0%	16.3%
건설회사	18.5%	7.0%	3.1%	11.4%	4.9%	1.3%	3.0%	6.6%	5.3%	5.5%	6.1%	8.3%
관공서	5.5%	4.1%	1.4%	2.7%	38.2%	18.8%	1.5%	0.0%	0.0%	10.9%	0.0%	5.4%
교직	11.1%	3.4%	4.5%	5.4%	22.2%	25.0%	3.8%	4.9%	2.3%	3.6%	3.0%	6.2%
은행	4.5%	0.4%	0.0%	0.7%	2.8%	1.3%	0.0%	0.5%	0.0%	0.0%	0.0%	1.1%
기타	12.8%	4.8%	4.9%	3.4%	8.3%	7.5%	6.8%	6.0%	6.0%	0.0%	0.0%	6.4%
해외체류	12.4%	6.8%	2.8%	3.4%	0.7%	0.0%	7.5%	3.3%	7.5%	3.6%	0.0%	6.6%
별세	3.5%	0.4%	11.5%	0.0%	1.4%	0.0%	12.8%	4.4%	8.3%	16.4%	0.0%	3.1%
미상	21.2%	56.1%	48.6%	53.0%	9.7%	40.0%	48.9%	49.7%	51.1%	54.5%	90.9%	46.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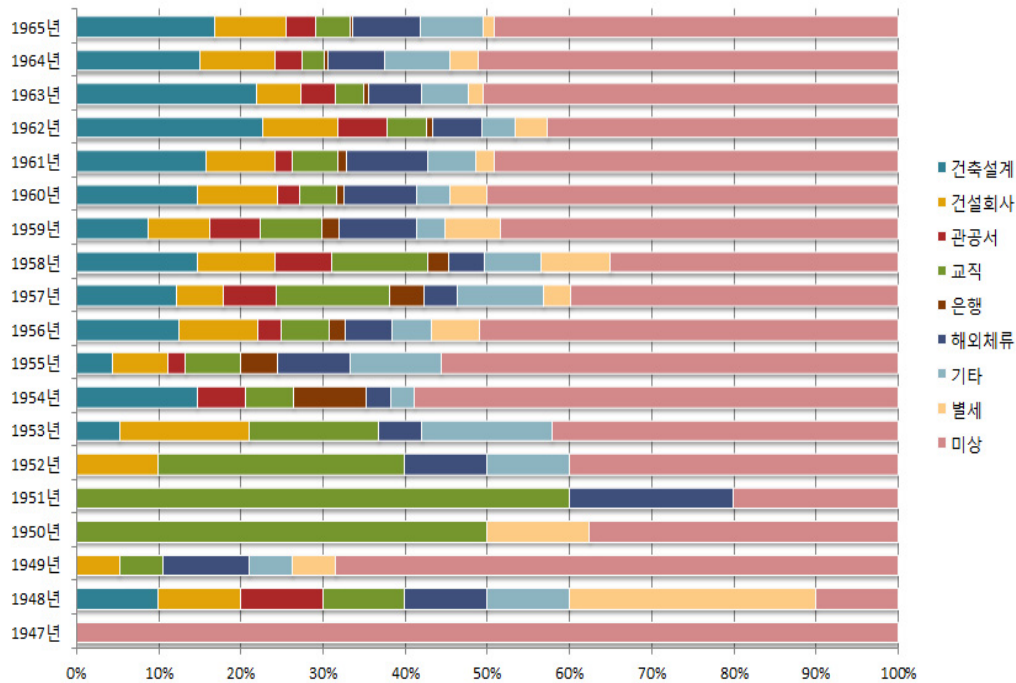
* 각 학교 졸업생명부, 동창회 및 학과 사무실 제공

- 건설회사 취업자 및 경영인의 증가

건설회사로의 진출 비중은 8.3%로 16.3%인 건축설계분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지만, 6.25 전쟁 후 전후복구 및 건설산업의 발전으로 졸업년도에 따라 건설회사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대 졸업자의 경우, 건설회사 취업자의 비중은 18.5%로, 건축설계 분야 진출자 비중 10.5%에 비하여 높았다.

- 금융회사 및 학교 시설과 취업

학교별로 일부 졸업생의 경우, 조직의 독립된 시설과가 있었던 금융회사 및 학교로의 취업도 이루어졌다.



[그림 3-12] 1965년 이전 건축학과 졸업자의 사회진출 분야
(자료 : 1960년 이전 건축학과를 개설한 11개 학교의 각 졸업생명부)

- 설계분야의 확대와 교직분야의 축소

6.25를 전후 하여 학부 건축학과와 개설은 증가하였지만, 전문교육이 가능한 교사 및 교수의 부족하였으므로 이 시기에는 교직분야 진출자들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전체 졸업생이 급증하여 교직분야 진출자의 전체 비중은 감소하였다. 대신에 설계분야로 진출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② 원로 건축가 인명록 조사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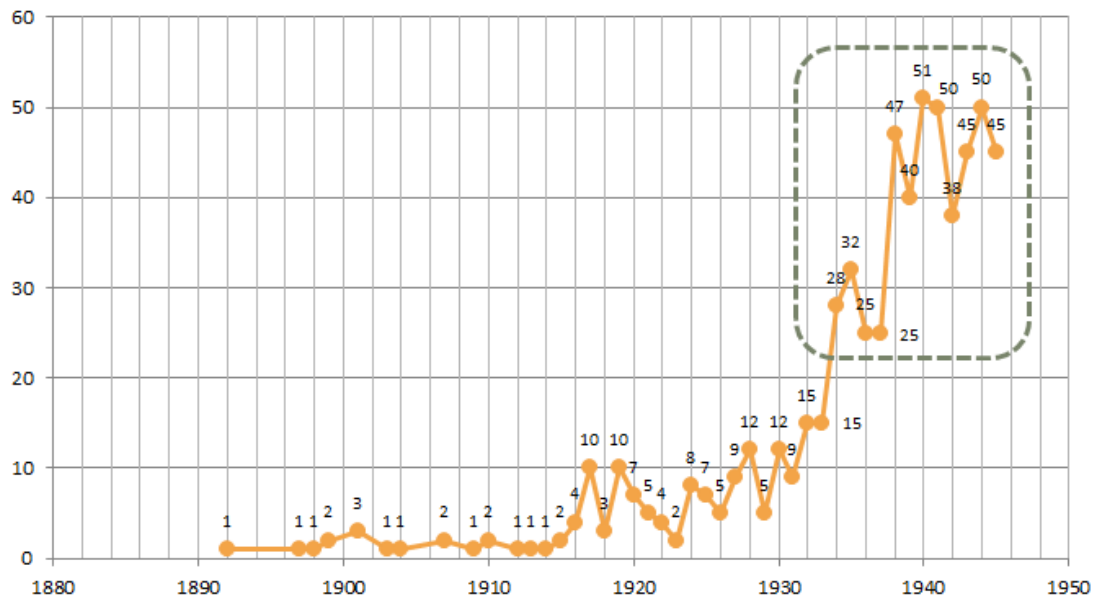
건축사 제도의 시행시점인 1965년에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했던 성인 이상의 건축가들의 교육과 건축가 업무활동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장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한국건축가협회(2000)의 『한국의 현대건축가_한국현대건축총람2』의 건축가인명록을 정리하였다. 상기 건축가인명록에서 수록하고 있는 건축가들 중 1945년 이전의 출생자 643명에 대

하여 자료기입이 미비한 경우를 뺀 638명의 인명록 자료를 바탕으로 이력표와 총괄표를 작성하여 기초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종 협회와 학회, 대학 명부와 대조작업 후 이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심화 분석을 진행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현대 건축계에서 원로로서 대우하고 기념하는 선배 건축가 세대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 원로 건축가의 연배

- 1945년 이전 출생의 원로 건축가의 대부분은 1930~40년대 출생자

전체 원로 건축가 638명 중 약 83%에 해당하는 527명이 1934년 이후 출생자이며, 전체 평균 출생년도는 1935년이다. 1934년 이후 출생자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대학교육의 세례를 받은 첫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윗세대의 건축가들은 일제시기 동안 교육을 받았거나 해방 후 최초로 고등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그림 3-13] 원로 건축가들의 출생년도별 분포

□ 원로 건축가의 출신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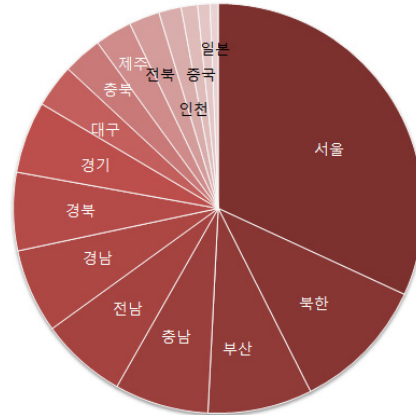
- 원로 건축가들은 주로 서울지역 출신

전체 원로 건축가들의 약 1/3에 해당하는 197명이 서울지역 출신자였으며, 부산 및 충청남지역 출신이 뒤를 이었다. 현재 북한지역에 해당하는 평남, 평북, 함남 등의 출신자도

전체의 약 10.7%에 달하며, 중국과 일본지역 출신자도 소수 분포한다.

[표 3-29] 출신지역별 원로 건축가 분포

지역	건축가수	비중
서울	197	31.9%
북한	66	10.7%
부산	51	8.3%
충남	46	7.4%
전남	42	6.8%
경남	41	6.6%
경북	38	6.1%
경기	35	5.7%
대구	21	3.4%
충북	19	3.1%
제주	18	2.9%
전북	15	2.4%
인천	11	1.8%
중국	8	1.3%
강원	6	1.0%
일본	4	0.6%
총합계	618	100.0%



[그림 3-14] 지역 비중

* 출신지역 표기가 안된 20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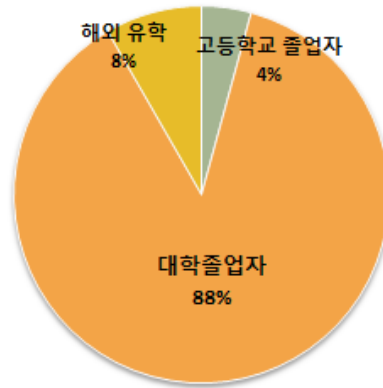
□ 원로 건축가의 학력

- 대부분이 대학졸업자인 엘리트 계층

원로 건축가로서 기록된 건축가들은 대학졸업자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소위 엘리트 계층이며, 이는 1944년 기준 교육경험자가 전체 인구의 약 13.8%를 차지하고 이중 대졸자는 1%가 채 되지 않던 해방 전후의 교육수준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로 판단된다. 대학졸업자 중 약 48.3%에 해당하는 308명이 한양대와 서울대 출신이며, 한양대와 서울대만이 6.25 전쟁 이전에 개교한 건축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홍익대와 영남대 출신자가 각각 전체의 약 10.2%, 약 5.8%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해외 유학을 경험한 건축가들도 전체의 약 8%에 해당하는 48명이며, 이들의 주요 유학 대상국가는 일본이고, 이밖에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한 건축가가 유학생 전체의 약 10여%를 차지한다. 원로 건축가로 기록된 638명 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24명, 3.8%에 불과하다.

[표 3-30] 출신학교별 원로 건축가 분포

학교	건축가수	비중
한양대	173	27.1%
서울대	135	21.2%
홍익대	65	10.2%
영남대	37	5.8%
부산대	24	3.8%
연세대	24	3.8%
동아대	16	2.5%
전남대	15	2.4%
인하대 건축학과	14	2.2%
경성고등공업학교	13	2.0%
충남대	13	2.0%
기타대학	37	5.8%
고등학교 졸업자	24	3.8%
해외 유학	48	7.5%
합계	6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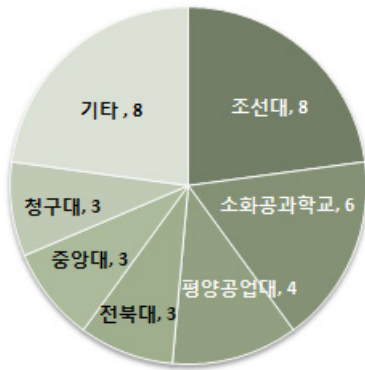
[그림 3-15] 학력 비중

주 : 원로 건축가의 출신학교는 최종학력을 학부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므로, 이후 석박사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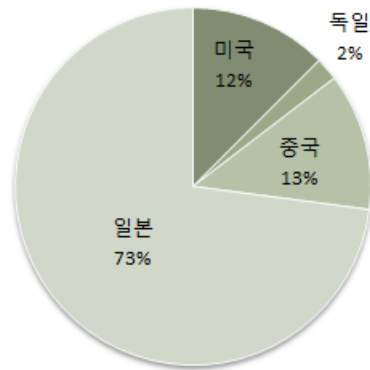
[표 3-31] 일제강점기 조선인 교육수준(1944년)

구분	전체 인구		남자		여자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대졸	7,374	0.03%	7,272	0.07%	102	0.00%
전문학교졸	22,064	0.10%	18,555	0.17%	3,509	0.03%
중졸	199,642	0.88%	162,111	1.47%	37,531	0.32%
국고졸	49,942	0.22%	40,702	0.37%	9,240	0.08%
국초졸	1,637,042	7.18%	1,281,490	11.65%	355,552	3.01%
국초퇴	254,805	1.12%	190,250	1.73%	64,555	0.55%
간서수(서당)	980,122	4.30%	864,308	7.86%	115,814	0.98%
교육 합계	3,150,991	13.82%	2,564,688	23.32%	586,303	4.97%
비교육 합계	19,642,775	86.18%	8,430,940	76.68%	11,211,835	95.03%
계	22,793,766	100.0%	10,995,628	100.0%	11,798,138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교육정도별 조선인 인구, 1944



[그림 3-16] 기타 학교 출신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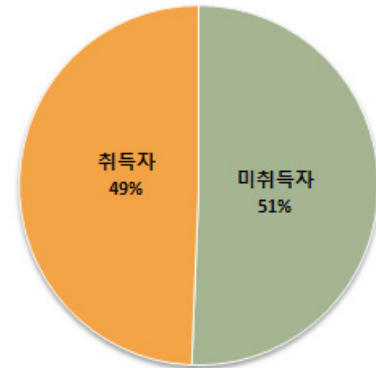


[그림 3-17] 유학 대상지별 비중

□ 건축사 자격증 취득 여부

- 건축사 자격 취득자와 미취득자 비율은 비슷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의 약 49%에 해당하는 315명으로서 미취득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원로 건축가의 대부분이 대졸자인데 비하여 건축사 자격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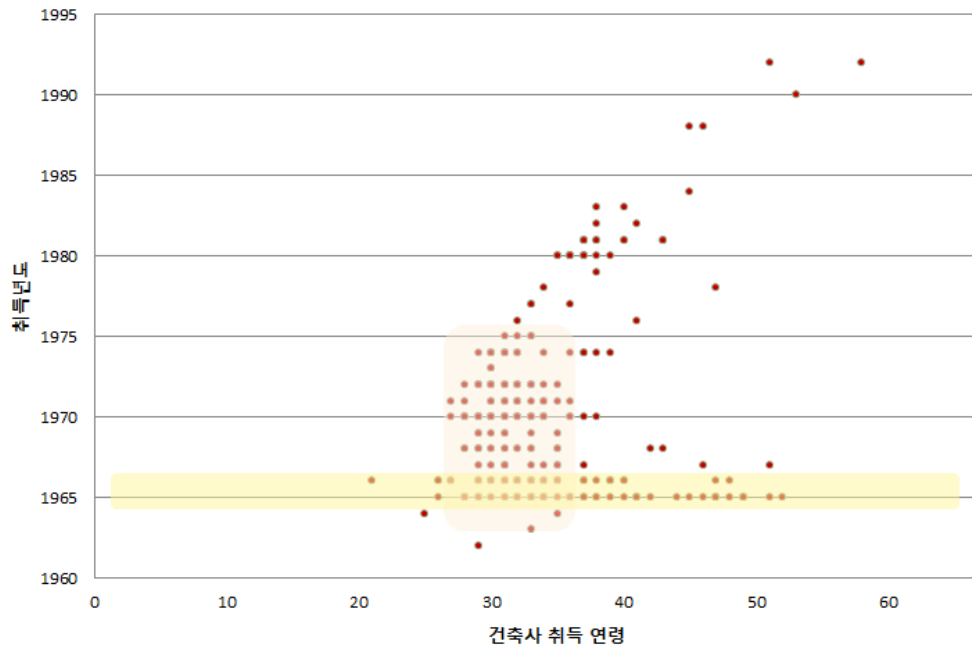
[그림 3-18] 건축사 자격 취득자 비율

□ 국내 건축사 자격증 취득 연령

- 국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평균 연령은 33.9세

45년 이전에 출생한 원로 건축가의 건축사 자격 취득 연령은 평균 33.9세이다. 건축사 평균 취득 연령을 고려할 때, 45년 이전 출생 원로 건축가 중에서 가장 젊은 45년생이 만30세가 되는 75년까지 건축사 취득자는 전체 취득자의 대부분인 약 86%에 해당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첫 해인 1965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4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약 14%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37.9세이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 첫해에 자격을 취득한 건축가 중 최연소자는 26세, 최고령자는 52세이다.²⁰¹⁾

201) 1급과 2급 취득자를 구분하지 않음



[그림 3-19] 취득년도별 건축사 취득 연령 분포

□ 복수 자격증 취득 여부

-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타 분야 자격 중복 취득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90명, 약 15%는 건축시공기술사 및 도시계획기술사 등의 고급 기술자격을 중복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조경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인접분야나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보수기술자, 문화재신축설계기술자 등 문화재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자격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 건축사 자격 미취득자 중 약 24명은 해외의 건축사를 취득하였으며, 해외에서 건축사를 취득한 나라로는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표 3-32] 원로 건축가들이 취득한 주요 기술 자격

국가	분야구분	자격
한국	건설 기술	건축시공기술사, 갑종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한국고건축설계 시공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건축 설계	건축대서사, 건축사
	해방전	조선건축사, 조선주택영단 기사
	경영	한국경영기술지도사, 한국경영지도사, 한국기술사회건축시공기술사/원가관리사/경영진단사
	실내건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건축시공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 기술사
	토목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문화재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보수기술자, 문화재신축설계기술자
일본		일본 건축시공기술사, 일본 건축사
독일		독일건축사
미국		미국건축사, (뉴욕), (메사주세츠 버몬트, 메인, 오하이오),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시카고), (일리노이), (뉴저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미국령 사이판 건축사, 미국지방서기술사, 미국조경건축사(텍사스)
프랑스		프랑스건축사, 프랑스도시계획가
호주		호주건축사(캔버러시)

제4장 건축사 자격제도의 성립

1. 건축사 자격제도의 성격
2. 일본과 한국의 건축사법 제정운동
3. 건축사의 정의와 자격의 문제
4.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의 문제

1. 건축사 자격제도의 특징

건축사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자격제도로 성립한 것은 미국의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가가 건축 및 회계분야 전문직을 규제하지 않았다. 국가는 다만 이들 전문직이 취한 행동에 반응을 보일 뿐이었으며, “냉정하고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면서 최대선을 추구하고 최소악을 시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뿐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²⁰²⁾ 즉, 건축사 자격은 전문직들의 단체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더해 국가적·행정적 필요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특히 엄청난 건축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건축사 자격제도는 그 강제력에 따라 등록, 인정, 면허 등의 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완전한 독점을 보장하는 면허제도는 실현되기 어렵다. 더구나 설계 행위의 독점 자체가 불가능한 성격을 띠고 있고, 건축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훌륭한 설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제도의 실행은 항상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각국 건축사 자격제도의 성립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건축사의 정의와 자격, 업무와 책임의 문제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202) Keith M. Macdonald(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Sage Publication (London, 1995), 권오훈 역, 『전문직의 사회학』, 일신사, 1999, p.204에서 재인용

1) 미국의 건축사 제도

□ 건축사 등록제도의 성립

미국은 1897년 일리노이주에서 건축사등록법이 최초로 성립되었으며, 1925년경까지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건축사등록제도가 도입되었고, 1951년에 이르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각 주별 건축사등록법의 제정 및 시행이 완료되었다.

미국의 건축사제도의 운영은 1919년 설립된 미국건축사등록원(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이하 NCARB로 표기함)에서 시행하고 있다²⁰³⁾. NCARB는 연방제라는 독특한 미국의 강력한 지방자치제의 틀에서 교육, 실무수련,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등록, 건축사 계속교육 등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을 통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 독자적 방법으로 시행되어오던 건축사 시험제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1984년 이후에 미연방의 54개 각 지방자치단체(50개주+4개 미국령)는 예외 없이 오로지 미국건축사시험(ARE®)을 통과한 자만을 유일한 건축사시험 합격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연방 54개 지방자치 단체 간 서로 건축사자격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²⁰⁴⁾

[표 4-1] NCARB 연혁

연도	내 용
1919	NCARB 설립 의장: Emil Lorch, 총무: Emery Stanford Hall Nashville에서 열린 AIA 컨벤션에서 형성(13개 주에서 15명의 건축가 참석) 시카고를 근거지로 함
1920	헌법과 규칙 채택 Emery Stanford Hall이 초안 작성 초기에 통합 된 법과 규칙, 규제(Laws, rules and regulations)을 만드는데에 집중함
1921	공식 사무소 개관 첫 경영 총무: Louise E. Durham

* <http://www.ncarb.org/~media/Files/PDF/Special-Paper/history.pdf>, last accessed:2015-11-25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203) 이하 NCARB의 연혁,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www.ncarb.org/> last accessed : 2015-10-20

204) 박종성(2011). 「한국·미국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및 시험내용 분석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35, p.30

□ 근거 법률

미국 건축법(The Regulation of Architecture in the United States)에 근거하여 미국연방 정부에서는 건축실무에 있어 호칭(Title)과 시행령(Practical Statutes)을 주정부 법령에 따라 관할 주정부가 주관하며, 건축실무의 권리(The Right to Practice Architecture)와 ‘건축사’ 호칭(The Title ‘Architect’)의 사용은 주정부의 등록위원회(State Registration Boards)에 의해서만 허가된다. 또한 미국 건축사는 미연방의 각 주와 미국령 영토에서 건축사 규정 및 등록의 관리권한을 모두 갖는다.

□ 등록 자격

미국 건축사 교육은 일반대학 허가제와 동일한 4년(공학학사)+2년(건축학석사) 또는 5년제 건축학 학사 취득 후 3년의 실무(Intern Development Program, IDP)를 거쳐 건축사 시험(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 ARE)을 통과하면 건축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표 4-2] NCARB 건축사 등록 절차

구분		건축사 등록 업무
실무수련의 기간/ 프로그램/ 제도		7000이수단위 규정(3년 이상)
		범위: 4개부분 16개 항목
		감독자, 조연자제도 운영
		IDP(Intern Development Program) 운영으로 기록, 증명 관리
		건축사 자격시험 필수사항
건축사 시험	교육	건축학인증프로그램 이수자 및 동등 이상의 교육 인정
	횟수	년 중 수험자의 필요에 따라 시험 가능
	기간	‘Rolling Clock’ 제도에 준하여 5년 이내 시험 통과해야함
건축사 등록원		독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건축사등록원(NCARB) 설립 운영 중
건축사 면허권자		55개 관할 자치구역이 가짐
건축사 계속교육	목적	UIA 권고기준 목적과 동일 CES(Continuing Education System) 프로그램 개발운영
	갱신기간	1년
	교육시간	매년 18시간 AIA 회원 필수
	관할기관	AIA/NCARB

□ 운영

미국건축사등록원은 1919년 미연방 개념의 통일된 건축사자격기준의 필요성에서 건

축교육 후 모든 제도적·법적 과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제62차 미국건축가협회 총회를 통해 건축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건축가들의 건축실무시 법제 지원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13개 주만이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독립된 건축실무제도(Laws Regulating the Practice of Architecture)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 건축실무행위에 있어 건축가들은 연방법(Federal Laws)보다 각 주의 지방자치법(State Laws)이 우선하여 다른 주의 프로젝트의 수주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²⁰⁵⁾

2) 영국의 건축사 제도

□ 영국건축사 제도의 성립과 변천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는 건축사 등록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의 위상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예술가의 지위가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20세기 초가 되어 봉합되기 시작했고 1925년 RIBA와 건축가회(Society of Architect)가 통합되면서 건축사 등록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27년 등록법안이 상정되었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에 들어갔으나 결국 계류되고 말았다. 등록법안은 1928년에 재상정되었으나 동일한 운명을 맞았다. 1930년 또 한번의 시도가 있고나서 등록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졌으며, 1931년에 마침내 다소 희석된 형태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건축가등록은 건축가 개인의 자의에 맡겼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²⁰⁶⁾. 등록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등록건축가와 일반건축가는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1938년 건축사법에 의해 해소되었다. 그러나 등록위원회의 구성은 처음부터 건축분야 전문직을 둘러싼 소규모 단체들의 난립과 반목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등록위원회는 수많은 건축분야 전문직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을만큼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단체는 RIBA뿐이었다.

205) 박종성(2007). 「미국의 건축사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v.09, n.03, 2007-09, p.72

206) K.M. Macdonald(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Sage Publication, 권오훈 역, 『전문직의 사회학』, 일신사, 1999, p.194에서 재인용

[표 4-3] 영국의 건축사 제도 변천 연표

연 도	내 용
19세기후반	도제 제도가 더 이상 건축가 양성에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짐 새로운 재료의 사용으로 이러한 경향에 더욱 만연
1834년	RIBA 설립 Thomas de Grey, 2nd Earl de Grey chartered architect로 등록된 건축가와 registered architect로 등록된 이분적 등록 관행의 문제(chartered architect가 되기 위한 등록 비용이 높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런던에서 멀리에서 업무하는 건축가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1836년	RIBA 현장에서 건축사 양성을 위한 건축학교육 처음으로 인정
1863년	RIBA 자체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회원 자격 부여
1845년	수수료 일정하게 규정
1848년	로알 골드 메달(Royal Gold Medal) 도입 빅토리아 여왕
1855년	건축 전문직의 지위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주장 George Edward Stree
1863년	RIBA 자체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회원 자격 부여
1882년	시험의 통과가 RIBA 회원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됨
1884년	Society of Architects 설립
1889년 1891년	Architects Registration Bill Committee 가 강하게 건축 등록 법안 주장 Society of Architects 는 법안 지지했으나 개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의 반대
1892년	직업으로의 건축가에 대한 책 발간 Norman Shaw and TG Jackson (eds.)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 William H White " The Architect and his artists, an essay to assist the public in considering the question is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 "
1924년	건축학교의 요청에 따라 RIBA가 건축학교육 인증 시작, 인증학교 졸업자는 자동적으로 RIBA 회원 자격 부여받음
1925년	RIBA와 Society of Architect 사실상 합병
1931년	건축사등록법 시행과 함께 건축학교육기준과 그 자격 관리 시작
1992년	RIBA와 ABR(The Architect Registration Board: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건축학교육인증위원회 설립하여 운영

* Sir Christopher Ball(2009). 「A Report for the RIBA, On the Registration and Regulation of Architects – Rules and Responsibility」, RIBA; <https://www.architecture.com/Files/RIBAHoldings/Communications/Press/RulesAndRegulations.pdf> last accessed:2015-11-15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

□ 자격절차

1931년 제정된 건축사등록법(Architects Registration Act)은 Part 3의 자격 절차를 통해 건축가의 자격을 수여하도록 했다²⁰⁷⁾. Part 1이 끝난 후부터 실무훈련을 할 때 학생별로 기록(record book)을 작성하며²⁰⁸⁾, Part 1에서 Part 2로 진입하는 학생은 약 80%이다. 교육의 운영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²⁰⁹⁾. 예를 들어, Part 1의 처음 1년 과정을 공동이수과정으로 하여 다른 전공과정과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교육과정 이수와 상관없이 Part 1, 2, 3을 대신하여 외부 편입을 위한 시험과정이 있다. RIBA에서는 일 년에 한 번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데, 디자인, 시공, 역사 등 RIBA의 평가기준(Criteria for Validation)에 맞는 과목 중 각각 5문제 정도를 평가위원회(Board of Examiner)에서 출제하고 시험을 치르게 된다.

[표 4-4] RIBA 인증에 따른 영국 교육 시스템

3년 B.A 과정	1년 실무	2년 Master or Diplome	1년 실무
Part1		Part2(실무위주교육)	Part3

Part 3의 인증을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의 전문 실무경험이 필요한데 그 중 1년은 반드시 Part 2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럽경제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의 감독하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년은 반드시 영국 등록건축사의 감독이 필요하다. Part 3는 강의 과정이 아니고 실무훈련 과정인데 시험과 인터뷰를 통해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Part 3의 인증은 이와 같은 시험을 보는 학교를 인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Part 3의 인증은 하루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다. 1년에 1-2번 정도 실시하며 AA와 Cambridge처럼 학교들이 연합해서 인증을 받기도 한다. 영국 내 Part 1,2를 인증 받은 학교는 36학교이지만 Part 3을 인증 받은 학교는 20학교뿐이다.

207) 『건축학교육인증시스템개발연구』, 한국과학재단, 2003, p.20

208) 현재는 웹을 통해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http://www.pedr.co.uk> last accessed:2015-10-25

209) 손세형(2009). 「영국의 건축사 자격의 법적 현황과 건축설계 업무범위」, 『건축과사회』, p.96에서 정리

[표 4-5] RIBA 건축가 자격의 종류

자격	대상	내용
RIBA Student membership	RIBA 인증 학교에서 Part1,2 진행중인 학생	상담, 책 할인, 저널이나 강연 할인, 장학금 지원 등
RIBA Associate membership	RIBA part2 완료	직업 개발 및 안내, 창업 도움, 실무 관련 정보 제공, 커리어 개발 도움 등
RIBA chartered membership	과정을 완료했거나 건축가로 등록된 경우	‘chartered architect’ 명칭 사용 가능, RIBA 등록 고객과 고용주 사용, 실무 도움, 커리어 개발 등
RIBA retired chartered membership	은퇴한 건축가	각종 정보 이용 가능
RIBA affiliate membership	실무에 관심 있는 경우	각종 정보 이용 가능

3) 프랑스의 건축사 제도

19세기에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전문직’ 기반의 건축가에 대한 직업적 정의는 1940년에 건축사협회(등록원)²¹⁰⁾의 설립과 함께 법제화되었다. 1977년 새로운 건축법 제정은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정체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축가 단체들의 전면적인 활동을 야기했다.

□ 프랑스 건축사 제도의 성립과 변천

프랑스가 독일의 지배를 받던 1940년 건축가들은 직업의 규율을 세우는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직업 활동을 규제하려는 의도와 결합되어 건축가의 직업적 사안들에 대해 정부와 배타적 교섭권을 갖는 단체가 성립하였다. ‘건축사협회(l’Ordre des architectes)’는 1940년 12월 31일에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²¹¹⁾ 건축사협회는 의사, 변호사 직군에서 먼저 설립된 등록원을 본 딴 것이며, 건축가들이 정립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하였다.²¹²⁾ 건축가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등록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210) 프랑스의 건축사협회(l’Ordre des architectes)는 자격등록을 핵심업무로 하기 때문에 ‘건축사등록원’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211) 협회는 자유전문직들에게 역사적인 권력의 산물이었다. 협회는 기준 시스템으로서 여기에 소속된 모든 자유전문직인들 사이의 평등의 상징이었다. 공권력은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특권을 부여했고 또한 새로운 등록원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동업조직 등을 설립하였다. 사용자, 환자, 고객,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윤리 규범들을 정립하는 것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서 요구되었다. <http://www.cnpf.org/definition> last accessed: 2015-10-28

212) 1977년 1월 3일 법에 의해 개정된 건축사협회는 하나의 전국 위원회와 22개의 지방 위원회로 구성된

하며 연회비를 낸다.²¹³⁾ 또한 협회는 등록된 건축사들에 대해 최대 1년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징계권을 가지며, 건축사협회의 설립과 함께 노조를 비롯한 건축사들의 다른 직업 조직의 설립이 금지되었다.

건축사협회의 설립으로 이 기관에 등록된 자만이 ‘국가공인건축사(*architecte diplômé par le gouvernement*)’의 직함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건축사 직무 수행의 배타적 권리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부여되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가들의 설계 행위 자체에 대한 실제적 규제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건설 활동에 건축사의 개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건축가의 직업적 권익을 정부와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인 건축사협회의 설립은 70여 년간 진행되었던 건축가 권익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직업 세계 내부의 논의를 일단락 시켰다. 또한 협회의 설립은 정부와 직업적 문제를 교섭하는데 있어 여타 건축가 단체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축가 직업에 현재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1977년에 제정된 건축법이다.²¹⁴⁾ 1977년 건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협회는 존속되었지만, 설계사무소에 대한 한시적 영업정지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축사협회의 규율적 권한은 규제부(*chambre disciplinaire*)로 이관됐다.²¹⁵⁾ 무엇보다도 기존에 건축가 전문직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운영 방식이었던 개인 아틀리에를 넘어서며 자본의 공동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건축회사 설립이 허가되고 공무원 건축직도 건축가의 업무 영역으로 인정되는 등 다양한 건축가 직업의 실천 방식들이 공인되었다.

다. 후자는 해당 지방에 등록된 건축가의 수에 따라서 8에서 24명의 위원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전체 등록된 건축가들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지방 위원회는 적어도 한 명의 고용직 건축가, 한 명의 파트너 건축가, 한 명의 건축허가 면허소지자(*agréé en architecture*)를 포함해야한다.

213) 건축사협회는 공권력에 대한 직업 대표체 중 하나인데, 특히 건축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 참여했다. 협회는 또한 건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감독 하에 있었으며, 한 명의 정부 사무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했다. 협회는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며 운영비용은 건축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건축가들이 지방 등록원에 등록 하려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회비로 충당되었다.

214) Florent Champy(2001). *Sociologie de l'architecture*, éd, La découverte, p.40

215) 건축사협회는 1977년 법으로 인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징계기구의 위상을 상실했다. 세 명의 전문 행정관과 단지 두 명의 전국 또는 지방 등록원 건축가로 구성된 전국 및 지방 징계 위원회가 이후로 징계권을 갖게 되었다. 직업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실들에 대해 지방 징계위원회는 등록원에 등록된 자의 자격 중지나 취소를 행할 수 있다. 국가 징계 위원회는 상소심을 담당한다. 등록원의 징계권 상실은 직업군에 주어진 자율성의 상당한 퇴보를 의미한다. Florent Champy(2001). *Sociologie de l'architecture*, éd, La découverte, p.40

□ 자격요건

법령에 정의된 현대 프랑스 건축사(architecte)는 건축 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HMONP(Habilité à la maîtrise d'œuvre en son nom propre)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사협회(Ordre des Architectes)'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단, 2007년 이전 졸업자들의 경우 DPLG, ENSAIS, DESA 학위에 해당한다. 프랑스 건축사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HMONP 학위 소지자는 건축사 자격 소지자(Titulaire du diplôme d'architecte)로 표현한다.

4) 독일의 건축사 제도

□ 독일의 건축사 제도의 성립 배경

독일은 주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직에 속한 기술자들의 배타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직능 공인제도를 둘러싼 제도권과 소규모 민간 기술자 연합 또는 기술자 노조와의 갈등이 적었다. 시민계급의 아이덴티티로서 자유전문직 개념은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교육, 경제 분야 지식인들에서 비롯되었다. 건축 자재 생산의 자동화와 규격화, 건축 과정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하여 자영업자로서 건축주와 건축공무원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계약서에 근거하여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자영업 건축가의 개념이 생겨났다.

이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자영업 건축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전문직 건축가들은 직능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결성하고 건축교육을 제도화하여 국가공인을 통해서만 경제적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건축사협회는 의사회와 같이 직업활동의 내용을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건축사법은 건축사 명칭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업무 영역에 관해서는 각 지방의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 건축사법과 자격

건축사법은 건축사 명칭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업무 영역에 관해서는 각 지방의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1955년까지 건축사 명칭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공인건축사법은 바이에른과 라인란트팔츠 두 개 주에만 존재하였다. 법 제정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건축사로 인정되는 자격조건으로는 건축대학 또는 건축관련 기술대학(Ingenieurschule)의 졸

업증, 수년간의 실무경험, 능력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했다²¹⁶⁾.

독일 건축가협회의 건축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건축가는 전문직 자영업자이다. 건축가 리스트에 등재·등록해야만 법적 자격이 주어진다. 세부사항은 각 지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계속교육 수료와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다. 전문직의 특징은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정직성이다. 총 12만 명의 등록건축사 중에서 6만명이 상근직,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의무로서 책임보험에 가입과 연수교육 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는 각 주 건축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1년에 최소 8시간 이상 건축가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건축사회의 경고와 처벌이 따르게 된다. 연수 참가비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건축사 등록 신청

각 주의 건축사협회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사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최소한 3년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기타 학과를 졸업한 후 최소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독일 전역 64개 대학에서의 건축, 실내건축, 조경건축, 도시계획 전공을 수료하여 건축학과 학사, 석사 졸업을 거쳐야 한다. ‘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에 따라 학사와 석사과정은 최소 5년 이상이 요구된다. 독일의 전통적인 디플롬 학위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9학기, 예술학교(Kunstakademie)에서 10학기,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서 8학기제이다. 6개월 이하 실습기간이 졸업을 위해 요구되며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건축사 자격부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건축사무소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다수의 건축과 졸업생들도 있다.

216) Wer kann sich Architekt nennen?, in: Bauwelt, 1955, n.48, p.984

2. 일본과 한국의 건축사법 제정운동

1) 일본 건축사법

①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과 건축사 집단의 자각

일본에서 막부 말기와 메이지 유신 시기에 들어서면 건축 분야에서는 설계라는 행위가 건축 생산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그에 종사하는 설계자라는 존재가 막 인지되기 시작했다. 설계자의 대표로 건축가와 전통 목수가 모두 전문가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그러나 건축가의 개념은 메이지 시대 신 국가를 세우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사명을 지우기 위해 서양 열강을 따라 정부가 만든 것이었고, 건축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 차별되는 건축가의 우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다이쇼 시기에 이르면 건축가는 다루는 대상을 중산층 주택까지 확장하게 된다. 재래주택을 비판하고 주택개량의 관점을 지니며 주택작가라 불리기도 하는 건축가가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전통 목수들도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사찰, 민가, 신사 등을 짓던 대공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주택을 주업으로 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에는 농사와 겸업하기도 했던 목수 직업이 전업이 되었고 후에 공무원 등 작은 청부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다이쇼 시대는 산업화에 따라 서민층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로 건축학회에서 ‘도시와 주택’이라는 주제가 대두되었다.

1920년대 이후 쇼와 시기에 들어서면 도시문제와 주택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건축 자체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목수의 감각에 의존해서 지어지는 주택, 나아가 목수의 주택 건설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감각과 경험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건축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서민 주택의 품질 향상의 과제가 건축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시가지건축물법」이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근대적인 국가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간과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즉, 「시가지건축물법」은 「건축사법」 제정운동의 자극제가 되었다. 일본 건축가들은 영국과 서양의 상황을 모방하여, 서양처럼 법률로써 건축가의 존재와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했다.

② 건축사법 제정 운동의 주체와 접근 방식

일본에서 건축사법이 제정되기까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일본건축사회의 건축사법 제정운동이고, 두 번째는 전재부흥원(戰災復興院)의 건축법 규조사위원회에 의한 건축사법(안) 중 건축사에 관한 규정 검토이고, 마지막으로 일본건축 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4회연합에 의한 ‘건축기술자자격제도조사에 관한 4회연합위원회’의 법안 검토이다²¹⁷⁾. 이중 전재부흥원은 패전한 해에 설립되어 이후 1948년(昭和23) 1월에 건설원(建設院)으로, 그해 7월에 건설성(建設省)으로 승격해 가는데, 건축업계의 주무관청으로 자리 잡으면서 1949년(昭和24)에는 「건설업법」을 제정하게 된다. 전재부흥원이 설립되고 건설업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시가지건축물법 및 도시계획법에 대한 재검토와 건축가 및 건축기술자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자격 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건축사회의 건축사법 제정운동

건축사법 제정을 위한 최초의 움직임은 1914년 ‘전국건축사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여러 해의 노력 끝에 1925년 최초로 건의된 건축사법(안)에서 이 당시 가장 문제시 되었던 부분은 제6조의 건설업 및 건재 관련 업무의 겸업 금지 조항이었다. 이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말미에 ‘단, 본 조항이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의 설계 및 감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추가문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제6조의 겸업금지 조항은 건축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당시 일본의 현실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이는 원안대로 제6조를 강조하면 업무법으로, 타협하면 자격법으로 변질되는 교묘한 특징이 있었다²¹⁸⁾.

1931년에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감독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정하게 된다. 일본건축학회가 ‘건축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건축설계감독사’와 같은 더욱 더 구체적인 칭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²¹⁹⁾. 그 결과 명칭을 ‘건축설계감독사법’으로 바꿔 상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즉, 명칭 변경은 건축학회 측 요구에 의한 것이며, 이때 제출한 법안 내용 역시 건축학회에서 작성한 것이다.

217)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学発達史』, 丸善書店, p.2085

218) 이를 자격법과 업무법의 양면을 갖춘 것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 前川喜寛(1992). 「建築基準法制定に当たって描いたいくつかの夢」, 『建築雑誌』 n.107 (1336), 1992-12, pp.12-15

219) 速水清孝(2001). 『建築家と建築士 一法と住宅をめぐる百年』, 東京大学出版会, p.37

1933년에 법안은 다시 건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상정되었다. 1925년의 당초안과 비교하면, 제1조에서 건축사의 칭호를 명시했고, 제9-16조에 있었던 건축사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문제의 제6조 내용은 제5조에 그대로 남겼다. 따라서 이 법안의 특징을 보면 직능확립운동의 성격은 사라지고, 일부 민간건축가에 의한 칭호 획득 운동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⁰⁾ 건축사라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내용은 1931년에 상정한 법안과 동일했다.

1937년 안에서는 건축사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무렵 일본은 준전 시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1940년에 다시 제출된 법에서 건축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게 된다.²²¹⁾ 1940년 말에는 사회체제변화에 편승하여 ‘독일건축사법’에 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신체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건축사 연합체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기존의 자유전문직 건축사뿐 아니라 건축업자, 건축재료업자를 포함하여 건축의 창작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을 망라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제6조로 대표되는 당초 취지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 전재부흥원의 새로운 접근

전쟁 후 복구업무로 인해 잠시 주춤하던 건축사법 제정운동은 내무성과 전재부흥원을 중심으로 건축법 제정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면서 다시 급부상하게 되었다. 건축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건축법 내의 몇 가지 조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재부흥원은 기존의 시가지건축물법의 개정 및 기타 건축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건축법규 조사위원회 조직했는데, 부흥원에서 작성한 건축법 초안 중 건축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건축사의 겸업금지 규정이 있어서 건축사회와 전재부흥원 간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²²⁾. 실제로 부흥원에서 시안작성이 본격화될 무렵, 일본건축사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겸업금지 조항은 삭제되게 된다. 대신 새롭게 ‘건축공사관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오늘날 일본의 건설업법 상의 주임기술자와 함께 건축사법의 2급 건축사의 개념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2급 건축사 개념은 이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는 겸업금지규정의 삭제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급 건축사는 일종의 타협점, 또는 완충제로서의 개념이 있다.

220)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学発達史』, 丸善書店, p.2073

221) 津川俊夫(1940). 「新国民組織と建築士」, 『日本建築士』 V.28, No.12, 日本建築士会, pp.8-12

222) 山本正紀(1980). 『建築家と職能—建築家のプロフェッションとは何か』, 清文社, pp.212-219

□ 4회 연합의 공동 협의

일본건축학회, 일본건축사회, 일본건축협회, 전국건설업협회의 4개 단체가 연합하여 ‘건축기술자의 자격제도조사에 관한 4회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회 연합은 건축사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규칙 및 건축사 선발기준을 두고 협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4회 연합에서 건축학회가 중심이 되면서 전쟁 이전에 건축사회에서 추진하던 안은 반영이 되지 못했다. 여기서도 전재부흥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건축사, 건축사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훗날의 1급, 2급과 같은 개념을 상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건축협회에서는 건축기술자의 자격 일원화를 주장하며 이러한 등급 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건축사시험자격 철폐를 요구하였다²²³⁾. 당시 일본건축협회의 주무대였던 간사이(関西) 지방은 도쿄와 달리 시장에서의 독립된 건축가 체제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었고, 건설업, 자재업 등 더 넓은 분야의 회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회와는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4회 연합이 제출한 안을 보면, 건축사의 소속의 자유(겸업 허가), 건축사사무소의 설치, 건축사심의회의 설립 등 현재 일본 건축사법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어 현행 건축사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③ 일본건축사법의 제정의 의미

1950년 일본에서 건축사법은 결국 자격법의 성격으로 제정되게 된다. 건축사회 입장에서는 불만이 남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건축사법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배경의 차이에 따라 그들과 같은 문화가 정착되지는 못했다. 서구에서는 건축가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면허 건축가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소수의 민간건축가가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건축가의 특권적 지위를 독점하기 위해 법을 힘을 빌리고자 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²²⁴⁾

건축사법 제정의 초기과정에서 주변의 반발이 거셌다. 건축학회 회장이면서 구조학자였던 사노 리큐(佐野利器)는 건축가 집단에게 비우호적이었다. 사노는 ‘형태의 좋고 나쁨이나 색채에 관한 일 등은 부녀자의 일’이라고 보고²²⁵⁾, 디자인 중심이었던 건축학회를

223) 山本正紀(1980). *ibid.*, p.226

224)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学発達史』, 丸善書店, p.2003

구조학 쪽으로 전환시켜 일대 학파를 이루고 군림하고 있었다. 사노의 반대의견 중 의미 있는 주장은 ‘건축물에 대한 취체는 「시가지건축물법」의 실시에 의하여 충분하기 때문에 즉 「건축사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다²²⁶⁾. 당시 서구에서도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나라에서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었다.

청부업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설계업무의 독점권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특히 건축가들의 엘리트주의가 못마땅했다. 건축사법안에 대한 방책협의회에 참여한 타케나가 공무점의 야마와키(山脇友三郎)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은 우리 건축업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우리 청부인이 설계하고 건축하는 일에 그간 비리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고, 마치 건축사만이 주문자와 청부자 사이에서 엄정한 태도로 감리할 수 있다는 듯, 실로 불합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다.²²⁷⁾

그러나 건축사회 외에도 건축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조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건축행정관을 꼽을 수 있다. 건축 관련 단체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건축사법 제정을 희망한 계층이다. 일선에서 건축 지도를 담당하던 행정관의 눈에는 건축기술의 발달이 대규모 건축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쳤다. 특히 시가지개조사업을 추진하던 대도시 건축과의 행정원들은 그들의 일상 지도대상인 서민주택이 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전혀 무관하게 지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며, 일반 서민주택에게도 건축학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²²⁸⁾.

225) 佐野博士追想録編集委員会 編(1957). 『佐野利器-佐野博士追想録』, p.6

226) 佐野利器(1927). 「建築學會時局ニ關スル委員會ノ建築士法ニ對スル意見」, 『日本建築士會會報』 n.5, 1927-04, pp.123-128

227) 速水清孝(2001). ibid., p.36에서 재인용

228)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丸善書店, p.2109.

2) 한국 건축사법

① 한국 건축사법의 추진 경위와 내용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적용과 함께 건축사법의 논의가 일어났다. 1930년대 당시 서울에서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설계업의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건축설계인조합’을 결성하고 건축사제도 실현에 힘을 기울였지만 당시 일본 본국에서도 건축사제도 성립 전이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어로 발표된 건축사법에 관한 최초의 의미있는 논의는 아마도 김태식(金台植)의 「건축사(建築士)를 논(論)함」²²⁹⁾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 글에서 서양의 건축사법의 방향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무능력자의 건축사 직무를 규제하는 제한설(영국), 누구든지 건축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유설(프랑스), 자격제도를 운영하지만 무자격자도 건축사 직무를 수행하는 절충설(미국) 중에서 장래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방향으로 절충설에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건축사를 인정하고 이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증을 할 수 있는’²³⁰⁾ 정도의 건축사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1948년의 일이다.

□ 1950년대 건축사법 초안

1954년 대한건축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축사법안 기초위원으로 김순하·최순철·김재철의 3인을 위촉하고 법안의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만 1년 이상이 소요된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1956년 초의 일이다. 1956년 1월 24일 제6차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건축사법안초안 김순하, 김재철, 최순철 위원으로 작성되어 5부가 있으니 검토요망’이 올라왔으며, ‘20부를 인쇄하여 각 학교와 이사에게 배포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 제출 토의키로 한다.’로 결론을 내린 기록이 있다.²³¹⁾

한편 (구)건축사협회에서도 2년간에 걸쳐 건축사법안을 초안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내무부 당국에 제출한 바 있었다고 한다.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사법안 기초위원이었던 김순하는 동시에 구건축사협회의 회장이었다는 점, 당시 건축사법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크게 부각된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두 안은 동일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²³²⁾

229) 金台植(1948). 「建築士를 論함」, 『朝鮮建築』 v.1 n.3, 1948-08, pp.5-10

230) 金台植(1948). ibid., p.6

231) 편집부(1956). 「學會消息」, 『建築』 n.2, 1956-04, p.104

232) 대한건축사협회(1985). 『二十年史: 1965~1985』, 大韓建築士協會, p.80

1950년대 후반기의 건축계에서는 건축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실현에 꾸준하게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당국인 내무부 토목국의 관심은 당시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었던 건설업계의 정상발전에 집중되어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이 먼저 추진되었다. 따라서 건축사법안은 표류하다가 1961년 5·16군사혁명을 맞게 되었다. 그해 가을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공동으로 건축사법안을 당시 내무부에, 대한건축사협회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무부에 각각 제출, 건의하게 된다. 이때가 건축사법의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

□ 1961년 건축사법안 공개의 파장

1961년 5·16군사혁명 직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이법은 구법 즉 구한국시대의 법령, 일제시대의 법령, 미군정시대의 법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961년 1월 20일까지 폐지시키며, 대체입법이 필요하면 그날 이전에 제정·공포하라는 강력한 압력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사법은 건설부 소관의 법령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축행정업무는 처음에 내무부 토목국 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관장했었다. 그런데 5·16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건설청 국토보전국 도시과 도시계획계로 바뀌었고, 1962년도에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부 국토보전국 도시과 도시계획계가 담당부서가 되었다. 건축사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건설부의 신설과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대서사취체규칙」은 건축, 광업, 지적, 측량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62년 당시 구법(舊法) 정리계획에 의해 건축행정서사 부분이 건설부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건축사법 입안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²³³⁾

1962년 3월 건축사법 초안의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초안은 국토건설청이 (구)건축사협회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미 법제처에 넘어가 있다는 소문이 난 상태였다.²³⁴⁾ 대졸자의 응시자격 경력년수가 8년이고, 토목전공을 포함하며, 저작도서의 등록이 의무사항이고,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는 시험없이 전형으로 선발, 다만 건축행정서사는 학력불구 4년이면 시험없이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²³⁵⁾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233) 朴瑛夏(1985), 「1.4. 建築士法制定의 움직임과 그 背景」, 『二十年史: 1965~1985』, 大韓建築士協會, p.83-84

234)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203

□ 삼단체의 협의

대한건축학회는 즉각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1962년 3월 21일 오후7시30분의 늦은시간에 학회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의 당시 토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건축사 법안의 검토와 그 시정사항의 건의건: 건축사법안에 대한 건의문안(한정섭 이사 초안)에 동의하고 동 법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시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건의서작성 및 기타 필요한 교섭에 대하여는 한정섭 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함”²³⁵⁾ 이 건의서는 3월 30일 국토 건설청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1962년 10월 30일, 위 건의안을 토대로 건설부 차관과 서울시 건축과장, 학회·가협·사협 등 3단체 대표자가 연석회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건축학회 회지에 실린 황상일(黃尙一) 이사의 보고에는 각 단체의 입장과 합의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²³⁷⁾

- 토목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도 건축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 현행 건설업법에 의한 갑류기술자 수험자격의 실무경력연한이 불합리함을 인식하나 건설업법 제16조 3항의 제정과 관련이 되므로 건설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학회안을 최대한 반영기로 함
-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의 업무한계를 면적과 층수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연면적별로 세분하기로 함
- 건축사의 승인하에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가협회의 안 채택하기로 함
-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등록해야한다는 규정 삭제하기로 함
- 전형(무시험) 대상 경력연수는 응시자격 경력연수에 2년을 더한 것으로 함
- 건축통제기사(建築統制技師) 이상의 공무원의 전형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 현행 건축사(건축대서사)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생계유지를 참작하여 2급건축사 전형자격만을 부여하기로 함

235) 국토건설청안의 전문은 『건축』지 5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편집부(1962). 「建築士法(案) <國土建設廳案>」, 『建築』v.6 n.1, 1962-06, pp.8-9

236) 편집부(1962). 「學會消息」, 『建築』v.6 n.1, 1962-06, p.8

237) 黃尙一, 「建築士法制定을 爲한 協議會의 參席報告」, 『建築』n.6, 1962-10, pp.1-2

□ 건축사법의 최종내용

1963년 12월 16일에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건축사법은 두 달 전 삼단체의 협의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토목전공의 응시자격이 폐지되고, 건축사 업무한계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연면적 600㎡’, ‘3층’도 폐지되었다. 2급건축사의 업무한계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안대로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연면적별로 세분화였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표 4-6] 건축사법 초안(1962)의 쟁점과 입장, 최종 입안 결과(1963)

항목		건설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건축사법	
1급건축사 응시자격 경력연수	대졸	8년(토목포함)	8년(토목포함)	4년	4년	5년	제14조
	초대졸	10년	10년	7년	6년	7년	
	고졸	13년	13년	10년	—	10년	
	독학자	20년	20년	—	—	17년	
	2급건축사	4년	4년	4년	3년	3년	
2급건축사 응시자격 경력연수	대졸	4년(토목포함)	4년(토목포함)	즉시	1년	2년	제15조
	초대졸	6년	6년	3년	3년	4년	
	고졸	9년	9년	6년	5년	7년	
	독학자	16년	16년	—	10년	14년	
2급건축사 업무한계		연면적 600㎡ 이하, 3층 이하	연면적 600㎡ 이하, 3층 이하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연면적별로 구분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연면적별로 구분	별도 표	제5조
저작도서의 등록		건축사협회 에 등록	건축사협회 에 등록	불필요	불필요	건축 사협 회에 등록	제22조

□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반발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1962년 10월, 건설부에서 열린 연석 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개정건의를 내는 동시에, 경향신문(1963년 12월 20일자)에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연석협의회의 합의내용과 공포된 건축사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 응시자격 경력연수 : 5년으로 낙착되었으나 충분치 않다.
- 저작도서의 등록 : 등록의무를 삭제하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의무화하였다.
- 전형신청자격 : 건축행정대서사에 한하여 전형. 건축행정대서사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최초 시험에 한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즉, 없애기로 하였던 건축행정서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건축행정서사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이제 건축사법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운명이 좌우게 된 것이다.²³⁸⁾ 사협회에서도 학회·가협회 공동 개정건의에 맞서 즉각 반박문을 경향신문(1964년 1월 4일자)에 게재하였다.

[표 4-7] 건축사법 시행 이후 자격시험 등 운용에 관한 건축단체의 대응

일시	주요 내용
1963년 12월 18일	대한건축학회 이사회 -가협회와 공동명의로 개정건의서 작성
1963년 12월 20일	학회·가협 경향신문에 개정건의문 발표
1964년 3월 3일	건축사법 운용에 관한 회의(건설부 차관실) 학회, 사협회, 가협회 대표 합의 서명
1964년 11월	대한건축학회 응시자 경력확인업무 수행
1964년 11월	대한건축학회 이사회 다경력자 등의 구제를 위한 교섭
1965년 1월 4일	대한건축사협회 경향신문에 반박문 게재
1965년 1월 11일	대한건축학회 이사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특례를 위한 3단체 회합에 대비
1965년 1월 12일	3단체 대표자회의
1965년 2월 4일	대한건축학회 이사회 시행령 개정에 관한 3단체 합의사항 보고

238)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p.204-205

건설부 당국은 삼단체가 합의하면 시행령상의 특례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3단체는 결국 법개정은 어려운 문제이며, 우선 당면한 건축사자격시험의 실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문제의 범위를 시행령상의 특례규정으로 압축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건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명의로 건설부에 제출하였다.

건축사법 시행령의 제1차 개정은 1965년 3월 4일에 「대통령령 제2069호」로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부칙 2에 있는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한 것이었다. 건축사 행정서사에 대한 특례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대졸기준)인 자에 대하여는 1급 건축사 시험과목(5과목)에 대한 객관식 심사와 경력심사의 전형을 거쳐 1급 건축사 면허를 주고,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2급 건축사 시험과목(4과목) 중 ‘건축구조’를 면제하고, 객관식 시험에 의한 전형을 거쳐 2급 건축사 면허를 주었다. 또 최초 시행하는 시험에 대한 특례로서 1급 건축사는 5과목 시험과 경력심사에 의해 시행하고, 2급 건축사는 4과목 중 ‘건축구조’를 면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규정의 부칙은 나중에 1969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4151호에 의한 제4차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건축행정서사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시험 5과목에 대한 구술 전형으로 면허
- 건축행정서사가 아닌 자 : 경력평점 80점 이상인 자(실무경력 10년 이상에 해당)는 시험 5과목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면허, 경력평점 80점미만인 자는 시험 5과목 중 선택한 2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경력심사로 면서

□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

건축사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1977년까지 건축사는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의 등급이 있었다. 1급이나 2급 모두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주업무로 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1급에 대하여는 업무대상 건축물의 제한이 없고, 2급에 대하여는 용도가 단순하고 소규모인 건축물만을 업무대상으로 제한한 점이다. 따라서 2급 건축사의 응시자격에 필요한 실무경력연수도 대졸자인 경우 2년(1급은 5년)이상으로 단축하였다. 1급과 2급의 등급을 두었던 것은, 건축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신진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조기에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할 수 있다²³⁹⁾. 그런데 2급 건축사가 거의 업무한계를 넘는 대형건축물

239) 이문보(2001).ibid., p.222

의 설계를 수탁하고 1급 건축사면허를 대여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일탈이 발생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2급 건축사가 1급 건축사를 고용하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 2급 건축사제도를 폐지하고 1급 건축사를 그냥 건축사로 단일화했다. 그러므로 크고 복잡한 설계는 1급 건축사가, 작고 간단한 설계는 2급 건축사가 한다는 개념은 사라졌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의 형식과 합격률

□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실시

이른바 ‘3자합의’의 내용은 당초에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법규(이상 4과목, 객관식)과 건축설계(실기)의 5과목을 과했던 건축사자격시험으로는 응시자의 능력을 측정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차·2차로 구분하여 제1차 시험(위 4과목에 대한 객관식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제2차 시험(위 5과목에 대한 주관식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객관식 1차 시험에서 응시자를 상당수 걸러내서 응시자수를 줄이고 주관식 2차 시험으로 심도 있게 능력을 측정·평가를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관식 시험은 공정성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채점위원을 복수로 배정하고 각각 별실에서 채점한 것을 나중에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시험의 실시에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다. 아무리 객관식 1차 시험에서 걸렸다고는 하나, 주관식 2차 시험의 응시자수가 천여 명이 되었으며, 채점은 정부청사 내의 지정장소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렸다²⁴⁰⁾.

어찌됐건 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을 1965년 4월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 젊은이들은 이에 불복하여 더욱 강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이에 시험일자 사흘 앞두고 건축사 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건설부차관) 명의로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 안내문이 발표되었다.

- 내정된 수만큼 제한적으로 합격시킨다는 유언비어에 속지말 것이며, 출원인원 전원을 합격시켜도 수요에 부족하다.

240) 이문보(2001).ibid., pp.219-220

- 건축행정서사에 대한 특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일반응시자에게도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 것이다.
- 일부 건축인의 오해는 유감이며,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 시험의 공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응시 바란다.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은 예정대로 서울·대구·전주의 3개 지구별로 1965년 4월 25일 강행되었다. 많은 대학 출신 대상자들이 시험을 거부하였고, 응시자들 중에서도 시험장 입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²⁴¹⁾ 이렇게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은 끝낸 건설부는 예산을 염출하여 1965년 11월 27일, 예정에 없던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미지원자 및 반대자의 구제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 건축사 시험 반대운동

반대·거부운동은 급기야 각 대학 출신 대표 등이 연합하여 ‘전국건축동인회’를 결성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동인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현재 ‘1965년 4월 15일 가칭 건축동인회 건축사법령개정추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의 사본이 남아있으며, 각 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하고 사설로도 취급하였다²⁴²⁾.

1965년 4월 15일 성명서의 서명인 구성에는 동아대(1955), 연세대(1958), 인하공대(1960), 전북대(1962)처럼 건축학과 개설년도가 늦은 학교가 포함되지 못했지만 당시 졸업생을 배출한 거의 모든 대학을 망라한 것이었다. 이외에 추진인원 100인의 이름이 학교 구분없이 하단에 기재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1930년대 초반 생들로 서른이 조금 넘는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지만, 홍익대의 윤도근과 박면수, 청구대의 김인호와 김현산처럼 해당대학 건축학과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을 이끌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기도 했고, 이정덕, 윤도근, 김인호와 김현산 등은 대학교수로서 후학을 지도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241) “당일을 전후하여 필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서울에 없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응시자들이 시험장 입실을 거부하여 예정시간을 훨씬 남긴 후 시험이 시작되고, 한 시험실에 2·3인정도가 그래도 응시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응시자수는 건설부 당국만이 알 것이다.”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216

242) 신진들의 개정운동이나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거부운동의 기수가 된 것은 장영수·이정덕·송기덕 등과 안기태·오운동……등이었다.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213

[표 4-8] 건축동인회 건축사법령개정추진위원회 출신학교별 대표명단 분석

출신학교 (건축학과 개설년도)	성명 및 출생년도	
부산대 (1953)	서서택(1939)	-
서울대 (1946)	이정덕(1933) 1957졸	송기덕(1933) 1957졸
전남대 (1952)	강재홍(미확인)	박춘상(1934) 1958년졸
조선대 (1953)	이종금(1934) 1967년졸	최영희(미확인)
청구대 (1952)	김인호(1932) 1956졸	김현산(1932) 1956졸
충남대 (1952)	이병수(미확인)	최덕중(미확인)
한양대 (1949)	오운동(1931) 1956년졸	오창희(1933)
홍익대 (1954)	윤도근(1935) 1958졸	박면수(1933) 1958졸

□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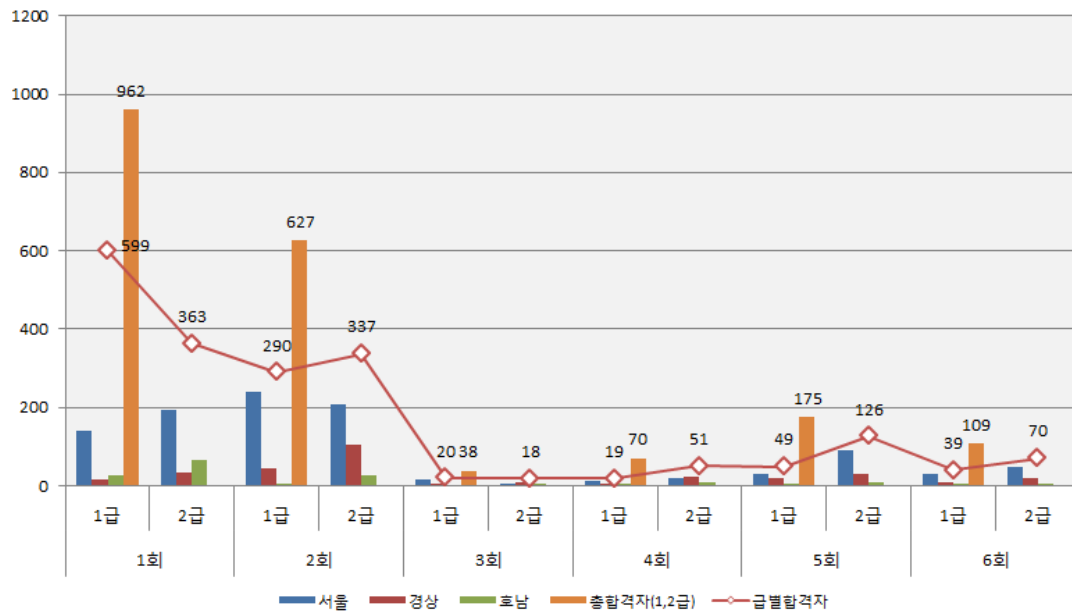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는 『관보』에 기재되었다. 1960년대 건축사 자격시험은 총6회 실시되었으며, 합격자가 공고된 『관보』는 다음과 같다.

- 1965년 제1회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건설부공고 제137호)
: 『관보 제4041호』, 1965년 5월 15일
- 1965년도시행 제2회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건설부공고 제165호)
: 『관보 제4223호』, 1965년 12월 16일
- 1966년시행 제3회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건설부공고 제192호)
: 『관보 제4395호』, 1966년 7월 12일
- 1967년도시행 제4회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건설부고시 제140호)
: 『관보 제4776호』, 1967년 10월 19일
- 1968년도시행 제5회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건설부공고 제141호)
: 『관보 제5101호』, 1968년 11월 18일
- 1969년도시행 제6회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공고 (건설부공고 제119호)
: 『관보 제5406호』, 1969년 11월 26일

[표 4-9] 건축사 시험 합격자(1회~6회)

구분	1회 건설부공고 제137호(65년5월)		2회 건설부공고 제165호(65년12월)		3회 건설부공고 제192호(66년7월)		4회 건설부공고 제140호(67년10월)		5회 건설부공고 제141호(68년11월)		6회 건설부공고 제119호(69년11월)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서울	141	193	239	206	17	6	12	21	30	89	30	46
경상	15	35	45	106	3	10	6	23	18	30	8	20
호남	27	65	6	25	0	2	1	7	1	7	1	4
전국	183	293	290	337	20	18	19	51	49	126	39	70
필기면제자	416	70	-	-	-	-	-	-	-	-	-	-
급별합격자	599	363	290	337	20	18	19	51	49	126	39	70
총합격자	962		627		38		70		175		109	

* 각회 건설부공고 참조(전자관보)



[그림 4-1] 초기 건축사 시험 합격자 수 추이(1회~6회)

196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총 962명이었다. 이중 1급 건축사가 599명, 2급 건축사가 363명으로 1급이 더 많았다. 필기를 면제받고 전형으로만 통과한 사람이 486명이므로, 전체의 절반 가량이 쉽게 자격증을 획득한 것이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해 11월에 한 번 더 실시한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전형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합격자는 627명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될만한 여지가 있다. 1966년과 1967년의 합격자는 각각 38명과 70명이고, 1968년과 1969년의 합격자가 각각 175명과 109명인 점과 비교하면 첫 해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분명 특이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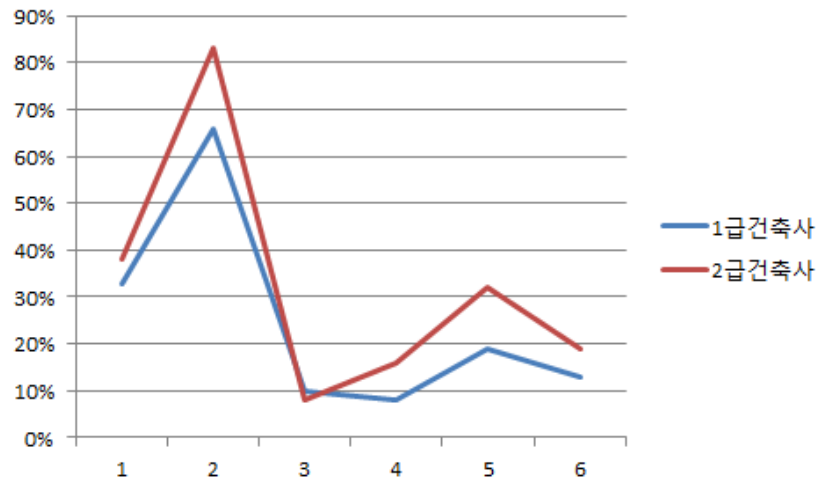
□ 제1회-제6회 건축사 시험 합격률 분석

보다 정밀하게 자격시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합격률을 추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관보에는 총 응시자의 인원이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합격자의 성명과 함께 응시번호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대강의 합격률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얻은 486명은 구술전형으로 합격한 147명과 구술시험을 치른 269명, 현 건축행정서사인 70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술전형 합격자의 마지막 응시번호는 173번이므로 이를 마지막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147/173의 합격률은 83%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구술시험 합격자의 마지막 응시번호는 302번이므로 마찬가지로 269/302의 합격률은 89%로 추정된다. 건축행정서사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이를 통해 특혜대상자는 적어도 80%이상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전형 특례를 제외한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회수	급수	합격자수	합격자의 마지막 응시번호	합격률 추정
1회	1급건축사	183	554	33%
	2급건축사	293	769	38%
2회	1급건축사	290	441	66%
	2급건축사	337	407	83%
3회	1급건축사	20	197	10%
	2급건축사	18	219	8%
4회	1급건축사	19	225	8%
	2급건축사	51	323	16%
5회	1급건축사	49	254	19%
	2급건축사	126	388	32%
6회	1급건축사	39	301	13%
	2급건축사	70	368	19%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2회부터 제6회까지 합격률을 추정해보면 가장 특이한 비율을 보이는 시험은 오히려 제2회 시험이다. 제1회 시험에서 특혜대상자를 제외한 합격률은 1급 건축사가 33%, 2급 건축사가 38%이다. 제3회 시험부터는 합격률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10%대에 고착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런데 제2회 시험에서 1급 건축사의 합격률은 66%, 2급 건축사의 합격률은 83%에 달한다. 제2회 시험이 제1회 시험의 부작용에 따른 긴급대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쉬운 시험을 통해 상당한 비율의 응시자들이 건축사 면허를 획득하였다고 한다면, 건축사 시험에 대한 엘리트들의 지속적인 반발은 제1회보다 제2회 시험을 겨냥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림 4-2] 1960년대 건축사 합격률의 변화 추이

3. 건축사의 정의와 자격의 문제

1) 예술가와 사업가

일반적인 공학과 달리 건축은 부분적으로 예술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심미적 설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한다. 또한 건축 분야는 국가나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봉사 차원의 기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리 기회가 제한되고 수입이 적더라도 실천자가 독립하여 자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²⁴³⁾ 그러나 이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건축가는 한 편으로는 전문직과 ‘예술(art)’ 사이에, 다른 측면으로는 전문직과 ‘사업(business)’ 사이에 이중으로 위치하는데서 갈등이 기인한다. 르네상스 이후로 건축가는 그 자신을 ‘건축가에 딸린 도구’, ‘제3계급 사람들’ 등으로 표현되는 다른 건축업자와 차별되는 예술가로서 그 자신을 소개해왔다.²⁴⁴⁾ 예술적 내용이 건축가 전문직의 정의와 정체성의 필수 요소가 되어왔던 것이다. 건축가들은 화가, 조각가, 음악가 등의 예술가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도살장을 짓거나 석탄 상점을 짓는 사람들을 ‘건축가’ 라고 부르는 것은,
템스 강 증기선에서 고동 소리를 내는 사람을 ‘음악가’ 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²⁴⁵⁾

그러나 건축가들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은 전문직화 과정에서 묘한 역할을 담당했다. 건축은 공학과 동등하지 않으며, 매 단계에서 예술적 창조성은 기술적 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시적인’(Sullivan), ‘측정할 수 없는’(Kahn), ‘열정적인’(Corbusier) 신비함이 건축가 전문직의 자부심이 되었다. 건축이 예술이기를 포기하거나 시장 논리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건축가는 사업가로서, 경멸조로 말하면 업자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건축이 예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업적 원칙 안에서 사업적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²⁴⁶⁾

243) Eliot Freidson(2001). Profession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72

244) C. Wilkinson(1977). The New Professionalism in the Renaissance, in S. Kostof ed., The Architect: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131 우동선 역, 『아키텍트 :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건축가 5천 년의 이야기』, 효형출판, 2011, p.191

245) J.T. Micklethwaite(1892).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in N. Shaw ed.,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 London: John Murray, p.25

246) L. Eidlitz(1894). The Architect of Fashion, The Architectural Record, v.3, June, p.351

고매한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의 위상은 우선 주변의 건축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건축비예술론’²⁴⁷⁾으로 알려진 노다 토시히코(野田俊彦) 등이 맹렬한 비판을 가했는데²⁴⁸⁾, 이는 건축사법안에서 건축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거꾸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의 설계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로서 건축가라는 전략은 성공했다. 공학자나 재료업, 청부업자들이 ‘예술적’인 건축설계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가 집단의 내부에서 불거졌다. 건축가 전문직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가 크게 엇갈렸다. 예술가는 등단을 통해 평단과 대중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전문직은 자격시험을 통해 실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므로 자격시험 자체와 자격시험을 목표로 하는 건축학교의 교과과정에 크게 반발하는 ‘예술가-건축가’ 세력이 목소리를 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메모리얼리스트’라 불리는 자들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건축가 전문직화에 대한 주된 반대 세력이었다. 이들에게 건축의 예술적 내용은 전문직의 지위에 대한 포부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1891년 “어떠한 정의의 타당한 시스템 아래에서도, 예술과 전문직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²⁴⁹⁾.”며 ‘전문직 건축가’를 모순으로 확신했다.

‘예술가-건축가’에 속해 있던 수많은 유명 건축가들은 영국건축가협회와 RIBA의 교육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사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는 시험에 의한 회원자격 통제와 국가등록제 도입을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회원은 1884년에 RIBA를 탈퇴하여 ‘건축가회(Society of Architect)’라는 별도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건축가회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걸쳐 건축가들의 법적 등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으나 RIBA측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일은 1886년, 1889년, 1891년, 세 번에 걸쳐 일어났다. 1891년 등록법안이 대두되면서 44명의 건축가 그룹과 24명의 예술가들은 건축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건축가 등록은 역으로 건축을 다른 예술로부터 분리한다고 주장하며 「타임즈」에 논설을 게재했다²⁵⁰⁾. 당시 메모리얼리스트들을 분노케

247) 野田俊彦(1915). 「建築非藝術論」, 『建築雑誌』 29(346), pp.714-727

248) 野田俊彦(1927). 「建築學會時局ニ關スル委員會ノ建築士法ニ對スル意見」, 『日本建築士會會報』 n.5, 1927-04, pp.123-128

249) E.S. Prior(1892). The Ghosts of the Profession, in N. Whaw ed.,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 London: John Murray, p.114.

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건축을 어떤 직업적 프로토콜로 단순화시키고 요약하는 태도였다. 게다가 그들은 디자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험을 사용하는 것을 크게 못마땅해 했다.

성명서 작성자들은 RIBA 측과 회담합의에 실패하자 등록제에 반대하는 13편의 논설을 실은 책을 단독으로 출간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의 주된 근거는 건축은 예술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다음 10여 년 동안에는 수그러들었으나 등록제법안이 다시 상정되자(1892년, 1900년, 1903년) RIBA는 이번에도 이에 반대하는 탄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1904년에 이르면 추밀원이 이 모든 사항들을 심의할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며 RIBA를 개혁할 법안이 작성되었다. 이는 사실상 RIBA의 명칭을 왕립건축학교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1906년에는 이 법안과 또 하나의 등록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두 명의 메모리얼리스트 Norman Shaq와 T.G. Jackson이 함께 쓴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은 이러한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작가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예술이 교육과정에서 무시되는 것을 걱정했다. 특히 디자인 능력과 건설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예술’은 심지어 시험이 디자인에 대한 서술을 포함할지라도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건축학교 교육과정에는 건축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강제, 모방 그리고 책이 가진 학습의 한계만이 가득했다.

예술로서 건축의 이해는 모든 미학적 결정의 근본이 건축가의 생각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메모리얼리스트들은 직업적 능숙함의 문제, 공공의 신뢰, 나쁜 건축으로부터 대중의 보호는 지방의 법과 건축법에 의해 충분히 조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이 보기에 건축사 자격시험은 핑계처럼 보였다. 그들은 「건축사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만이 대중을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되지 않은 건축물, 당시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지만 전문가의 기준에서는 무시되었던 건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당화는 그래서 거부되었다.

건축가의 태도와 관련한 프랑스의 사례도 흥미롭다. 으젠 에마뉘엘 비올레-르-둡(Viollet-le-Duc, 1814-1879)은 1877년 11월 27일 자신이 회장이었던 전국건축가협회(Société

250) The Times, 3 March 1891; The Times, 7 February 1888

Nationale des Architectes)에서 「건축가의 의무(les devoirs de l'architecte)」라는 연설을 통해 건축가 전문직에 대한 반대를 피력했다²⁵¹⁾. 비올레-르-뒝은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고, 파리 시의회의 의원이자, 문화재 감독관, 여러 운영위원회와 수많은 협회의 임원이었다. 그의 글들은 학술적이면서 동시에 전투적이었는데, 그의 투쟁가적 기질은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연설문은 언뜻 보기에 시사성이나 현실에의 직접적인 개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중들 일부가 건축가들에 대해 표출하는 불신에 대한 암시적 언급 정도 외에 현재적 상황에 대한 의견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올레-르-뒝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도매상인으로부터 건축가들을 구분했다. 특히 건축사는 변호사나 의사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은 실제적으로 건축가 전문직에 대한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비올레-르-뒝은 직업의 강화가 그것의 특수성에 대한 제도적 명시, 교육 방식의 제도화, 직업적 기구의 설립, 그리고 직업윤리 강령의 고안에 의해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축의 특수성에 대해 확신하였는데, 이 특수성(spécificité)은 전문화(spécialisation)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비올레-르-뒝은 이미 “건축가는 전문인(homme spécial)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위해 모든 예술(기술)과 산업을 모으고 통합하는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고 유용성을 갖는다.”²⁵²⁾ 고 말한 바 있었다.

같은 해에 건축가와 공학자 간의 관계에 대한 쟁점이 다시 한 번 불거졌으며, 결과적으로 건축가의 존재 이유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또, 1877년은 보자르 학교가 발급하기 시작한 자격증을 수호하면서 건축가 전문직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했던 ‘정부공인건축가협회(S.A.D.G.)’가 창립된 해이기도 하다.

비올레-르-뒝, 「건축가의 의무」(1877)²⁵³⁾ (일부 발췌)

각각의 직업은 시민들 각각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와는 독립적인 특수한 의무들을 갖는다. 군인은 자신만의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도매상인의 의무와 전혀 다르다.

251) 연설문은 『건축가(l'Architecte)』지와 『건축가와 건축물 신문(Gazette des architectes et du bâtiment)』에 게재되었다. Jean-Jacques Aillagon(1978). “les devoirs de l'architecte”의 소개글, in Les cahiers de la recherche architecturale, n°2 “la profession d'architecte”, mars 1978, pp.31-32.

252) Viollet-le-Duc(1854). Dictionnaire raisonné de l'architecture, p.107

253) Eugène Viollet-le-Duc(1877). “les devoirs de l'architecte”, Gazette des Architectes et du Bâtiment,

그리고 각각의 직군이 갖는 의무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한 직군의 일원들 각각에 부과되는 의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와 이들에게 접근하는 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해야한다.

고객(client)에 대한 건축가의 의무들은 단순히 많은데, 건축가는 의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는 종종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에게 환상을 심어줘야 한다. 건축가는 또한 소송대리인(avoué)이나 변호사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객의 이익을 중시해야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호의적인 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건축가는 의사처럼 고객에게 평정심을 주는 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건설업자와 사업을 발주하는 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건축가는,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의 건축가의 의무임과 동시에 자신의 지휘 하에 작업하는 이들의 이익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건축가는 가능한 한에서 적당한 공기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들을 확보해야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사업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건축가는 고객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그가 위험한 사업을 벌이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건축가는 고객의 바람과 이익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하지만, 또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보호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재자(arbitre)이지 변호사가 아니다.

건축가의 작품(l'oeuvre)이 단지 자신의 천재성에서 나오며, 마치 미네르바가 주피터의 허벅지에서 나오듯이,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나온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l'exécution)은 중요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건설을 맡은 이들은 단지 손으로써만이 아니라 종종 찾아낼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에 참여한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 건축가 집단이 그러하듯 경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건축가의 의무는 따라서 직원, 개발업자(entrepreneurs),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어떠한 기회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고, 각자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의 중요성과 성질을 이해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며, 각자에게 이러 저러한 업무가 할당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이들이 건축 작업에 지성과 열성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가장 하찮은 일에 까지 작업의 완성을 위한 모든 이들의 협력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각자가 건축물에 남긴 흔적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몇몇 건물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은 단지 종이위의 설계만으로,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디테일을 가지고 파르테논(Parthenon)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 작품을 설계한 천재 건축가는 건설하는 이들의 정신 속에 전체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야만 했고, 이러한 배치를 채택하게 만든 이유들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 지성을 이토록 분명한 표명하는데 결코 이르지 못했

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중세시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지은 건축가들(les maîtres des oeuvres)이 단지 기계들과 생각 없는 실무자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믿는가? 건축가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분명히 실무자들의 교육이고 그들의 지성의 계발이다.

2) 설계자와 대리자

대리인으로서의 건축가의 역할은 건축가 전문직의 핵심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다. 주문자를 대리하는 건축가라는 개념은 일본에서도 꽤 이른 시기에 확립되었다. 추조 세이이치로(中條精一郎)는 ‘직업자(professional man)’, 곧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기사(建築技師)의 역할을 주문자의 대리인으로 설정했다²⁵⁴⁾. 다만, 건축기사와 주문자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같고, 건축기사와 청부자의 관계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건축기사(건축가)의 지위를 한층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중심의 건축사업에서 주문자는 국가인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건축가와 행정가가 크게 구분되지 않았던 초기 일본과 한국의 건축계의 상황에서 건축가들이 행정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확히 표현하면 건축행정의 대리인들이 건축가가 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역으로 건축가들이 행정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건축대서사의 존재이다.

□ 일본의 건축대리사(建築代理士)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건축사와 업역이 일부 중복되는 건축대리사(建築代理士)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지방행정의 필요에 의해 건축사 제도보다 20년 가까이 먼저 제도화되었고 일부 군현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존속되었던 특이한 제도로써 건축가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아시아적 특징, 적어도 일본적 특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며, 유사한 제도와 갈등이 반복되었던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건축대리사의 조직적 집단은 1950년대 후반 건축사사무소협회(建築士事務所協會)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역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각 지방의 협회들이 모여 1962년에 전국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全国建築士事務所協会連合会)를 설립한 이래 1980년 사단법인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日本建築士事務所協会連合会)가 되었고, 2003년에는 일반사단법인으로 이행하는 등 지금도 기능하고 있다²⁵⁵⁾.

254) 中條精一郎(1911). 「註文者と建築技師と請負業者」, 『建築雑誌』 n.25 (292), 1911-04, pp.84-92

255)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日本建築士事務所協会連合会) 홈페이지. <http://www.njr.or.jp/> last accessed: 2015-10-25

이중 도쿄도 건축사무소협회(東京都建築士事務所協会) 다이토 지부(台東支部)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혁을 참고하여, 대략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⁵⁶⁾ 이들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1919년에 입안되고 다음 해 4월부터 시행된 「시가지건축물법(市街地建築物法)」이다. 「시가지건축물법」은 일본에서 최초로 소위 ‘건축행정’을 탄생시킨 법이다. 규제 없이 이루어지던 건축 행위에 신고와 허가의 절차를 마련한 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행정담당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특히 이러한 건축물의 규제와 관련된 법령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조항들로 유명한데, 당시로서는 더욱 번거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목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때 최초로 인쇄된 서식의 신고용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표 4-11] 일본 건축대리사협회의 주요 연혁 _一般社団法人 東京都建築士事務所協会 台東支部

연도	주요 사건
大正9 (1920)	4 월 「시가지건축물법(市街地建築物法)」 시행
大正11 (1923)	11월 임의단체 도시건축연구회(都市建築研究会) 설립
昭和5 (1930)	「건축대원인규칙(建築代願人規則)」 발령
	제1회 건축대원인시험(建築代願人試験) 시행
昭和11 (1936)	동경건축대원인조합연합회(東京建築代願人組合連合会) 결성
昭和18 (1943)	제1회 건축대리사시험(建築代理士試験) 실시
	동경건축대원인조합(東京建築代願人組合) 인가
	7월 동경건축대리사회(東京建築代理士会)로 명칭변경
昭和22 (1947)	「동경도공인건축대리사규칙(東京都公認建築代理士規則)」 발령
昭和23 (1948)	사단법인 동경건축대리사회(東京建築代理士会) 설립
昭和31 (1956)	「건축사사무소등록(建築士事務所登録)」 개시
	동경건축사업회(東京建築士業会)로 명칭변경
昭和37 (1962)	전국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全国建築士事務所協会連合会) 설립

256) 도쿄도 건축사무소협회(東京都建築士事務所協会) 다이토 지부(台東支部)의 홈페이지의 자세한 연혁 중 주요한 사건만을 간추렸다. <http://www.taafaito.org/台東支部の歴史/昭和時代・戦後/> last accessed:2015-10-25

이에 따라 이 법률의 담당 부처인 경시청과 소관 경찰서 등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지건축물법 강연회’라든지 건축업자, 관리인, 출원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강습회’ 등을 통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렸다. 1923년에 설립된 임의단체 ‘도시건축연구회’는 이 과정에서 건축행정 출원 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최초의 집단으로서, 회지를 발간하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처음에 출원을 대행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대원인(代願人)으로 불렸다. 건축대원인은 건축주를 대신하는 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건축가의 사무를 보조해주는 의미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대원인이 되는 사람은 다양했다. 1928년 경시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건축대원인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축출원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것
- ② 대서인으로서 건축출원대리를 하는 것
- ③ 건축청부업자가 관계공사의 출원대리를 하는 것
- ④ 대공직(목수)으로서 관계공사의 출원대리를 하는 것
- ⑤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면서 관계공사의 출원대리를 하는 것

□ 한국의 건축대서사(建築代書士)

한국에서 최초의 대서업은 근대 중개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성장했다. 객주거간규칙(1890년, 인가제)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최초의 법제이다. 당시 가괘의 역할이 증대하고 복덕방이 무질서하게 늘어남에 따라 혼잡을 막고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객주거간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인원, 업무영역, 수수료에 대한 규제,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윤리 규정, 중개업자들 간의 조직의무 등이 골자였다. 1893년에는 경성에 한해 거간의 「인가제」를 중심으로 관료화된 거간에 대한 규칙이 다시 제정(15개조)되었다. 한성부에서 신원 조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관직으로 임명하여 인가증을 내주고 조합에 조직시키는 동시에 통제·감독을 병행하였다. 이 자격은 1910년 이후 자유화되었고, 이후 소개영업취체규칙(1922)으로 통합된다.

한국에서 건축대서사의 발생은 일본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 처음에 대서사 제도는 1910년 조선총독부의 행정 장악 초기에 경찰업무의 하나로서 시작되었다. 1910년 9월20일

1939년 건축대서사 시험이 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설계사무소가 생기고 전통적인 건축 생산체계와 조직은 무너지게 되었다.²⁵⁸⁾ 1932년에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지금의 도시 계획법과 건축법을 묶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인데, 도시를 중심으로 시가지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 한하여 건축물을 규제하였다.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현행 건축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제는 이 시가지 계획령의 적용을 당시 경성(서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함경북도 나남(羅南)을 1933년 최초의 적용구역으로 했다. 나남은 한반동 동북부에 위치한 소도시로서 일제의 중요한 북방침략의 병참기지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당시 서울에 재주하고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설계업의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건축설계인조합을 결성하고 건축사제도 실현에 힘을 기울이지만, 당시 일본 본국에서도 건축사제도 성립 전이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에 건축대서사 제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일반적인 대서사의 업무는 1938년의 건축대서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건축대서사란 명칭이 의미하듯 대서사의 업무가 건축부분에 특수한 것으로 전화된 것이다. 대서사 규칙은 1915년 총독부 건축생산조직의 업무분화가 일어나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받는 것과 나이 제한 규정을 제외하면 특별한 변화 사항은 없었다. 그 후 1938년에는 대서사규칙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대서사업무를 표준화시키고, 법률보조, 소작쟁의조정, 건축물의 매매와 양도 등에 대한 규정으로 업무를 확대시켰다. ‘조선건축대서사회’는 이 규칙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일반적인 건축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단체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이는 민간의 건축업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나, 조합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1941년경에 건축대서사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하였고, 1945년 패전과 함께 일본인 건축대서사들은 본국으로 물러갔다. 당시 총 건축대서사는 219명이었고, 이중 한국인이 70여 명이 었다²⁵⁹⁾.

258) 김정동(2014).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사 시대 개관」,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학회, p.608.

259)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p.197-198

朝鮮總督府官報 第三九八七號 昭和十五年五月九日(第三種郵便物認可)	◎逓信省告示第千二百二號 昭和十四年九月逓信省告示第千七百六十四號日滿郵便爲替、日滿郵便振替又ハ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ノ移讓ニ伴フ本邦ノ委託事務ヲ取扱フ滿洲國郵政局所及其ノ取扱フ事務種別中左ノ通改正ス 昭和十五年五月四日 左記郵政局名ヲ夫々下記ノ如ク改ム 逓信大臣 勝 正憲 省市名 現郵政局名 新郵政局名 奉天省 衛門臺 遼寧省 遼陽 關東省 大肚川 汪 清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全羅南道令第三十八號 建築ニ關シ業務ヲ行フ代書士ニ關スル件左ノ通定ム 昭和十四年十二月十四日 朝鮮總督府全羅南道知事 新貝 肇 第一條 建築ニ關シ業務ヲ行フ代書士ニ關スル件 建築ニ關シ業務ヲ行フ代書士タルトスル者ハ本籍、住所、氏名、生年月日及事務所ノ位置ヲ記載シタル申請書ヲ道知事ニ提出シ其ノ許可ヲ受クベシ 第二條 前條ノ申請書ニハ左ノ書類ヲ添附スベシ 一 戶籍抄本 二 履歷書 三 尋常小學校卒業程度ヲ以テ入學資格トスル修業年限五年以上ノ實業學校又ハ之ト同等以上ノ學校ニ於テ建築ニ關スル學科ヲ專攻シ卒業シタル者ニ在リテハ卒業證書ノ寫 第三條 許可申請者ニ對シテハ左ノ事項ニ付試験ヲ行フ但シ前條第三號ニ該當スル者ニ對シテハ試験ノ一部又ハ全部ヲ免除スルコトアルベシ 一 市街地計畫關係法規 二 建築技術 第四條 本令ニ依リ許可ヲ受ケタル代書士ハ左ノ行爲ヲ爲スコトヲ得 一 事務所以外ノ場所ニ於ケル業務上必要ナル行爲 二 業務ニ關係ナキ他人ノ訴訟事件、非訟事件、民事爭訟調停事件、小作調停事件ニ對スル代理又ハ鑑定 第五條 本令ニ依リ道知事ニ提出スベキ書類ハ其ノ事務所所在地ヲ管轄スル警察署長ヲ經由スベシ 附 則 本令ハ發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그림 4-4] 관보 1940년 05월 09일 [昭和 - 3987호] (2면)

朝鮮總督府全羅南道令第38號(1939년 12월 14)
建築ニ關シ業務ヲ行フ代書士ニ關スル件左ノ通定ム

• 건축대서사 자격시험

1938년 「조선대서사취체규칙(朝鮮代書士取締規則)」 속에 건축에 관한 행정대서사 즉 건축대서사가 공식화 되었고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법령절차 이행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험은 대학(전문학교 포함) 졸업자는 면접전형만을, 공업학교 졸업자와 기타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종사경력이 있는 자는 학과·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에게 건축대서사증을 발급했다. 건축대서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곧 ‘건축대서사조합’을 설립하고 다음 해 1939년 건축대서사 시험을 치러 7명의 건축대서사를 배출하였다.

해방 후 건축대서사의 수는 전 건축계로 볼 때 극소수이었다. 서울의 경우, 한국전쟁 전에 56인 정도였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전까지 주로 이들이 활동했다. 그만큼 건축대서사의 배출은 억제되어 있었다. 일제가 물러간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건축대서사제도는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그런데 서울 회원으로 구성된 건축대서사회는 ‘건

축사협회’(회장 김태식)로 이름을 바꾸고 회원들 스스로를 ‘건축사’로 자칭했다. 당시 서울 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에서도 ‘조선건축사협회라’는 호칭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서는 그 회원에 대해 법령근거에 따라 건축대서사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시 조선건축사협회가 작성한 「1947년도 건축사 자격심사시행요령」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접수한 출원자의 서류심사를 거쳐 학과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했다. 자격심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김세연·김윤기·김재철·이균상·신무성·김순하·정덕현 그리고 수도경찰청 보안과장을 추대위원으로 위촉했고, 학과시험은 6과목(건축계획, 일반구조, 구조역학, 건축재료, 시공 및 적산, 건축관계법규)를 과하되 2일간에 걸쳐 시행토록 했다. 이후 협회에서 경찰청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하여 건축대서사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건축대서사 허가의 근거인 「조선대서사취체규칙」의 소관사무가 경찰청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심사의 시행주체는 조선건축대서사협회이며, 놀라운 것은 소요경비를 동 협회 시행위원 11인의 분담금과 심사료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47년도 건축사자격심사 합격자 발표 약 한 달 후의 문서에 의하면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1948년 1월 1일 현재의 회원명부를 보면 회원총수는 56인이 되고 있다. 그 후 1948년 5월에 건축대서사 허가사무가 수도경찰청으로부터 서울시에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등록 절차를 밟았다²⁶⁰⁾.

건축대서사 자격은 소정시험을 거쳐서 얻되 당시의 고등공업학교 및 대학교 이상에서 건축에 관한 과정을 이수 졸업한 자에게는 학술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면접전형의 혜택이 있었고 공업학교 건축과 이수 졸업자 및 건축관계 학력이 없어도 일정기간 건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분야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실적증명 제출로 건축대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²⁶¹⁾

□ 건축사 자격으로의 통합과 분리

건축대서사 제도의 발생 이유를 추정해보면, 건축법은 법 중에서 가장 난해한 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출원, 즉 귀찮은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260)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p.199

261) 安仁模(1985). 「1.1.舊大韓建築士協會時代」, 『二十年史: 1965~1985』, 大韓建築士協會, p.68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가리키는 ‘대원인(代願人)’이라는 용어는 직업을 낮춰 보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지금도 쓰는 대원옥(代願屋)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한다²⁶²⁾. 결론부터 서술하자면 건축대원인들은 전문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건축사보다 먼저 자격제도를 만든 매우 특별한 형태의 직종이었다. 대원인들의 수준과 질의 차이는 행정조직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법정자격을 만들게 했다. 또 「건축대원인취체규칙」의 취체규칙이라는 것은 경찰행정에서 생겨났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법령 명칭으로 는 고급 자격법의 범위에 들지 못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30년을 시작으로 몇 개의 지방에서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건축대리사 제도가 유지되었다. 1949년 자료에 의하면 동경도에 신청되는 건축물의 90%, 한 달 평균 1만 건 이상에 달하는 건축물이 건축대리사에 의하여 수속이 대행되었다고 한다²⁶³⁾.

이 자격은 관청에 서류를 내는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가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건축가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 또 대리자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오래 일하다보면 경험과 노하우가 점점 늘어 유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지방 건축행정은 소규모 주택 설계를 건축대리사들에게 통째로 맡겨버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반대로 「대원인취체규칙」을 없애려고 했는데, 건축주를 대리하는 대원인보다 집을 설계한 건축사가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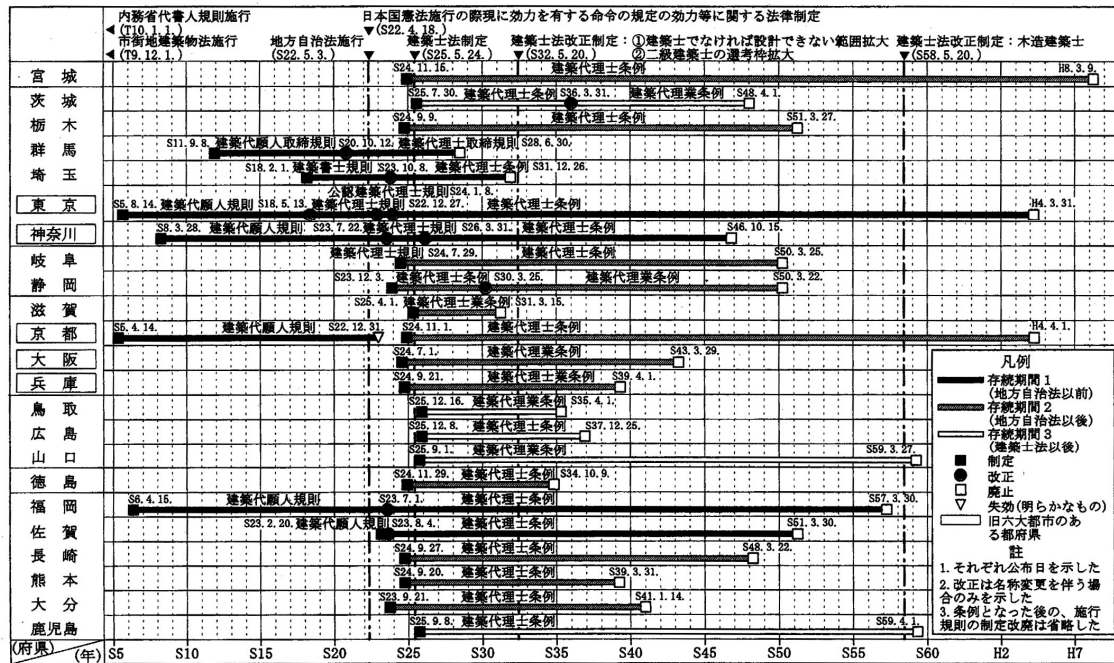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건축사법」이 시행되고나서 건축대리사가 더욱 늘어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처음에 6개 부현에서 시행되던 건축대리사 제도는 23개 부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건축사 자격을 못 딸 것 같은 대원인의 기득권을 배려하기 위해 정부가 타협한 결과이다²⁶⁴⁾. 또한 지방행정이 설계자로서 대원인의 역할을 기대해서 내는

262) 速水清孝(2001). 『建築家と建築士 一法と住宅をめぐる百年』, 東京大学出版会, p.132

263) 東京都建築局指導課(1949). 『条例解説 建築代理士の責務』, 東京建築代理士会, p.3

264) 건축대리사 제도에 관한 내용은 주로 速水清孝의 논문을 참고함. 速水清孝(2005). 「建築行政官の建築士法に対する意見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1」, 日本建築学会論文集 (598), 2005-12, pp.193-198; 速水清孝(2006). 「建築代理士制度の成立と展開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2」,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01), 2006-03, pp.199-204; 速水清孝(2006). 「建築士法第3条:建築士でなければできない設計又は工事監理の範囲の昭和26年改正の経緯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3」,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05), 2006-07, pp.183-187; 速水清孝(2006). 「帝国議会上程期の建築士法案に対する考察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4」,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07), 2006-09, pp.171-177; 速水清孝(2006). 「建設業法第26条:主任技術者制度の成立過程と建築士法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5」,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10), 2006-12, pp.185-190; 또한 藤井正一郎(1997). 『日本の建築家職能の軌跡—新日本建築家協会の設立まで』, 日刊建設通信新聞社 참고

목소리가 있었다. 지방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소규모 목조주택인 데 이것들을 모두 건축사가 커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건축사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고 건축사의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대원인이 건축물의 품질을 보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림 4-5] 건축대리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 상황 速水清孝(2006)

이와 같은 배경에서 건축사 자격제도의 성립은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건축사와 건축가가 같은 뜻이 아니게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 드문 등급 제도, 즉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가 나뉘게 되었으며, 전문직이 추구하는 것보다 교육이나 역량, 경험이 떨어지는 자에게도, 나아가 설계를 생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도 유사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4.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의 문제

건축사법이 정해지면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가 정해졌다. 예를 들어, 1950년 일본 「건축사법」은 누구를 건축사로 할 것인가, 업무독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이다. 이때 건축물의 면적이 문제가 되었다. 건축사법 제정 운동 시 제 7국회에서 타나카 카쿠에(田中角榮)가 300㎡ 이상을 건축사의 업무대상으로 제안했지만 건축사들이 거부했다. 적어도 시가지 건물은 전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 최소면적을 150㎡로 타협한 것이 1950년의 일본 「건축사법」이다.

이것은 150제곱미터 이하는 누구든 지어도 되는 것으로 목수들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의도와 달리 건축사를 크고 특수한 건물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7년에 법안 수정을 거쳐 100제곱미터로 범위를 축소했지만 이것도 일반주택으로서는 충분한 크기이다. 따라서 주택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전통적인 예술가-건축가들의 인식과 맞물려서 1급 건축사는 철근콘크리트, 2급 건축사는 목조로 업역이 구분되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소형 목조는 1급이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도 동시에 형성된 것이다. 당시 논의 과정에 등장하는 “오토 바이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 비유처럼 주택이 건축가의 범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표 4-12] 각급 건축사의 업무독점 범위 (1963년 대한민국 건축사법)

	1급건축사 (제4조)	2급건축사 (제5조)
1항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관람석 또는 청중석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백화점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연와조·콘크리트부록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2항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연와조·콘크리트부록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 300평방미터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것	연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항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1) 건축사법의 업무범위

RIBA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건축가의 업무는 전략적 정의(Strategic Definition), 준비와 요약(Preparation and Brief), 기본 디자인(Concept Design), 심화 디자인(Developed Design), 기술 디자인(Technical Design), 시공(Construction), 이양 및 종료(Handover and Close Out), 사용(In Use)까지 건설의 전 과정에 걸쳐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반드시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 그러므로 건축가의 업무범위에 대한 고찰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가려보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표 4-13] 건축가의 업무 (RIBA)

전략적 정의(Strategic Definition)
준비와 요약(Preparation and Brief)
기본 디자인(Concept Design)
심화 디자인(Developed Design)
기술 디자인(Technical Design)
시공(Construction)
이양 및 종료(Handover and Close Out)
사용(In Use)

* <http://www.ribaplanofwork.com/planofwork.aspx>

세계적으로 건축사의 업무는 대체로 유사하다. 한국의 「건축사법」 제19조에는 건축사의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축사는 첫째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건축가들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업무영역으로 선을 긋고 싶은 분야였다. 그런데 제2항에는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법」이 아니라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다. 다시 말해, 이들 업무는 「건축사법」이 정하는 건축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타법에서 필요에 의해 담당자를 건축사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주책건축사(注册建筑师, 등록건축사의 의미로 쓰임)의 업무범위도 분야는 비슷하다. 건축설계, 건축설계 기술자문, 건축물 조사와 감정, 본인이 설계를 주관한 사업에 대한 시공지도와 감독,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업무 등인데, 한국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점은 가능한 모든 업무를 직접 나열하고 있다는 것과 공사감리에 대한 범위의 차이 정도이다.

[표 4-14] 중국 등록건축사의 업무범위 (중화인민공화국 주택건축사 조례)

제 20 조 등록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설계
- (2) 건축설계 기술자문
- (3) 건축물 조사와 감정
- (4) 본인이 설계를 주관한 사업에 대한 시공지도와 감독
- (5)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업무

건축사법의 성립에서 겸업금지 규정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프랑스 가데 규범에서 상업적 이익의 금지 조항은 건축가가 다른 일을 하여 수입을 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건축사법이 제정될 때 토목건축에 관한 청부업과 건축재료에 관한 상공업 혹은 제조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표면상으로 건축가 전문직의 사심없음과 공공성을 공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었다.

[표 4-15] 건축사의 가능 업무와 불가능 업무 (일본건축사법 1925년안)

제1조 건축사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 1 건축설계
- 2 건축공사감독
- 3 건축에 관한 고문, 감정, 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4 전 각 항에 부대 관련하는 사항

제6조 건축사는 좌의 업무를 영업하면 아니 됨

- 1 토목건축에 관한 청부업
- 2 건축재료에 관한 상공업 혹은 제조업. 단 건축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렇지 않음

일본 건축사회는 1917년 ‘청부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또 청부업자의 사용인이 되지 않는다.’는 규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25년 건축사법안의 제6조 ‘건축사는 좌의 업무를 영업하면 아니 됨’이 추가되었다. 토목건축에 관한 청부업과 건축재료에 관한 상공업 혹은 제조업이 거부되었는데, 당시 건축사회의 의견조회에 제출된 반대의견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경시청 기사였던 노다 토시히코(野田俊彦)는 양복점은 설계와 청부를 함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신용하여 의뢰하며, 건축사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²⁶⁵⁾. 변경된 겸업금지 조항은 1929년에 다시 등장하는데 제5조 ‘건축사는 스스로 좌의 업무를 영위하고 혹시 좌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이 주목된다. 이는 건축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만 겸업이 금지된다

265) 野田俊彦(1927). 「建築學會時局ニ關スル委員會ノ建築士法ニ對スル意見」, 『日本建築士會會報』 n.5, 1927-04, pp.123-128

는 이야기로서 처음과는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1925년안이 호칭과 업무의 독점을 주장했다면, 1929년의 안은 호칭의 독점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부업자들의 설계 행위를 허가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19년 일본건축사회가 만든 법률 안에 일찍이 등장한 ‘설계전업의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은 결국 ‘건축사라 칭하여 설계를 할 경우에는 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변했다. 이미 제21조에 ‘단 본조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의 설계 및 감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후퇴조항도 들어가 있던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일본 「건축사법」은 업무법이 되지 못하고 자격법으로 남았다.

한국에 경우 실질적인 겸업금지는 1978년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의 과반수가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1980년에는 간단히 ‘법인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로 정리되었다.

(한국) 실질적인 겸업금지는 1978년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183호, 1978.10.6., 전부개정]

제23조 제3항 :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의 과반수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일부개정]

제23조 제3항(개정) : 법인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표 4-16] 각국 건축사 제도의 특징 비교

구분	건축사 자격 명칭	근거 법률 (제정년도)	성격	자격 기준 (교육 및 실무 기준)	관련 단체 (설립년도)	제도의 목적	입법범위	주요 논쟁 이슈	비고 (특기사항)
한국	건축사	건축사법 (1963, Certified Architect's Act)	시험 (국가) 후 자격 등록*	건축사법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사(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건축 실무수련 완료증명<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시험 자격 : 건축전공자/ 전문대졸후 2년, 고졸후 4년, 비전공자/ 기사취득진후 통산 3년, 산업기사취득진후 통산5년실무수련 원료자격 : 비인정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4년, 인정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대한건축사 협회 (大韓建築士協會, 1965)** 한국건축가 협회 (韓國建築家協會, 1959)** 세건축사협회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건축사법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물의 설계, 공사관리(건축사법 제2조)감을 조사, 감정, 감사, 확인, 유지·관리, 사업관리 등(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목 전공자의 설계업무(1965년 이전)기득권의 인정(대서사, 1965년 1회 시험)건축사의 위계구분(1급, 2급의 면적구분, 1963-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인법상기준에 따른 자격제도 구분<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자격자에게 업무 또는 영임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 자격자에게 특정 자격명칭을 부여하여 기술, 기능 등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독점적 업무 없음)** 건축사법 제정 이전에 조선건축사회(1945)와 대한건축사협회(구립, 1955)이 있음***전신인 한국건축작가협회(1957)가 개칭
독일	건축사 (Architekt)	각 지방건축사법*, (Architektengesetz der Länder)	자격 승인 (협회) 후 등록	건축사 등록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 관련 학과 전공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이상 대학, 국립, 승인된 사립 기술전문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교육기관 졸업2년 이상 실습 기간일반 전공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제 이상 4년제 이하 학교 졸업생- 최소 6-7년 건축사무소 실무경력지방건축사회 주관 또는 인정하는 건축사 학위자격시험 실시	지역건축사 연합 (Bundes Deutscher Architekten, 1903) 연방건축사회 (Bundes Architekten Kammer, 1969) 각 지방건축사회 (Landes Architekten Kammer,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사 명칭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업무 영역에 관해서는 각 지방법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물 단지/지구, 도시를 포함한 영역에서-의 창조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친화적 예술, 인건의 개념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 계획사업의 계획, 시행과 관리와 관련한 주를 위한 자문, 지원, 대리 역할, 건설 프로그램 수행 (각 지방건축사법, Architektengesetz der Lä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적 재산권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은 연방차원의 건축사법은 없으며, 각 주별로 건축사건축사회건축사-건축사회법에: 베를린 건축사·건축사회법, Berliner Architekten- und Baukammergesetz, 건축사법에: 브란덴부르크 건축사법, Brandenburgisches Architektengesetz) 이 있음

266) 최상기(2009). 「건축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만드는 건강한 건축 문화」, 『건축과사회』, p.119

267) 최상기(2009). 「건축 전문직에서 산업적 분류는 필요한가」, 『건축과사회』, 2009, p.79

구분	건축사 자격 명칭	근거 법률 (제정년도)	성격	자격 기준 (교육 및 실무 기준)	관련 단체 (설립년도)	제도의 목적	입무범위	주요 논쟁 이슈	비고 (특기사항)
영국	건축사 (Architect)	건축사법 (Architects Act, 1997)	시험(인증기관) 후 등록	건축사 등록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교육기간(ARB, RIBA 인증기관)²⁶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 1: 학부과정 3년, Part 2: 대학원 과정 2년 2년 전문 실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경제지역에 등록된 건축사 감독, 이중 12개월은 반드시 영국 등록 건축사의 감독 필요 1년은 반드시 part 2 교육 이후에 이루어져야함 Part3가 시험으로 part 3가 설치 된 인증 학교에 지원하여 약간의 교육 후 시험²⁶⁷⁾ 기타 유럽 연합의 회원 국가의 합법 기관(Competent Authority of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이나 유럽 자유 무역협체(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의해 증명되고, 어떠한 조건 상에서 졸업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을 마친 자²⁶⁸⁾ 	건축사 등록협회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1997) ²⁶⁹⁾ 왕립 영국 건축사협회 (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 18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를 통해 대중을 보호하고 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해 (Architects Regulation and the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Call for Ev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가"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 활동 가능하지만, ARB에 의해 처벌당함(벌금) (RIBA Plan of Work) 평가, 개요, 개념 개발, 상세 설계, 제작, 정보, 입찰 도면, 입찰, 공사 시작, 시공부터 완공까지, 완공 후 - 11단계로 건축 프로젝트 단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chitects Registration Bill Committee가 건축학회(Society of Architects)의 강력한 지지 아래 건축사 등록 법안을 지지했으나, 저명한 건축가와 예술가로 구성된 그룹에 의한 반대 있었음(1889, 18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 등록협회는 건축사에게 기대되는 전문직의 행동과 실무(professional conduct and practice)의 기준을 정한 규정(code)을 제정하고 추후 개정할 수 있다(건축사법 13조 제 1항, 제 2항) 건축사 역량의 불충실 혹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의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기능 등록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와 공인 건축사(chartered architect)가 여전히 구분 등록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 중 75-85%가 공인 건축사(chartered architect)이며 이는 비윤리 자격 요건의 이윤론 모두는 등록 건축사가 공인받지는 않음(270)
미국	건축사 (Architect)	건축사 등록법 (architectural licensing law, 1897) *주별로 실시	시험(협회) 후 면허+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건축사 교육은 일반대학 학기제와 동일한 4년(공학사+2년(건축학석사) 또는 5년제 건축학 학사 취득 후 3년의 실무(Intern Development Program, IDP)를 거쳐 건축사 시험(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 ARE)을 통과하면 건축사 면허를 취득²⁷¹⁾ 	미국건축사 등록원(NC ARB, 1919) 미국건축가 협회(AIA, 18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전문성을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안전을 보호(Model Law)²⁷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업무와 건축사 자격에 대한 규정 및 제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각 주정부의 권한으로 물러진다(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법과 주별 자치법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제도 (한 주에서 면허를 획득한 경우에도 다른 주에서 등록한 후에 건축사 업무 수행 가능)²⁷⁴⁾ 등록 후 교육 등 의무 이행에 따른 주기적 갱신

268) Model Brief to Enforce Laws Prohibiting Architectural Practice by Unlicensed Persons, 2010, NCARB

269) 김영애(2003). 「특집: 건축교육과 건축사 수급-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및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 v.47 n.7, p.28

270) Sir Christopher Ball(2009). A Report for the RIBA On the Registration and Regulation of Architects RULES AND RESPONSIBILITY, p.9

271) <http://www.art.org.uk> last accessed:2015-10-25

272) 손세형(2009). 「영국의 건축사 자격의 법적 현황과 건축설계 업무범위」, 『건축과사회』, p.96

273) 홍성수(2007). 「영국 건축사제도 - 최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pdf자료

274) 홍성수(2007). ibid.

2) 대한민국 건축사법의 법제적 해석

통상 법은 크게 민법, 형법, 행정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소송의 목적이 분류되기는 하나(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법률의 위계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그 위계를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은 모두 같은 위계의 법률로 보며²⁷⁵⁾, 그 성격에 대하여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²⁷⁶⁾. 다만, 법률 제정의 목적에 따라서는 법령을 분류해 볼 수는 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시하면서 허가, 특허, 인가, 등록, 자격부여와 같은 분류를 하면서 관련된 법령입안의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법령을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대부분 행정법에 속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⁷⁷⁾

「건축사법」의 경우 그 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건축사법 제1조²⁷⁸⁾), 건축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다. 건축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절차는 결국 이를 수행하는 행정청의 의무와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어서, 건축사법은 행정법에 속하고, 그 목적상 자격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건축사 자격의 의미

자격에 대한 정의는 자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자격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자격은 그 자격부여의 형식에 따라 특정인이 시험합격, 학력 또는 경력 보유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이 해당 자격자임을 확인하여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인 자격자로 인정하는 자격등록제와 면허를 부여하는 면허제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자격’ 또는 ‘면허’ 등의 이름으로 부여되는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령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은 자격등록제로 의사, 약사, 의료기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분야의 자격과 위생사,

275) 다만, 특별법의 형태로 우선 적용되는 법률을 두는 경우가 있고, 기본법의 명칭으로 관련 법률의 원칙 등을 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276) 예를 들어 ‘자격법’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는다.

277)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41&astClsCd=CF0101>) last accessed:2015-10-25

278) 건축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사·미용사, 영양사·조리사 등의 공중위생 분야의 자격은 면허제로 규정되어 있다²⁷⁹⁾).

건축사법은 현재 ‘자격등록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건축사법은 면허제에서 자격제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면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²⁸⁰⁾ 자격 제도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우선 유자격자에게 업무 또는 영업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와 특정 업무의 수행 또는 영업활동을 자격자만이 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으나 자격자에 특정 자격명칭을 부여하여 기술·기능 등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자격제도가 있다²⁸¹⁾. 전자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그 업무 활동을 자격자의 관리·감독 하에 둠으로써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사법 역시 이에 해당하여 건축사에게만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건축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① 법령에서 자격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건축사법 제19조), ②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업무 종사를 제한하며(건축사법 제4조), ③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건축사법 제10조) ④ 자격 명칭 사용을 제한하며(건축사법 제12조) ⑤ 여기에 위 규정을 강제하기 위하여 형사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과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건축사법 제39조의2, 제41조). 만약 벌칙조항이나 행정벌 등 강제 수단이 없이 건축사의 업무임을 명시하기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279)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2장 실제 규정 19. 자격부여
마. 자격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41&astClsCd=CF0101>) last accessed:2015-10-25

280) 건축사법에서도 1963. 12. 16. 법률 제1536호로 제정할 당시에는 ‘면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0. 1. 28. 법률 제6244호로 개정하면서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격제로 일원화하였다(건축사법 2000. 1. 28. 법률 제6244호 일부개정 사유 참조).

281)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2장 실제 규정 19. 자격부여
가. 개관 1) 자격제도의 유형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41&astClsCd=CF0101>) last accessed:2015-10-25

건축사법 중 건축사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된 조항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 과 이 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건축사법 제19조 제1항에서 건축사가 수행할 업무로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에서 건축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여, 건축사법 제19조 제1항의 설계와 공사감리가 건축사에게 부여된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그 밖에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의 업무 영역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에 부수되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을 정하였다.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건축사법 조항에 의할 때에 건축사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된 업무임을 알 수 있다. ① 건축사법 제4조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있고, ②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사가 아닌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건축사법 제39조의2 제2호²⁸²⁾) 무자격자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 제23조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면서²⁸³⁾ 건축물에 대한 설계 중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다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106조²⁸⁴⁾에서 위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강제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제106조에서 벌칙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물이 부실하게 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하였을 경우 그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또한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감리가 건축사의 업무임을 명시하였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공사감리를 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82) 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83)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후략)

284)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건축사법 [법률 제6244호, 2000.1.28.,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개정이유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함(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
- 나. 건축사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법 제22조 삭제).
- 다.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7항).
- 라.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3조).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사의 업무, 즉 ①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 업무²⁸⁵⁾, ②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④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 등은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에게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별칙조항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배타적으로 건축사에게만 부여된 업무라기보다는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인데,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허가권자인 행정청을 대행하는 업무이고²⁸⁶⁾,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는 건축사 이외에도 건설기술용역업자,

285) 주로 법원 등에서 건축 공사의 기성고를 감정할 때에 건축사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286) 건축법 시행령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여서²⁸⁷⁾ 건축사가 하는 업무로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처럼 건축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건축사의 법적 책임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건축사법 제1조), 건축사에게만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띄고 있다. 「건축사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건축사의 업무상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7항에서 품위유지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 품위유지 의무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건축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고, 또한 이를 근거로 건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축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사가 업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상 성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각 주체로 정한 건축사는 설계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건축사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축법」상 ‘설계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과 「건축사법」상 ‘건축사’의 책임을 구별하고 있다. 즉, 「건축사법」상 건축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개인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법」상 설계자는 시공자 및 건축주 등과의 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독립한 법인격을 지닌 업무주로서의 설계자를 의미한

287)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중략)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즉, 「건축사법」에서 정한 건축사의 책임은 건축사 자격을 지닌 개인에게 묻는 책임으로, 건축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고 시공에 문제가 없는 설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건축법」상 설계자는 단순히 건축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보다는 시공자 및 건축주와 어떠한 계약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

「건축사법」 제21조에서 정한 건축사의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 의무는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때에 이를 진정한 것(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58조), 이러한 서명 또는 날인의 효과를 설계도서등에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건축사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설계도서등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이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은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건축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는 별다른 입증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건축사는 설계도서등이 위조되었음(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결국 건축사가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건축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증하고, 설계도서등의 하자 등으로 건축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과 더불어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서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 설계도서등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전문성의 본질이 개인의 능력에 있다는 생각은 자율성 수호의 기반이다. 예를 들어 마샬(T. H. Marshall)은 전문성의 본질을 개인성에서 찾았다. 즉, 서비스라는 것이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개인적 책임에 의한 개인적인 자질과 개인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진정한 단위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²⁸⁸⁾

「건축사법」 제23조에서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²⁸⁹⁾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⁰⁾. 이는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없이는 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인데, 건축사법이 건축사에게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무자격자에게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배타적으로 업무 영역을 규정한 만큼, 자격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여 행정청이 영업상의 감독을 하고자 한 것이다²⁹¹⁾.

건축사업의 영업상의 감독을 위하여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의무화하면서, ① 「건축사법」 제30조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²⁹²⁾, ②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부를 작성, 정리하도록 하였으며²⁹³⁾, ③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²⁹⁴⁾, ④ 건축사가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속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²⁹⁵⁾.

288) T.H. Marshall(1939). The Recent History of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Social Structure and Social Polic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Aug 1939), reprinted in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s(London, 1963), pp.158-159

289) 건축사사무소 개설은 건축사법에서 최초 등록제로 운영하였으나, 2000. 1. 28. 법률 제6244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다(건축사법 2000. 1. 28. 법률 제6244호 일부개정 사유 참조).

290)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략)

291)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2장 실제 규정 19. 자격부여 마. 자격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 아. 자격업무 개시에 관한 규정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41&astClsCd=CF0101>) last accessed:2015-10-25

292) 건축사법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93) 건축사법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94)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7조²⁹⁶⁾에 근거하여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변호사법 제15조²⁹⁷⁾에 근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변호사 자격자의 등록과 개업 신고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자격 등록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는 시·도지사에게²⁹⁸⁾ 분리하여 운영하는 건축사 제도와는 운영방식이 다르나, 변호사 역시 개업을 하지 않고서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 없이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역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의무화한 것과 같은 취지로 영업상의 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 역시 ①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²⁹⁹⁾, ②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입액을 보고하여야 하며³⁰⁰⁾, ③ 변호인선임서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하도록 하는 등³⁰¹⁾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관리를 변호사협회를 통해 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을 의무화하였고, 의료기관 개설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³⁰²⁾.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도 의료업을 행할

295)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296)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7)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98) 현재 건축사법 제38호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99) 변호사법 제21조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300)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입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입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1)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명시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 특징이다.

□ 건축사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차이

「건축사법」 제18조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건축사협회에 등록³⁰³⁾ 하여 건축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건축사가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³⁰⁴⁾, 「건축사법」 제18조의 자격등록은 건축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건축사사무소 설립 신고는 실제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상의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 감독의 취지가 다르다. 결국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관리하고 재교육을 통해 자격자를 관리하는 것과 건축사가 영업을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분리한 것이 건축사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는 자격등록 제도로서의 기능과 자격자의 업무개시 신고 제도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³⁰⁵⁾.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후략)

303)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략)

304)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05)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2장 실체 규정 19. 자격부여 마. 자격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 마. 자격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

[표 4-17] 건축사·변호사·의사 자격제도 비교 1 - 성립과정

건축사	변호사	의사
<p>1930년대 서울에 재주한 건축 설계업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설계인조합’ 결성 후 건축사제도 언급</p> <p>1938년 ‘조선대서사취제규칙’ 속 ‘건축대서사’를 만들어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법령 절차 이행에 관한 조합 만듦</p> <p>1941년 건축대서사자격시험 최초 시행</p> <p>해방이후 미군정하 건축대서사 제도가 그대로 이어짐</p> <p>1945년 12월 말경 건축대서사 조합 대신 서울회원으로 구성된 ‘조선건축사협회’ 설립</p> <p>1946년 3월 조선건축사협회 설립, 7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자치적 건축사 시험 치러짐, 8월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 ‘조선건축가자격증’ 교부</p> <p>1955년 대한건축사협회(구협) 발족</p> <p>1961년 건축사법안을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가협회 공동 내무부에 제출, 대한건축사협회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무부에 제출</p> <p>1962년~건축사법시행령 관련 건축행정대서사 특례 내용에 관한 논쟁으로 수차례 개정</p> <p>1965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실행 및 시험거부운동 발생 후 11월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행</p>	<p>1895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영향력 속에 ‘재판소구성법’ 공포</p> <p>1897년 대인과 관련하여 법부 훈령으로 ‘대서소세칙’ 공포</p> <p>1900년 칙령 제12호로 제정 공포된 ‘사법관임명규칙’</p> <p>1905년 대한제국 시기 법률 제8호 ‘변호사법’ 제정</p> <p>1907년 법부에 최초 변호사 시험 치러짐. 다음해 제2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져 총 10인 합격</p> <p>1907년 한성변호사협회 창립</p> <p>1909년 사법관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법관시험’으로 명칭 바뀜, 변호사법 개정</p> <p>해방 이후 미군정은 부족한 변호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 하여 제1회 시험 실시. 정부수립까지 151명 합격자 배출</p> <p>1945년 ‘조선변호사회’ 창설</p> <p>1949년 공포된 ‘변호사법’에 근거해 1952년 ‘대한변호사협회’ 창립총회 개최</p> <p>1950년 제1회 시험 16명을 시작으로 1960년까지 고등고시 사법과는 108명이 합격한 제8회 시험을 제외하고 평균 30명 정도의 합격자수 유지됨. 4.19혁명 이후는 매해 100명 이상 선발</p> <p>1962년 서울대학교 특수 대학원으로 사법대학원 설립하여 미국식 로스쿨 도입</p> <p>1970년 사법대학원과 법조실무계가 하나로 엮여 사법시험개정,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에 사법연수원 설치</p>	<p>조선시대부터 ‘의과취재’를 통해 국가 의료인력 선발</p> <p>1886년 제증원 내 의학교 설치하여 서양의학 교육 실시</p> <p>공식적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언급은 1899년 ‘의학교규칙’에 의학교 졸업자에 대해 내무대신 명의의 의술개업 면허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p> <p>1900년 ‘의사규칙’ 7조 반포</p> <p>1908년 세브란스 1회 졸업생(7명)에게 의술개업 인허장 최초 부여, 이후 1909년부터 관립의학교 졸업생들이나 대한의원 의육부 졸업생들에게 부여 시작</p> <p>1908년 의사연구회 조직, 1909년 의사연구회 의사법 제정운동</p> <p>1913년 11월 조선총독부령 제100호로 ‘의사규칙’ 반포</p> <p>1914년 3월 조선총독부 부속 의학강습소 지정, 무시험 의사면허 취득, 7월 ‘의사시험규칙’ 반포</p> <p>1915년 한성의사회 창립</p> <p>1930년 조선의사협회 창립, 기관지 ‘조선의보’ 발간</p> <p>1945년 건국의사회 창립</p> <p>미군정시기 1946년 의사면허제도 관련 의사면허등록 갱신, 검정의사시험제도 폐지</p> <p>1948년 ‘조선의학협회’를 ‘대한의학협회’로 개칭</p> <p>1952년 의사국가고시 실시하여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시험응시자격 주어짐</p> <p>1972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사회부에서 의협으로 이관</p>

nfo?astSeq=2241&astClsCd=CF0101) last accessed:2015-10-25

[표 4-18] 건축사·변호사·의사 자격제도 비교 2 - 자격요건

건축사	변호사	의사
<p>1938년 건축대서사 취제규칙. 수업연한 6년 심상소학교와 졸업정도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6년이상의 실업 학교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 있어서 건축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신청자는 시험을 행하고, 건축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p> <p>1963년 건축사법,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고시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함,</p> <p>1급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교육법에 의한 대학(구제전문 학교포함)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초급대학 건축관련 졸업→7년 이상 실무경험 자, 고등학교 건축관련 졸업→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2급건축사→3년 이상의 실무경험,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7년 이상의 실무경험 가진 자.</p>	<p>1900년 사법관 임명규칙은 법률학졸업자로 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경유한 자, 법률학졸업증서가 없더라도 사법업무에 난숙한 자를 사법관으로 임명</p> <p>1933년 변호사시보제도 시행 1년 6개월 실무 연수 요구</p> <p>1949년 변호사법. 수습변호사(고등고시사법과 합격)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자,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법원행정처, 국방부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자.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 대학의 법률학 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p> <p>1962년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p> <p>19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p>	<p>1900년 의사규칙, 의과대학과 약학과의 졸업장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p> <p>일제시대 1913년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 졸업자나 혹은 조선총독이 정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의사면허를 부여, 외국의 의학교를 졸업한 자·외국인도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경력이 인정되면 면허부여 규정,</p> <p>1914년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5년 이상의 경험 있으면 의사시험응시자격 부여</p> <p>1952년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p>
<p>* 변호사, 의사제도 연혁 관련 참고문헌 : 여인석·박윤재·이경록·박형우(2002),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한말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의사학』 n.11, pp.137-153; 이흥기(2010), 『한국 근대 의사직의 형성과정(1885~1945)』,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대한변호사협회(2001), 『大韓辯協五十年史』, 대한변호사협회; 이국운(2015), 『한국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로스쿨 제도 이전』, 『저스티스』 n.146-2, pp.167-189</p>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성격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건축사 개인과 회사(법인) 모두 가능하다. 즉,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건축사사무소 자체에 법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 개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하는 경우 이는 건축사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나 업무의 책임은 모두 건축사 개인에게 있다³⁰⁶⁾.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인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³⁰⁷⁾, 「건축사법」에서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는 법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³⁰⁸⁾라면 건축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건축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은 법인에게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법」에서는 법인의 형태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에서 정한 형태 이외의 법인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³⁰⁹⁾.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의 업무

「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를 둘 수 있고, 제5항에서는 소속 건축사가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으며, 제8항에서 예외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아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둠으로써, 건축사는 건축사가 개설한 건축사사무소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격 등록이 된 건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는 건축사 뿐이고, 다른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건축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른 전문 자격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변호사 역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 변호

306)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상호를 등록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회사(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업무를 위한 등록인 것과 같은 원리이다.

307)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8)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309)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를,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를, 법무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각각 합명회사, 유한회사, 조합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사 또는 법무법인 등 법에서 정한 형태로만 고용이 가능하다³¹⁰⁾.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서 정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게 되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할 뿐 독립적인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계약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설계도서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로 정한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의 경우 대다수의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사만이 모든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계도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 이외에 건축사가 진정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업무를 부여 받아 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10)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결론

이 연구는 건축사 제도의 형성과정을 언어학적·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현재 건축가 개념의 모호함과 호칭 갈등의 기원, 그리고 업무 범위의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기획되었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서양 문명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건축가 호칭의 확립 과정을 분석하였고, 전지구적 근대화·산업화의 역정 속에서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을 겪어 온 건축사 업무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세기 말, 일본에서 ‘아키텍처(Architecture)’는 대상을 명시한 ‘조가(造家: 집을 짓다)’와 행위를 강조한 ‘건축(建築: 세우고 쌓다)’ 두 계열로 번역되고 있었는데, 두 한자어는 모두 아키텍처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새로 만든 용어였다. 아키텍처 개념의 모호함과 익숙한 한자어의 결합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고, 이로 인한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토 츠타(伊東忠太) 등에 의해 주장된 ‘건축가’ 호칭에는 ‘아키텍트(Architect)’를 단순히 집을 짓는 자로부터 분리해서 ‘화가’, ‘조각가’와 동등한 ‘미술가’의 지위에 자리매김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들 호칭에는 공통적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가’라는 접미사가 붙었다. 건축가 호칭의 확립은 건축행위의 여러 담당자들 중 설계자의 우위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시공자·공학자 등 다른 전문가들이 건축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서구의 아키텍트 개념에 상당히 부합하는 인식

과 용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건축설계자만을 건축가라고 명명하는 태도는 내부의 반발을 샀고, 정확한 업무의 내용이 드러나는 ‘건축설계감독사’라는 호칭이 제안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은 서양에서도 ‘architect’의 의미와 용례가 격변하는 시대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을 짓는 일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직업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 되었지만, 전문직으로서 건축사의 등장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산업화에 따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 현상이 건축 분야에 적용되었고, 이중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이 소위 ‘전문직화’ 과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문직이란 체계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며, 이에 따른 업무의 독점권을 획득한 직군을 말한다. 서구의 건축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처럼,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분화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의 독점과 새로운 계층의 성립을 달성했다. 이들은 학교와 협회의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강조했다. 즉,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인 체계적 이론, 권위, 윤리강령, 자격제도 등을 구현하면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야를 독점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을 갖추어나가는 전문직화 과정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드러난다. 학교와 협회, 국가와 민간 등 주도하는 집단이 다르고, 예술가와 사업가 또는 예술가와 공학자 등 교육의 목표가 논란이 되었으며,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건축가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으나, 재래 직종이 분화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직업으로 번역·수입되었으며, 초기 건축가들이 강력한 국가 주도의 교육에 의해 기술 관료로 양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들은 신분으로서 ‘건축가’, 관료적 직급으로서 ‘건축기사’를 구성했다. 잠시 후 민간 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문직의 속성을 강조한 ‘건축사’ 호칭이 비로소 생겨났지만, 그것이 제도화되기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행정적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부터 전문 건축교육이 시작되었지만, 근대적 건축교육의 체계를 갖춘 것은 1819년 에콜 데 보자르가 설립하면서부터이다. 보자르 교육은 선생에게서 제자로, 선배로부터 후배로 지식과 가치체계를 전수한다는 점에서 전통 도제교육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철저한 설계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에서 전시대와 단절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아틀리에에는 학교 시스템으로 전수되기 힘든 경험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보완책

으로 작용했다. ‘로마상’ 등의 경쟁 교육을 강조한 것도 다른 나라의 건축교육에 영향을 크게 미친 점이다.

독일에서는 건설 수공업자를 위한 실무교육기관인 기술학교와 18세기 말에 설립된 건설 공무원을 양성하는 베를린 건축아카데미가 있었다. 19세기 말에는 전통 수공업자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엔지니어나 기술자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했다. 또한 공과 대학에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전통이 강화되어, 토목, 자제, 시공 등의 실무 지식을 포함하는 건축교육이 주가 되었다. 독일에서 1906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국가 공인 건축사 자격 제도는 1971년까지 대학에서의 건축학위 수여와 병행해서 존속하였지만, 현재는 졸업 학위인 디플롬만이 건축가 자격의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60년 MIT, 1867년 일리노이 대학, 1868년 코넬 대학 등에 건축학과가 설립되었으며, 독일의 기술대학을 모델로 하거나 과학적 원리를 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건축사의 법제화, 훈련 시스템, 직업 윤리강령의 체계화가 진행되었으며, 1897년부터 건축사 면허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본은 정부기구인 공학성에 공학교를 설치하면서 국가 주도의 건축교육이 시작되었다. 1874년 공부대학교에 영국인 교수 조사이어 콘도가 부임했으며, 제1세대 일본인 건축가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았다. 이때 교육은 건축의 예술성이 부각되는 보자르식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건축가라는 호칭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점차 공학교육에 치중하면서 건축설계자와 건축엔지니어와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전국건축사회’가 설립된 것은 1914년의 일이고, 이들이 처음 주장한 ‘건축사법’이 통과된 것은 1950년의 일이다.

중국은 기술자들에 의한 건축가 양성과정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건축가들에 의해 새로운 교육제도가 중첩되었다. 실업교육은 주로 일본의 건축교육체제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실무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쑤저우 공업전문학교, 중앙 대학 건축계, 동베이 대학 공학원 건축계 등이 1920년대 중후반에 건립되면서 건축교육의 아카데미즘이 성립했다. 이들 대학의 건축과는 예술 표현과 설계를 중시하는 반면 기술과 훈련을 경시하는 풍토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은 근대 공업전습소로부터 건축교육을 시작했으며,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의 개교로부터 고등 건축교육의 문을 열었다.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한 이래, 기술

관료의 배출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졸업자는 총독부, 철도청, 체신부 등 국가기관에 자리를 잡고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관리를 담당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는 민간 건축가 집단이 세력을 얻거나 자격제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었다. 해방 후 1946년 서울대, 1949년 한양대를 필두로 1950년대까지 약 10개의 대학교에 건축학과가 설치되었다.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이 실시된 1965년까지 이들 대학을 졸업한 총 졸업자 수는 3,000여 명 수준이었다. 이때 비로소 건축학과 졸업자가 관청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자유전문직 건축가로서 활동이 주가 되는 인력구성의 전환이 발생했다.

건축가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가 협회의 형성이다. 협회는 자체적인 담론과 윤리강령을 조직하고, 이에 따른 건축가 집단의 특권과 권력을 요구하는 주체가 된다. 영국의 RIBA, 프랑스의 국가공인건축가협회, 독일의 BDA, 미국의 AIA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건축사회가 1914년에 성립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1922년에 성립한 조선건축회는 건축가들의 협회라기보다는 건축계 전체의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해방 후에는 조선건축기술단, 조선건축대서사회, 한국건축작가협회 등이 협회의 성격을 지니면서 향후 한국건축계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단체로 성장하게 된다.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로 대표되는 건축사 업무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보장을 위한 최종 장치는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제도였다. 모든 나라에서 건축사 자격제도는 적어도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달성되었다. 전문직의 자격제도는 그들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심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로서 설득력을 획득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건축물을 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가 미흡했던 동아시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고 동시에 우월한 업무로서 건축사의 역할과 지위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오랜 관료제의 전통 속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청의 행정적인 필요가 부가되어, 관청을 상대로 한 인허가 대행이라든지 시공현장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 점이 특징이다. 1965년 이후 한국에서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격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대체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건축사 자격제도는 대체로 20세기에 성립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격론이 진행되었다. 영국에서 RIBA의 건축학 교육인증의 역사, 일본에서 건축사법의 통과절차

는 건축사 자격제도가 적어도 수십 년의 투쟁 끝에 일구어낸 성과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과 한국에서 건축사제도의 이슈는 건축가 집단의 성장에 따른 법제화가 아니라 전후 도심복구 과정에서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기존 건축행정을 담당했던 건축대리사 혹은 건축대서사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고, 이들을 건축면적을 제한하면서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특례를 통해 건축사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건축사 제도가 성립했다.

건축사는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무자격자에 대한 건축사 업무 종사 및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제에서 건축사 제도는 의사·약사와 같은 면허제도가 아니고 변호사·변리사와 같은 자격등록제도이다. 이는 건축사의 독점적 지위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건축사법은 예를 들어 설계행위 자체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초래하는 법적 효력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지어질 때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설계도서만이 유효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건축사 자격제도의 한계이다.

건축 교육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건축사 전문직의 확립이 늦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시공자, 공학자 등이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사 업무의 독점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동시에 건축사들이 이들에게 고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 일본에서 최초로 ‘건축사법’ 제정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소위 ‘검업금지’ 조항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시공 및 재료업계의 반발로 업무의 문제는 호칭의 문제로 격하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을 금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는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업금지 조항이 활성화되었으며, 원래 의도와는 달리, 역으로 건축사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요컨대, 건축사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은 전세계 건축사 전문직의 공통 문제인 경우가 많다. 건축물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직업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국가마다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그 해결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축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례없는 직업이 번역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축가 호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 오랜 관료제 전통과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가 집단의 특수성 등이 독특한 건축사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더해, 식민시기의 수동적·인위적인 단체와 시장의 형성, 국가재건기의 강력한 행정적 필요가 더해져 한국 건축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건축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편 문제와 특수 문제를 구분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관보』, 제20호, 1910-09-20

『관보』, 제3987호, 1940-05-09

『관보』, 제4041호, 1965-05-15

『관보』, 제4223호, 1965-12-16

『관보』, 제4395호, 1966-07-12

『관보』, 제4776호, 1967-10-19

『관보』, 제5101호, 1968-11-18

『관보』, 제5406호, 1969-11-26

권오훈 역(1999). 전문직의 사회학, 일신사

김영애(2003). 「특집. 건축교육과 건축사 수급-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및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 v.47 n.7

김육성(1990). 『1945년부터 1955년까지 韓國建築界 形成期 性格에 관한 研究-1919년~45년 동안 건축교육을 받은 세대의 교육실태 및 그 영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기(1947). 『조선건축의 전망』, 『조선건축』, v.1 n.1

김의용(1992). 『1880년~1945년 한국 관 건축조직의 변천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동(1991). 「1940년 전후 건축대서사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1-12

김정동(2014).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사 시대 개관」,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학회

金台植(1948). 「建築士를 論함」, 『朝鮮建築』 v.1 n.3, 1948-08

- 김한섭(1984), 『건축가 김한섭(김정동 대담)』, 금성종합설계공사
- 대한건축사협회(1986), 『二十年史: 1965~1985』, 大韓建築士協會
- 대한변호사협회(2001), 『大韓辯協五十年史』, 대한변호사협회
- 류전희(1992), 「근대 건축교육 학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전희(1993), 「한국 대학건축교육의 출발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v.2, n.2
- 李海淸(2004), 『中国建筑现代转型』, 东南大学出版社
- 박종성(2007), 「미국의 건축사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v.09, n.03, 2007-09
- 박종성(2011), 「한국·미국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및 시험내용 분석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n.35
-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1989), 『서울공고 90년사』, 서울공업고등학교
- 서울대학교(198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세형(2009), 「영국의 건축사 자격의 법적 현황과 건축설계 업무범위」, 『건축과사회』
- 심상호(1992), 「20세기 전반기 한국 건축교육에 대한 실증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v.1, n.1
- 야나부 아키라 저, 김옥희 역(2001), 『번역어의 성립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 마음산책
- 여인석·박운재·이경록·박형우(2002),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한말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의사학』 n.11
- 우동선 역(2011), 『아키텍트 :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건축가 5천 년의 이야기』, 효형출판,
- 윤건차(1987),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
- 윤인석(2014), 「조선총독부 치하의 근대건축」, 『한국건축통사 : 선사시대부터 현대건축까지』, 대한건축학회
- 윤일주(1978), 『한국현대미술사(건축)』, 국립현대미술관
- 이광노(1988), 「사회와 문화의 첨단 가장 역」, 『예총 40년사』,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 이광노·주남철(1985), 『한국건축40년사 (1945~1985)』, 대한건축학회
- 이국운(2015), 「한국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로스쿨 제도 이전」, 『저스티스』 n.146-2
- 이금도(2007), 「조선총독부 건축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3 n.4, 2007-04
- 이문보(2001), 『建築界 回想 50年』, 기문당
- 이종호(1992), 「1945년-1955년 한국 건축단체 연구-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천승(1947). 「현단계의 건축가의 진로」, 『조선건축』, v.1 n.1
- 이흥기(2010). 『한국 근대 의사직의 형성과정(1885~1945)』,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조선건축기술단(1947), 『조선건축』, v.1 n.1
- 조선건축회(1922). 『朝鮮と建築』 창간호
- 최상기(2009). 「건축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만드는 건강한 건축 문화」, 『건축과사회』
- 최상기(2009). 「건축 전문직에서 산업적 분류는 필요한가」, 『건축과사회』
- 최창규(1985). 「특집:해방40년-건축」, 『공간』, 1985-10
- 최태숙(2006), 『건축설계 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편집부(1956). 「學會消息」, 『建築』 n.2, 1956-04
- 편집부(1962). 「建築士法(案)〈國土建設廳案〉」, 『建築』 v.6 n.1, 1962-06
- 편집부(1962). 「學會消息」, 『建築』 v.6 n.1, 1962-06
- 한국건축가협회(1994).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 한국과학재단(2003). 『건축학교육인증시스템개발연구』
- 한양대학교(1987). 『한양대학교 건축동문회보』
- 한정섭(1981). 「권두인터뷰. 건축, 도시를 듣는다」. 『건축문화』 n.2, 1981-07
- 홍성수(2007). 「영국 건축사제도 - 최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 黃尙一, 「建築士法制定을 爲한 協議會의 參席報告」, 『建築』 n.6, 1962-10

2. 국외 문헌

- 高村直助(1997). 「日本經濟の画期としての1897年」,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谷直樹(1997). 「幕末期における作事周辺が現代に投げかけるもの」,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堀勇良(1997). 「<造家>の消える時」,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金行信輔・倉方俊輔・清水重敦・山崎幹泰・中谷礼仁(1997). 「『造家』から『建築』へ : 学会命名・改名の顛末から」,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大内兵衛・土屋喬雄 編(1964). 『明治前期財政經濟史料集成』, 第17卷ノ1
- 東京都建築局指導課(1949). 『条例解説 建築代理士の責務』, 東京建築代理士会
- 藤森照信(1997). 「目のウロコが落ちた(特集を読んで)」,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藤井正一郎(1997). 「日本の建築家職能の軌跡—新日本建築家協会の設立まで」, 日刊建設通信新聞社
- 笠原敏郎(1949). 「市街地建築物法制定について」, 『新都市』 v.3, n.4, 1949-04
- 武上真理子(2013). 「シヴィル・エンジニアリングの語と概念の翻訳 — 「市民の技術」とは何か」, 『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翻訳概念の展開』,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附属現代中国研究センター
- 北澤憲昭(1997). 「美術・工業・建築 : 「建築学会」命名の語史的背景」,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山本正紀(1980). 『建築家と職能—建築家のプロフェッションとは何か』, 清文社
- 西山卯三(1937). 「我國建築家の將來に就いて」, 『建築雑誌』 51 (625), 1937-04
- 西村幸夫(1997). 「『保存すべきものとしての建築』の登場」,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速水清孝(2001). 『建築家と建築士 一法と住宅をめぐる百年』, 東京大学出版会
- 速水清孝(2005). 「建築行政官の建築士法に対する意見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1」, 日本建築学会論文集 (598), 2005-12
- 速水清孝(2006). 「建設業法第26条:主任技術者制度の成立過程と建築士法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5」,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10), 2006-12
- 速水清孝(2006). 「建築代理士制度の成立と展開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2」,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01), 2006-03
- 速水清孝(2006). 「建築士法第3条:建築士でなければならない設計又は工事監理の範囲の昭和26年改正の経緯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3」,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05), 2006-07
- 速水清孝(2006). 「帝国議会上程期の建築士法案に対する考察 : 建築士法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その4」, 日本建築学会論文集 (607), 2006-09
- 野田俊彦(1915). 「建築非藝術論」, 『建築雑誌』 29(346)
- 野田俊彦(1927). 「建築學會時局ニ關スル委員會ノ建築士法ニ對スル意見」, 『日本建築士會會報』 n.5,

1927-04

- 源愛日児(1997). 「日本建築字彙を読み直す」,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伊東忠太(1894). 「「アーキテクチュラル」の本義を論して其譯字を撰定し我が造家學會の改名を望む」, 『建築雑誌』 n.8 (90)
- 伊東忠太・市東謙吉(1893). 「建築術と美術との關係(明治廿六年三月八日通常會演説)」, 『建築雑誌』 n.7 (75)
- 日本建築業協會(1930). 「第三十回定時總會議事録」, 『建築業協會會報』 n.13, 1930-05
- 日本建築学会 編(1972). 『近代日本建築学発達史』, 丸善書店
- 長野宇平治(1936). 「中條君を追憶す」, 『建築雑誌』 v.50 (612), 1936-05
- 前川喜寛(1992). 「建築基準法制定に当たって描いたいくつかの夢」, 『建築雑誌』 n.107 (1336)
- 鄭英淑(2013). 「Architecture の訳語をめぐる」, 『日本近代學研究』 n.42
- 佐藤道信(1997). 「美術と建築の<学>と<術>(特集を読んで)」,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佐野利器(1927). 「建築學會時局ニ關スル委員會ノ建築士法ニ對スル意見」, 『日本建築士會會報』 n.5, 1927-04
- 中谷礼仁(2006). 『近世建築論集』 acetate
- 中條國男・網戸武夫・黒崎幹男 외(1961). 「人物風土記 第21回 建築士会の創立者 中条精一郎先生を語る」, 『建築士』, v.10, n.99, 1961-01
- 中條精一郎(1911). 「注文者と建築技師と請負業者」, 『建築雑誌』 n.25 (292), 1911-04
- 中村達太郎(1915). 「建築家の定義如何」, 『建築雑誌』 n.29 (345), 1915-09-25
- 池上重康(2007). 「工部大学校創設期の所蔵建築洋書について : 明治初期日本政府購入建築関連洋書に関する研究 その2」, 『日本建築学会論文集』 n.618, 2007-08
- 池上重康(2007). 「太政官文庫蒐集建築関連洋書について : 明治初期日本政府購入建築関連洋書に関する研究その1」, 『日本建築学会論文集』 n.615, 2007-05
- 池上重康(2008). 「工部美術学校旧蔵の現存建築関連洋書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大会學術講演梗概集』, 2008-09
- 池上重康・角幸博・皆川雄一(2004). 「開拓使函館支庁旧蔵ならびに函館図書館所蔵建築史料について : 開拓使旧蔵建築関連洋書研究 その1」, 『日本建築学会大会學術講演梗概集』, 2004-08
- 津川俊夫(1940). 「新國民組織と建築士」, 『日本建築士』 V.28, No.12
- 初田亨(1997). 「建築ネットワークの隆盛 : 建築の近代を支えた技術者・職人」, 『建築雑誌』 112(1410), 1997-08
- 徳霖(2007). 「学科の外來替植: 中国近代建築人才の出現と建築教育の史展」, 『中国近代建築史研究』, 清华

大学出版社

- 赖德林(2007). 『中国近代建筑史研究』, 清华大学出版社
- 徐苏斌(1991). 『比较·交往·启示——中日近现代建筑史之研究』, 天津大学建筑系博士学位论文
- 孙文(1956). 「孙文学说·四」, 『孙中山选集』, 人民出版社
- 张复合 主编(2002). 『中国近代建筑研究与保护(四)』, 清华大学出版社
- 张复合 主编(1993). 『第四次中国近代建筑史研究讨论会论文专辑』, 清华大学出版社
- 张复合 主编(1991). 『第三次中国近代建筑史研究讨论会论文专辑』, 清华大学出版社
- 钱锋(2005). 『现代建筑教育在中国 1920-1980』, 同济大学博士学位论文
- 钱锋·伍江(2008). 『中国现代建筑教育史, 1920-1980』, 中国建筑工业出版社
- 赵国文(1991). 「中国近代建筑史论」, 『建筑师(28)』, 中国建筑工业出版社
- 朱英·魏文亨 主编(2009). 『近代中国自由职业者群体与社会变迁』, 北京大学出版社
- 曾坚(1995). 「中国建筑师的代间问题及其他」, 『建筑师』(67), 中国建筑工业出版社

- A. Gouldner(1978). The New Class Project I, Theory and Society, n.6
- AIA(1945). Architecture: A Profession and a Career, AIA Publications
- B. Bledstein(1976). The Culture of Professionalism, Norton
- B. Kaye(1960). The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in Britain, Allen and Unwin
- Burkhard Dietz(1996). “Technik und Kultur” zwischen Kaiserreich und Nationalsozialismus: Über das sozio-kulturelle Profil der “Zeitschrift des Verbandes Deutscher Diplom-Ingenieure”(1910-1941), in: Burkhard Dietz, Michael Fessner, Helmut Maier (eds.). Technische Intelligenz und “Kulturfaktor Technik”: Kulturvorstellungen von Technikern und Ingenieuren zwischen Kaiserreich und früh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ster, Waxmann Publishing Co.
- C. Wilkinson(1977). The New Professionalism in the Renaissance, in S. Kostof ed., The Architect: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Profe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 Jameson(1980). Modern Architecture as an Ideology, Architectural Journal of the GSFA, v.IV, University of Pennsylvania
- E. Greenwood(1957). The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n.2
- E.A. Krause(1995). Death of the Guilds: Professions, States, and the Advance of Capitalism, 1930 to the Present, Yale University Press
- E.O. Wright(1980). Class and Occupation, Theory and Society, v.9, n.1

- E.S. Prior(1892). The Ghosts of the Profession, in N. Whaw ed., *Archithecure: A Profession or an Art?*, John Murray
- Eliot Freidson(2001), *Profession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liote A. Krause(1996). *Death of the Guilds: Professions, States, and the Advance of Capitalism, 1930 to the Present*, Yale University Press
- Eugène Viollet-le-Duc(1854). *Dictionnaire raisonné de l'architecture*
- Eugène Viollet-le-Duc(1877). "les devoirs de l'architecte", *Gazette des Architectes et du Bâtiment*, n° 50
- Eve Jouannais(1992). *De la S.A.D.G. à la S.F.A., histoire d'une société d'architectes. Deuxième parti: 1940-1992*, éd. Société française des architectes
- F. Champy(2001). *Sociologie de l'architecture*, éd. la découverte
- F. Champy, C. Heitz, R. Martin, R. Moulin, and D. Rabreau(2013). *ARCHITECTURE Thèmes généraux - L'architecte*, in *Encyclopædia Universalis France*
- H.L. Wilensky(1964). The Professionalization of Everyon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 LXX, n.2
- J.T. Mickletwaite(1892).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in N. Shaw ed., *Archithecure: A Profession or an Art?* London: John Murray
- Jean-Jacques Aillagon(1978). *Les cahiers de la recherche architecturale*, n°2, la profession d'architecte, mars 1978
- K.M. Macdonald(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Sage Publication
- L. Eidlitz(1894). The Architect of Fashion, *The Architectural Record*, v.3
- M. Crinson, J. Lubbock(1994). *Architecture, Art or Profession?: Three Hundred Years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Britai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S. Larson (1979). *The Rise of Professionalism*, Bere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S. Larson(1980).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aper to the Davis Center Seminar, Feb. 1980
- N. Richter(1980). Registration: Riding into the Sunset Laws, *AIA Journal*, v.69, n.5
- N. Shaw ed.(1982). *Architecture: A Profession or an Art?*, J. Murray
- Peter Neu(2013). *Oberprüfungsamt für das technische Referendariat -Referat Z 35 beim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 S.B. Dostoglu(1982). *Towards Professional Legitimacy And Power: An Inquiry into the Struggle, Achievements and Dilemmas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through an Analysis of Chicago 1871-1909*,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ir Christopher Ball(2009). A Report for the RIBA On the Registration and Regulation of Architects RULES AND RESPONSIBILITY
- Stefan Amt(2001). Von Vitruv bis zur Moderne - die Entwicklung des Architektenberufes
- T. Veblen (1921). Engineers and the Price System, The Viking Press
- T.H. Marshall(1939). The Recent History of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Social Structure and Social Polic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 T.J. Johnson(1972). Professions and Power,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Macmillan Press
- T.J. Johnson(1982). The state and the profession : peculiarities of the British, A. Giddens and G. Mackenzie(eds),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da Minoru(2003). Morris and Ruskin in Japan, Bulletin of Obihiro Otani Junior College 40
- Tobias Sander(2009). Die doppelte Defensive: Soziale Lage, Mentalitäten und Politik der Ingenieure in Deutschland 1890-1933,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W.J. Goode(1960).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Profession : Psychology, Sociology and 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v
- Wolfdietrich Kalusche(2005). Zur Geschichte der Ausbildung von Architekten

3. 인터넷 사이트

<http://archprac.cua.edu/aprp/olce/educ/history.htm>
<http://arch.seu.edu.cn/dir.php?did=1&id=9>
<http://baike.baidu.com/>
http://blog.sina.com.cn/s/blog_d088c8570102vnnh.html
http://info.aia.org/aiarchitect/thisweek05/tw1007/a150_tw1007.htm
http://rapelli.free.fr/documents/article_02.pdf
<http://www.aaschool.ac.uk/AASCHOOL/LIBRARY/aahistory.php>
<http://www.abk-stuttgart.de>
<http://www.adbk.mhn.de>
<http://www.adbk.nuernberg.de/>
<http://www.aia.org/about/history/AIAB028819>
<http://www.art.org.uk>
<http://www.bda-bund.de/der-bda/chronik.html>
http://www.bhb-hannover.de/schriften/in_Druck_Entwicklung_Architektenberuf.pdf
<http://www.bvdtr.de/files/files/Oberpruefungsamt%20-%20Einfuehrung%20-%20Peter%20Neu.pdf>
<http://www.cnpl.org/definition>
<http://www.hfbk-hamburg.de>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http://www.jia.or.jp/guide/about_jia/history_jia.htm
<http://www.kenchikushikai.or.jp>
<http://www.law.go.kr/>
<http://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41&astClsCd=CF0101>
http://www.naab.org/about/naab_history
<http://www.ncarb.org/>
<http://www.njr.or.jp/>
<http://www.pedr.co.uk>
<http://www.taافتaito.org/台東支部の歴史/昭和時代・戦後/>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architecture-themes-generaux-l-architecte/>

<https://sites.google.com/site/delormearchitecture/>

<https://www.architecture.com/RIBA/Aboutus/Whoweare/Ourhistory.aspx>

<https://zh.wikipedia.org/wiki/苏州工业专科学校>

On the Institutional Formation of Appellation and Profession of the Korean Architect

Lee, Kang-Min
Seong, Eun-Young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reveal the ambivalent concept of the modern architect, the origin of the East-Asian conflict among appellations to the architect,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boundary of architects' services by the philological and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formations of the modern architect in various countries. The formation of the East-Asian appellation of the modern architect was analyzed in the respect of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boundary of architects' services professionalized during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was compared among nations. The conclusion was made as follows:

A. In the late 19th century of Japan, 'architecture' was mostly translated into two different neologism, irrelevant of the original meaning. The first one, '*Jou-ka*(造家: to build a 'house') specified the subject and the latter one, '*Ken-chiku*(建築: to erect and stack) accentuated the act. Combining vague concepts of the architecture with familiar Chinese characters, various interpretations on 'architecture' were made, and confusion of the meaning had been stretched. In the appellation of '*Kenchiku-ka*(建築家)' proposed by Japanese scholar *Chuta Ito*, state of the architect had been equal to the artists', detached from that of the traditional builder. The suffix '-ka' which expressed the specialty and social status was added. By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ion of the architect, *Kenchiku-ka*, superiority of the designer among other relevant groups to architecture was formalized and the other groups like constructors, engineers, etc. had been excluded from the *Kenchiku-ka*. These formation and

formalization of the appellation to the architect had brought similar awareness and usage of the word that were similar to the western concept of the architect, however, aggravated the confliction among various group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B. Although architectural history have been with the human history, the appearance of the architect as the professional was a product of the modernization. Through the modernization, as the doctor and the lawyer who would be understoo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fessionalism, the Western architect acquired an exclusive field of services and established a new professional class. The Western architect consolidated the professionalism and accentuated the occupational morality by founding schools and associations. Through systematic materialization of the professional properties including methodical theories, authorities, ethics codes, qualification systems, etc.,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ver the building process had been monopolized. Processes of the professionalization in each country, however, had been differentiated for leading groups of the professionalization(e.g., the academia versus the association, or the government versus the private sectors), pursuits of the education(e.g., the artist versus the businessman, or the artist versus the engineer) and systems of the qualification.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East-Asian professional architect was specialized as well: 1)Unlike the idea of the conventional occupations of building, the new concept of the architect was brought afresh, 2)Being defined by government, the early modern architects were raised as the government officials. Result of such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East-Asian professional architect were also observed in coinages, *Kenchiku-ka*, representing the class or the status, and *Kenchiku-gishi*, the government official rank. With the growth of the private market, the appellation of *Kenchigu-shi* came out at last, mean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architect by the suffix ‘-shi’.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appellation, however, asked various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calls.

C. Qualification system the nation certified was the final setting to exclusively guarantee the architects' services, generally rendered by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f the building. The certificate of the architect had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at least tens of years' endeavor.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professionalism can be approved, when the services has independence and specialty in a society, and furthermore it is admitted as the services to selflessly serve the public. In the East-Asia, the mental and physical labour were not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area of the building process. Therefore it needed more time to adopt the indispensable, superior role and status of the architect. It is interesting for the role of architect to be prominent especially in the legal permission in place of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management of the legitimacy at a construction site as the traditional bureaucracy asks the architect for administrative services. After 1965 the dispute of the identification and system of qualification for the architect mostly occurred at above matter in S. Korea.

D. The architect's superior status to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of the building is legally protected. The Architects Act preserves the services of qualified architects and limits the business and use of the appellation of the architect for unqualified individuals. In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however, system of the architect qualification does not follows the licence system as the doctor or the pharmacist is qualified but follows th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like the lawyer or the patent lawyer is qualified. This tells clearly that the architect's monopolistic status is not about the act but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example, Architects Act does not preserve the sole right to design the buildings. Rather it only preserve the monopolization of the legal effect of the building design. In other words, everyone can produce the design document but the design document a qualified architect takes responsibility is effective alone in the real building process. This property of the architect qualification system is not limited to S. Korea but a general story in most countries, that reflects limitations in the architect qualification system.

E. Due to the non-departmentalized architectural education and dela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ism of the architects in most East-Asian countries, constructors or engineers had been in charge of both the design and the construct supervision. In order to secure the architect's role, the legal guarantee about limitation of services and prohibition of employment by others was simultaneously needed. Accordingly, since the enactment of Architects Act was legislated in the early 20th century of Japan, the article to protect the architect from being hired for other works had been claimed. As the constructors and the materials companies opposed to this claim, however, the issue of the services degraded to the issue of the appellation. The conflict was concluded that the unqualified individuals could not design a building with the title of the architect appellation. In Korea, after 1978 the article for protecting the architect profession from subsidiary businesses was legislated, however, this institutionalization functioned as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the qualified architect from taking other businesses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o sum up, the various arguments over the architect system are often the common issues of architect profession all around world. In the process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architect, coterminous problems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concluded to variou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rchitect depending on the way they have been solved. In the East-Asian case, the misunderstandings over the appellation of the architect, bureaucracy and governmentism have resulted to unique systems of the architect. In addition, passive and artificial formation of association and market in the colonial era and strong administrative needs in the national reconstruction period introduced another feature of the Korean architect system. Therefore, to improve the Korean architect system, for a star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l problems and particular issues with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architect profession.

Key Words : Korean Architect, Appellation, Profession, Institution of the Architect